2025
문학주간 백서

기

움

당

도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함께 달리며
서로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시간

문학주간2025 백서

목차

Ⅰ. 사업 개요

1. 문학주간2025 개요 04
2. 추진 체계 06
3. 프로그램 구성 및 결과 08

Ⅱ. 프로그램

1. 개막식 14
2. 주제 스테이지 16
3. 협력 스테이지 66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98
5. 전시 프로그램 120
6. 야외 협력기관 프로그램 122
7. 참여 프로그램 132

Ⅲ. 결과 및 제언

1. 만족도 조사 136
2. 평가 및 제언 149
3. 참여 관객 후기 156

Ⅳ. 홍보

1. 홍보 개요 160
2. 언론 홍보 161
3. 온라인 홍보 170
4. 오프라인 홍보 200

Part.

1

사업 개요

1. 문학주간2025 개요 04

1-1. 사업 목적
1-2. 행사 개요
1-3. 기획 의도

2. 추진 체계 06

2-1. 추진체계도
2-2. 기획위원회

3. 프로그램 구성 및 결과 08

1. 문학주간2025 개요

1-1. 사업 목적

한국문학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장, 문학주간.
문학주간은 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향유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문학 진흥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감각으로 문학을 경험함으로 문학의 의미와 가치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 축제의 장 마련
- 문학인과 문학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문학계에 활력 제고 및 지속적인 문학 붐 조성

1-2. 행사 개요

행사명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
기간	2025. 9. 13.(토) ~ 2025. 9. 19.(금), 7일간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아르코미술관 1층 공간열림 및 전국 문학시설
사업 내용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학계, 예술계, 독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개막토크, 낭독극, 작가대담, 토크, 전시, 체험 등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종로구청
협력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글로연, 문학과지성사, 봄볕, 브로콜리숲, 알라딘, 천개의바람, 프란츠, 해의아이들, 훔통만화연구실, 교보문고, 밀리의서재, 비타콘, 트레바리
프로그램 수	54건
참여 예술가 수	187명
참여 관객 수	13,146명
언론 홍보	67건
온·오프라인 홍보	개막·폐막행사, 주제 스테이지, 협력 스테이지,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특별 전시, 참여 프로그램 등

1-3. 기획 의도

<도움—닿기>

우리가 만약 어떤 트랙을 달리고 있다면 그리 머지않은 곳에 구름판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견고하고 상상할 수 있지만 막상 상상한 대로는 닿지 않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은 몹시 중요합니다. 높이 뛰어오르려면 적당한 타이밍을 생각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죠.

문학은 쉬이 상상할 수 없는 구름판을 감각하게 해줍니다. 내가 아닌 삶과 삶으로 이루어졌기에 분명 나인 세계 같은 것들이요. 문학은 자그마한 균열을 감각하고 그곳에 틈입하며 지워진 존재를 분명하게 비춥니다. 나로서 균열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문학이라는 장에서는 느슨하더라도 분명 함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해지지요. 비로소 우리 삶이 다른 삶에 기대어 간신히 이어지는 삶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환대와 도움으로 가닿을 수 있는 어떤 곳을 향해 끊임없이 도움닫기를 하는 셈이 되겠지요. 나름의 준비를 마쳤다면 편한 방식으로 발을 굴러보세요. 어딘가 불편하다면 그 불편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마침내 도약을 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지르는 어린이와 할머니, 잠시 뒤처지는 무시무시한 용, 저 멀리 먼저 뛰어오르는 귀가 크고 체구가 조그만 토끼의 안정적인 자세를 잠시 감상해보세요. 달리는 시간 속에 펼쳐진 무수한 선택은 물론 당신의 몫이 될 테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2025년 문학주간은 여러분에게 '도움—닿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함께 달리며 서로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을 염원하는 문학주간이 마련한 작고 단단한 구름판입니다.

2. 추진 체계

2-1. 추진체계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위원회
문학 분야 현장 예술인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및 홍보대행 사업자
㈜태인크리에이티브랩

협력기관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글로연, 문학과지성사, 봄볕, 브로콜리숲,
알라딘, 천개의바람, 프란츠, 해의아이들,
홈통만화연구실, 교보문고, 밀리의서재,
비타콘, 트레바리

협찬
종로구청

2-2. 기획위원회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김선영	편집자, 출판사 핀드 대표	기획위원회 (6인)
2	김현	시인	
3	소유정	문학평론가	
4	양근애	연극평론가, 드라마투르그	
5	예소연	소설가	
6	오세란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3. 프로그램 구성 및 결과

연번	구분	일시	장소	프로그램명	참여자 수
1	개막행사	9/13(토) 19: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92
2	주제 스테이지	9/13(토)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청소년, 시에 닿다	28
3		9/13(토)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생각보다, 생각만큼	80
4		9/14(일) 13: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설 마음	22
5		9/14(일) 15: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이런 밤, 들 가운데서	47
6		9/14(일)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퀴어시낭독회	43
7		9/14(일)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36
8		9/14(일) 19: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유령들의 대화	57
9		9/14(일) 19: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날아오르기, 직전	24
10		9/15(월)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경계 너머의 이야기	58
11		9/16(화) 15: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우리 철봉 하자」 낭독회	53
12		9/16(화)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그만두는 경력	32
13		9/16(화)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판타지세계에 도착했습니다	46
14		9/16(화) 19: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읽고 만나고 쓰는 마음	38
15		9/16(화) 19:3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기형도 플레이	63
16		9/17(수) 15: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김명순의 첫 번째 100주년	68
17		9/17(수) 19:3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아픔을 읽기 쓰기	53
18		9/18(목)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누가 짓지 않은 집	44
19		9/18(목) 19: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시를 쉽게 고쳐 쓰시오	46
20		9/18(목) 19:3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나를 구하는 나(들)	68

연번	구분	일시	장소	프로그램명	참여자 수
21	주제 스테이지	9/19(금)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산다는 농담과 쓴다는 고민	31
22		9/19(금)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우리의 세계가 얽혀 있다면	29
23	폐막행사	9/19(금) 19: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김혜순, 시하다 -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낭독회	109
24	협력 스테이지	9/13(토) 13: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타인의 삶-장르의 경계를 넘어	31
25		9/13(토) 13: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김환영의 '라이브 샌드 퍼포먼스'	36
26		9/13(토) 14: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우리들의 어린_마음	29
27		9/14(일) 13: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글틴 오늘의 문학	41
28		9/15(월) 15: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일곱 시인과 함께 만나는 『시 보다 2025』	26
29		9/16(화)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어린이-청소년, 문학으로 닿기	70
30		9/17(수) 16: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IWP 아이오와 국제 창작 프로그램 포커싱	23
31		9/17(수)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빅토리아 마스 『미친 여자들의 무도회』 북토크 (서울국제작가축제 연계)	28
32		9/17(수)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마영신 깊이 읽기	29
33		9/17(수) 19: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그림책 작가와 편집자 대담: 우리는 왜 예술 그림책을 만드는가?	28
34		9/18(목) 15: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73
35		9/18(목)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2025 신춘문예 등단작가 특집	46
36		9/18(목)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향수, 음악과 문학이 소환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하여	42
37		9/19(금) 13: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 - 《꿈으로 지은 집》 연계 황유원, 이유리 작가 토크	26
38		9/19(금) 13: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키냐르를 읽는 시간	27

3. 프로그램 구성 및 결과

연번	구분	일시	장소	프로그램명	참여자 수
39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9/13(토) 10:00	서울특별시 중랑구립중화문학도서관	이웃-닿기 : 소설낭독극장	30
		9/13(토) 14:00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둔촌도서관		30
40		9/13(토) 14:00	경남 고성군 책둠벙도서관	어린이 문학캠프	33
		9/14(일) 14:00		문학으로 귀를 열다	12
41		9/13(토) 17:00	부산광역시 카프카의 밤	서로함께	9
		9/14(일) 10:00	부산광역시 책과아이들		
		9/14(일) 10:00	부산광역시 무사이 책방 무사이 극장	시와 함께 (영화 시쓰기)	8
42		9/14(일) 10:30	경기 화성시 노작홍사용문학관	광복 80주년, 시를 싣고 마음에 닿다	33
43		9/14(일) 14:0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작가들이 사는 <우리 동네 문학마을>	87
44		9/16(화) 19: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두근두근' 시 창작 주머니	13
45		9/17(수) 10:00	경남 밀양시 청학서림	도약 = 방향(d)x힘(f)x공감(e)⁴x관계(r)⁴	26
		9/17(수) 19:00	경남 진주시 보틀북스		
46		9/17(수) 14:00	대구광역시 구수산도서관 뒷마당	시끌시끌(詩글詩글) 문학 피크닉	22
47		9/19(금) 19:00	서울특별시 가온도서관 3층 가온마루	Point Nemo 라디오 공개 방송	19
48		9/19(금) 19:00	인천광역시 검단복지회관 공연장	문학으로 도움닫기, 마음으로 도움-닿기	116
		9/13(토)~ 9/19(금)	인천광역시 검단도서관/석남도서관		42
49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 전시	9/13(토)~ 9/19(금) 11:00~19:00	아르코미술관 1층 공간열림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소풍 《아자! 아자!》	778
		9/13(토), 14(일) 총 4회 운영		교육 프로그램 <그림책 응원석>	40
50	문학광장	9/13(토) 15:00	대학로예술극장 1층 대학로 공작소/씨어터광장	문장의소리 공개방송 특집 보이는 라디오 '문학까지 닿은 마음'	29
51	예술후원·홍보센터	9/13(토) 17:00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2025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in 마로니에 공원	1,215
52	한국저작권위원회	9/13(토)~ 9/14(일)	마로니에 공원 야외	저작권 완전존중 캠페인	1,461
53	한국정신문화재단	9/13(토) 15:00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21세기 인문가치포럼 in 서울	767
	청년재단	9/13(토)~ 9/14(일)	마로니에 공원 야외	청년인문교실 '고립은둔 청년의 방'	
54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상시부스	9/13(토)~ 9/19(금)	마로니에 공원 야외	2025 문학나눔	3,186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시선의 교차	
				소설의 윤곽	
				포켓 실크스크린 책갈피 & 스탬프 핀버튼 만들기 체험	
				10주년 기념 문장 뽑기	
				야외 북 라운지	
				교보문고 책장터	1,181

Part.

2

프로그램

1. 개막식 14

1-1. 개막식 개요
1-2. 개막식 구성

2. 주제 스테이지 16

2-1. 구성
2-2. 추진 절차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3. 협력 스테이지 66

3-1. 구성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98

4-1. 개요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5. 전시 프로그램 120

6. 야외 협력기관 프로그램 122

7. 참여 프로그램 132

1. 개막식

1-1. 개막식 개요

프로그램명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일시	2025. 9. 13.(토) 19:0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내용	1부. 개막 선언 및 개막 토크 2부. 개막 공연 및 낭독
참여자	92명

1-2. 개막식 구성

구분	세부내용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신은향 예술정책관
개막 선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개막 토크	<문학주간2025 기획위원 6인 초대 토크> 김선영 편집자, 김현 시인, 소유정 평론가, 양근애 평론가, 예소연 소설가, 오세란 평론가
개막 공연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옥자연 배우, 황정은 소설가, 김사월 뮤지션













2. 주제 스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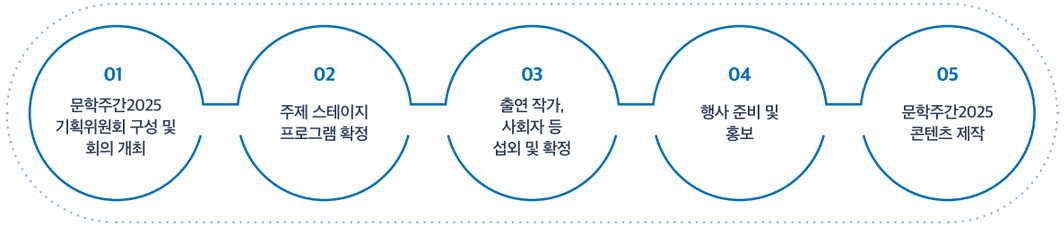
2-1.
구성

프로그램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청소년, 시에 닿다	사회: 권창섭(시인) 출연: 권민경(시인) 김승일(시인) 정다연(시인)	9/13(토)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28
생각보다, 생각만큼	사회: 김현(시인) 출연: 박천휴(극작가)	9/13(토)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80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사회: 옥자연(배우) 출연: 황정은(소설가) 김사월(뮤지션)	9/13(토) 19: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92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설 마음	사회: 김다솔(평론가) 출연: 남의현(소설가) 박소민(소설가) 윤단(소설가)	9/14(일) 13: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22
이런 밤, 들 가운데서	사회: 박소란(시인) 출연: 설유진(연출가) 송하늘(배우) 윤현길(배우) 최정현(배우) 하영미(배우)	9/14(일) 15: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47
퀴어시낭독회	사회: 김현(시인) 출연: 정재율(시인) 한영원(시인) 황인찬(시인)	9/14(일)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43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출연: 진형민(동화작가) 윤세종(변호사)	9/14(일)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36
유령들의 대화	사회: 홍은전(작가) 출연: 한윤미(연출가) 김나라(배우) 이리(배우)	9/14(일) 19: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57
날아오르기, 직전	사회: 신연선(소설가) 출연: 백온유(소설가) 강윤민지(배우) 전윤환(연출가)	9/14(일) 19: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24
경계 너머의 이야기	사회: 소유정(평론가) 출연: 성해나(소설가) 정홍칼리(무당/작가)	9/15(월)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58
「우리 철봉 하자」 낭독회	사회: 목충헌(감독) 출연: 예소연(소설가) 손수현(배우) 송예은(배우)	9/16(화) 15: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53
그만두는 경력	사회: 양근애(평론가) 출연: 김선영(편집자) 김진아(연출) 박연준(시인) 윤상은(무용가)	9/16(화)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32
판타지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사회: 오세란(평론가) 출연: 길상효(동화작가) 김리리(동화작가) 송미경(동화작가)	9/16(화)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46

프로그램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읽고 만나고 쓰는 마음	사회: 김현(시인) 출연: 은유(작가) 장일호(기자/작가) 정규환(작가)	9/16(화) 19: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38
기형도 플레이	출연: 송철호(배우) 김세영(배우) 박승현(배우) 천정완(극작가) 김태형(극작가) 유희경(시인/극작가) 김현우(연출/극작가)	9/16(화) 19:3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63
김명순의 첫 번째 100주년	사회: 김선영(편집자/출판사 핀드 대표) 출연: 박소란(시인) 김신록(배우/작가) 이유나(번역가)	9/17(수) 15: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68
아픔을 읽기 쓰기	사회: 오시경(편집자) 출연: 김도미(작가) 메이(작가) 안희제(작가)	9/17(수) 19:3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53
누가 짓지 않은 집	사회: 이오진(극작가/연출) 출연: 배해률(극작가) 이소연(극작가) 장영(극작가/드라마투르그) 허선혜(극작가/연출)	9/18(목)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44
시를 쉽게 고쳐 쓰시오	사회: 김현(시인) 출연: 권민경(시인) 안태운(시인) 이새해(시인) 장대성(시인) 한여진(시인)	9/18(목) 19: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46
나를 구하는 나(들)	사회: 양효실(번역가/연구자) 출연: 김원영(공연자/작가) 유성원(작가) 하은빈(작가)	9/18(목) 19:3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68
산다는 농담과 쓴다는 고민	사회: 파도(마케터) 출연: 금개(작가) 노해원(작가) 양다솔(작가)	9/19(금)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31
우리의 세계가 얽혀 있다면	사회: 박혜진(다람출판사 대표) 출연: 성혜령(소설가) 정선임(소설가) 함윤이(소설가)	9/19(금)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29
김혜순, 시하다 -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낭독회	사회: 소유정(평론가) 출연: 김혜순(시인) 김상혁(시인) 신해욱(시인) 안태운(시인) 유선혜(시인) 황유원(시인)	9/19(금) 19: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109

2. 주제 스테이지

2-2.
추진 절차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개막식]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낭독형
일시	2025. 9. 13.(토) 19:00 ~ 20:3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정병국 위원장, 신은향 예술정책관, 김선영, 김현, 소유정, 양근애, 예소연, 오세란(기획위원), 옥자연(배우), 황정은(소설가), 김사월(뮤지션)
참여자 소개	**옥자연(배우)** 배우. 2012년 연극 <손님>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마인>, <슈룹> 등에 출연했고 영화 <사랑의 고고학>으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배우상을 수상했다. <디 이펙트>, <이런 밤, 들 가운데서> 등 연극 무대에도 활발히 오르고 있다. **황정은(소설가)** 소설가. 200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마더」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일곱시 삼십이분 코끼리열차』 『파씨의 입문』 『아무도 아닌』, 장편소설 『百의 그림자』 『야만적인 앨리스씨』 『계속해보겠습니다』, 연작 소설 『디디의 우산』 『연년세세』, 산문집 『일기』 『작은 일기』 등을 썼다.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대산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젊은작가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사월(뮤지션)** 포크 싱어송라이터. 2012년부터 음악을 시작했으며 또다른 포크 뮤지션인 김해원과 듀오를 결성해 김사월X김해원이라는 듀엣 밴드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김사월X김해원의 <비밀>, 2015년 1집 <수잔> 이후로 음악, 공연,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13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상,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 최우수 포크 노래상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올해로 등단 20주년을 맞은 소설가 황정은과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배우 옥자연이 만나 문학주간의 문을 연다. 글을 쓰고 읽고 표현하는 세 사람의 마음이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로 가닿는다.
관객 수	92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 시에 닿다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대담형
일시	2025. 9. 13.(토)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권창섭(시인), 권민경(시인), 김승일(시인), 정다연(시인)
참여자 소개	**권창섭(시인)** 2015년 현대시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고, 2021년에 시집 『고양이 게스트하우스 한국어』, 2024년에 청소년시집 『우리 그런 말 안 써요』를 냈다. 시 쓰는 사람들 곁에 오래 있고 싶어, 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현재 명지전문대학교를 비롯 다양한 곳에서 시를 읽고 쓰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민경(시인)**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베개는 얼마나 많은 꿈을 견뎌냈나요』, 『꿈을 꾸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되었다』, 『온갖 열망이 온갖 실수가』, 산문집 『등고선 없는 지도를 쥐고』, 『울고 나서 다시 만나』 등을 남겼다. 고양시에서 고양이와 살고 있다. **김승일(시인)** 2009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데뷔. 시집으로 『에듀케이션』, 『여기까지 인용하세요』, 『항상 조금 추운 극장』, 산문집으로 『지옥보다 더 아래』가 있다. 2016년 현대시학 작품상, 2024년 박인환 문학상 수상. **정다연(시인)** 2015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의 시 부문에 당선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내가 내 심장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니까』, 『서로에게 기대서 끝까지』, 산문집 『마지막 산책이라니』 등을 냈다.
프로그램 내용	시인들이 청소년 독자들을 만나 다채로운 청소년시를 낭송하며 독자의 감상도 들어보는 자리.
관객 수	28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생각보다, 생각만큼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3.(토)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김현(시인), 박천휴(극작가)
참여자 소개	**김현(시인)** 2009년 『작가세계』 등단. 시집으로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낮의 해변에서 혼자』, 『장송행진곡』, 『깨끗한 슬픔』(공저), 소설집으로 『고스트 듀엣』, 산문집으로 『걱정 말고 다녀와』,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 『우리 반에도 있다』 등이 있다. 김준성문학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천휴(극작가)** 뮤지컬 작가, 작사가.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어쩌면 해피엔딩>, <일테노레>의 극본과 가사를, <고스트 베이커리>의 극본, 가사를 쓰고 연출을 했으며, 뮤지컬 <보디가드>, <오페라의 유령> 등의 번역과 한국어 가사를,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의 번역과 연출을 하였다. 2025년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제78회 토니 어워즈에서 작품상과 연출상, 각본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함께 꿈 같은 이야기와 전혀 꿈 같지 않은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
관객 수	80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설 마음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4.(일) 13:00 ~ 14: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김다솔(평론가), 남의현(소설가), 박소민(소설가), 윤단(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다솔(평론가)** 202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되어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기꺼이 다가가는 글, 힘껏 껴안는 글을 쓰고 싶다. **남의현(소설가)** 202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관희는 거울 거울은 관희」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박소민(소설가)** 2023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에 단편소설 「떠오르지 않으려고」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윤단(소설가)** 2024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내용	처음 소설을 쓰게 된 마음과 지금의 쓰는 마음은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을까.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 세 명과 함께 쓰는 마음을 공유하는 자리.
관객 수	22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이런 밤, 들 가운데서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시	2025. 9. 14.(일) 15:00 ~ 16:3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박소란(시인), 설유진(연출가), 907(구공칠) (출연 배우: 송하늘, 윤현길, 최정현, 하영미)
참여자 소개	**박소란(시인)** 시인. 시집 『심장에 가까운 말』, 『한 사람의 닫힌 문』, 『있다』, 『수옥』, 산문집 『빌딩과 시』 등을 냈다. 김명순의 에세이집 『사랑은 무한대이외다』와 소설집 『내 마음을 쏟지요 쏟지요』, 문장집 『사랑하는 이 보세요』를 엮었다. 2025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설유진(연출가)** 907(구공칠)에서 글을 쓰고 연출을 한다. 지금의 감각에 솔직한 작업을 하려 노력한다. 언제나 고민하는 것은 자유와 사랑이다. <어슬렁>, <이런 밤, 들 가운데서>, <홍평국전>, <오아시스>, <9월>, <초인종>, <씨름> 등을 작업했다. **907(구공칠) (출연 배우: 송하늘, 윤현길, 최정현, 하영미)** 907(구공칠)은 주변의 상징과 은유를 찾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소중한 만남과 대화의 자리가 그러하듯, 당신과 만나는 지금 이곳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907(구공칠)은 지금 여기에 사는 한 인간이 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연극으로 만들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용	'자유와 사랑이 도망간 세상에서 그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염원이 담긴 연극 <이런 밤, 들 가운데서>를 통해 참사를 지나는 마음과 이 현실을 대하는 예술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연출자와 시인이 대화를 나눈다.
관객 수	47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퀴어시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4.(일)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김현(시인), 정재율(시인), 한영원(시인), 황인찬(시인)
참여자 소개	**김현(시인)** 2009년 『작가세계』 등단. 시집으로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낮의 해변에서 혼자』, 『장송행진곡』, 『깨끗한 슬픔』(공저), 소설집으로 『고스트 듀엣』, 산문집으로 『걱정 말고 다녀와』,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 『우리 반에도 있다』 등이 있다. 김준성문학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재율(시인)** 2019년 『현대문학』 등단. 시집으로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온다는 믿음』 등이 있다. **한영원(시인)** 시인. 시집 『코다크롬』이 있다. **황인찬(시인)** 2010년 『현대문학』 등단. 시집으로 『구관조 씻기기』,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되풀이』,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 『잠시 작게 고백하는 사람』, 산문집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랑』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네 명의 시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어디에나 있으나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퀴어(시)에 닿는 시간.
관객 수	43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강연형
일시	2025. 9. 14.(일)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진형민(동화작가), 윤세종(변호사)
참여자 소개	**진형민(동화작가)** 어린이청소년책작가. 장편동화 『기호 3번 안석뽕』, 『소리 질러, 운동장』,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사랑이 혹!』, 『왜왜왜 동아리』, 동화집 『꼴뚜기』, 청소년소설집 『곰의 부탁』 등을 썼다. 2012년 창비 좋은어린이책 대상, 2021년 권정생문학상을 수상했다. **윤세종(변호사)** 대학에서 환경법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9년부터 시민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막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목표와 정책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에는 청소년 19명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규정한 법률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부족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프로그램 내용	기후위기 관련 동화 『왜왜왜 동아리』와 어린이의 기후위기 소송 및 재판과정에 관해 들으며 어린이 시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
관객 수	36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유령들의 대화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시	2025. 9. 14.(일) 19:00 ~ 20:3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홍은전(작가), 한윤미(연출가), 김나라(배우), 이리(배우)
참여자 소개	**홍은전(작가)** 기록활동가. 2001년에 노들장애인야학을 만나 인권운동을 시작했고, 2019년에 고양이를 만나 동물권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차별받던 존재가 저항하는 존재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냥, 사람』, 『나는 동물』 등을 썼다. **한윤미(연출가)** 바람컴퍼니 창작자로 거리/공공공간에서 관객과의 접촉을 통하여 의미를 발생시키는 형식으로 작업해 왔다.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의 공연이 어떤 의미를 발생시키는지를 탐구하고 주거, 연애, 여성의 몸, 노동, 동물권, 소수자의 위치 등 일상의 경험에 질문하며, 삶과 사회 속에서 공연예술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내려고 한다. **김나라(배우)** 극단 바람컴퍼니의 배우 겸 공동 창작자. 예술가, 치유자, 활동가의 경계에 서있다. 모든 생명의 본성을 살리며, 각 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예술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탐구하고 실험하고 있다. **이리(배우)**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과 거리공연팀 '바람컴퍼니'에서 배우이자 공동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위한 매체로서의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장소특정적인 창작과 더불어 접근성을 고려한 예술의 경험을 만들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용	산천어, 맹꽁이, 나비, 기러기에게 축제는 무엇일까? 죽음의 축제에서 삶의 축제로 나아가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비인간 존재들에게 닿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객 수	57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날아오르기, 직전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4.(일) 19:00 ~ 20:1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신연선(소설가), 백온유(소설가), 강윤민지(배우), 전윤환(연출가)
참여자 소개	**신연선(소설가)** 국문학을 전공했고, 출판사 홍보 기획자, 온라인서점 MD로 일했다. 팟캐스트 「책읽아웃—오은의 옹기종기」 대본을 썼고, 책 소개 코너 '어떤,책임'에서 '캘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장편소설 『구름이 겹치면』을 출간했다. **백온유(소설가)** 경북 영덕에서 태어났다. 서울예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2017년 장편동화 『정교』로 MBC 창작동화대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유원』, 『페퍼민트』, 『경우 없는 세계』 등을 썼다. 창비청소년문학상, 오늘의작가상, 2025년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강윤민지(배우)** 배우. 2023년, 2024년 국립극단 시즌 단원. 연극 <만선>, <유원>, <활화산> 등에 출연했고 <유원>으로 제3회 이영만연극상 배우상을 수상했다. **전윤환(연출가)** 공연연출가. 강화도에서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다. 이야기를 만나면 공연을 만들곤 한다. <극장 앞 텃밭, 텃밭 뒤 극장>, <자연빵>, <아몬드>, <유원> 등을 연출했으며,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프로그램 내용	백온유의 작품 세계를 『유원』을 중심으로 조명하고 연극 〈유원〉의 각색 과정을 들으며 연극 속 장면을 공유하는 자리.
관객 수	24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경계 너머의 이야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5.(월) 19:00 ~ 20: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소유정(문학평론가), 성해나(소설가), 정홍칼리(무당/작가)
참여자 소개	**소유정(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201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사이'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이제니의 시 읽기」가 당선되어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산문집 『세 개의 바늘』이 있다. **성해나(소설가)**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는 소설집 『빛을 걷으면 빛』, 『혼모노』, 경장편소설 『두고 온 여름』 등이 있다. 2024·2025년 젊은작가상, 이효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정홍칼리(무당, 작가)** 쓰고 그리고 춤추고 연대하고 싶어서 무당이 되었다. 고양시의 작은 마을에 있는 '칼리신당'에서 생활한다. 힌두교·기독교·불교·이슬람교·증산교 등 여러 종교를 끌어안는 짬뽕 무당이자 퀴어 페미니스트 비건 지향 무당이다. 무당은 만물의 신령을 모시는 존재고, 신령은 성차별주의와 종차별주의를 넘어선 존재라고 믿는다. 사회적 금기와 낙인을 글로 써왔다. 지은 책으로 『붉은 선』, 『세상은 내가 이상하다고 한다』, 『엄마는 인도에서 아난다라고 불렸다』(공저), 『신령님이 보고 계셔』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진짜와 가짜라는 경계는 무엇으로 구분지을 수 있을까? 성해나의 소설 「혼모노」를 무당 정홍칼리의 눈으로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 글을 통해 다양한 경계 넘기를 수행하는 두 작가와의 만남.
관객 수	58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우리 철봉 하자」 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일시	2025. 9. 16.(화) 15:00 ~ 16:3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예소연(소설가), 손수현(배우), 송예은(배우), 목충헌(감독)
참여자 소개	**예소연(소설가)** 2021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사랑과 결함』, 중편소설 『영원에 빛을 져서』, 장편소설 『고양이와 사막의 자매들』 등이 있다. 제13회 문지문학상, 제5회 황금드래곤문학상, 제25회 이효석문학상 우수작품상을 받았으며, 제4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손수현(배우)** 배우. 2013년에 데뷔해 <마더인 로>, <럭키, 아파트>, <철봉하자 우리>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송예은(배우)** 배우. 연기를 하고 무언가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 **목충헌(감독)** 단편영화 <경야>(2021), <셔터>(2021)를 연출했으며, 2024년 장편영화 <철봉하자 우리>의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프로그램 내용	예소연 소설가의 단편소설 「우리 철봉 하자」로 손수현, 송예은 배우가 낭독 공연을 진행한다.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 새로운 소설 경험.
관객 수	53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그만두는 경력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6.(화)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양근애(평론가), 김선영(편집자), 김진아(연출), 박연준(시인), 윤상은(무용가)
참여자 소개	**양근애(평론가)** 연극평론가, 드라마투르그.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희곡 창작과 비평을 가르친다. 문화의 미학적, 정치적 수행성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쓴다. 평론집 『'이후'의 연극, 달라진 세계』가 있다. **김선영(편집자)** 출판사 '핀드' 대표. 한국문학 편집자로 일하며 다수의 시집과 소설책을 만들었다. 쓴 책으로 『아무튼, 스윙』이 있다. **김진아(연출)** "지금-우리"의 교집합과 차집합을 탐사한다. 15년여간 연극을 하다가 멈추었다. 동력을 잃은 시기의 기록과 동료 창작자들의 설문 응답을 엮어 『창작자의 번아웃/ 한 연극인의 긴 퇴장 인사』를 출간했다. 2023년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수상했다. **박연준(시인)**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에 시 「얼음을 주세요」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 『베누스 푸디카』, 『사랑이 죽었는지 가서 보고 오렴』과 산문집 『소란』,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내 아침인사 대신 읽어보오』, 『모월모일』, 『마음을 보내려는 마음』, 동화 『정말인데 모른대요』를 펴냈다. **윤상은(무용가)** 안무가. '무용'이라는 경계 안팎으로 발생되는 흥미로운 지점들을 찾아 창작자, 기록가, 교육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레 다시 보기' 작업을 하며 동시대 발레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질문한다. 워크숍 <모든 몸을 위한 발레>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안무작으로는 <어딘가의 발레>, <메타 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 <죽는 장면>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경력 단절은 단절이 아니라 (셈해지지 않는) 경력이다. 그만둔 사람의 이야기,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었던 이야기. 울고 웃으며, 정지하고 멈추고 호흡을 다듬었던 이야기.
관객 수	32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판타지세계에 도착했습니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6.(화) 19:00 ~ 20: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오세란(평론가), 길상효(동화작가), 김리리(동화작가), 송미경(동화작가)
참여자 소개	**오세란(평론가)**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어린이책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 『창비어린이』 편집위원이다. 『기묘하고 아름다운 청소년문학의 세계』, 『청소년문학의 정체성을 묻다』,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권정생의 삶과 문학』(공저), 『이원수와 한국 아동문학』(공저), 『한국 아동청소년문학 장르론』(공저), 『교사를 위한 온작품 읽기』(공저) 등을 썼다. **길상효(동화작가)** 신소재 공학과 영화학을 전공, 드라마 극본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림책 『동갑』, 시리즈 동화 『깊은 밤 필통 안에서』 등을 썼으며, 청소년 소설집 『2100년 12월 31일』, 『김누아의 가설』 등에 참여했다. 제3회 한국과학문학상, 제10회 비룡소문학상, 제5회 웅진주니어 그림책상을 수상했다. **김리리(동화작가)** 중앙대학교에서 아동복지학을 공부하고, 공주교대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했다. 동화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 『그 애가 나를 보고 웃다』, 『내 이름은 개』, 『우리는 닭살 커플』, 『쥐똥 선물』, 『나의 달타냥』, 『화장실에 사는 두꺼비』, 『뻥이오, 뻥』, 『감정종합선물세트』, 『마법의 빨간 부적』, 「이슬비 이야기」 시리즈와 「고재미 이야기」 시리즈, 청소년 소설 『어떤 고백』, 그림책 『별세상 목욕탕』 등이 있다. **송미경(동화작가)** 동화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제2회 웅진주니어문학상을, 『어떤 아이가』로 제54회 한국출판문화상을, 『돌 씹어 먹는 아이』로 제5회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쓴 책으로 동화 『햄릿과 나』, 『봄날의 곰』, 『가정통신문 시 쓰기 소동』, 『생쥐 소소 선생』, 청소년소설 『광인 수술 보고서』, 『나는 새를 봅니까?』, 그림책 『안개 숲을 지날 때』, 소설 『메리 소이 이야기』 등이 있고, 쓰고 그린 책으로 그림책 『토끼가 되었어』, 만화 『오늘의 개, 새』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판타지동화의 매력은 무엇인지, 동화작가들에게 작품 창작 과정을 들으며 함께 감상을 나누는 자리.
관객 수	32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읽고 만나고 쓰는 마음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6.(화) 19:00 ~ 20:1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김현(시인), 은유(작가), 장일호(기자/작가), 정규환(작가)
참여자 소개	**김현(시인)** 2009년 『작가세계』 등단. 시집으로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낮의 해변에서 혼자』, 『장송행진곡』, 『깨끗한 슬픔』(공저), 소설집으로 『고스트 듀엣』, 산문집으로 『걱정 말고 다녀와』,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 『우리 반에도 있다』 등이 있다. 김준성문학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은유(작가)** 집필노동자. 쓴 책으로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폭력과 존엄 사이』, 『출판하는 마음』, 『해방의 밤』, 『우리는 순수한 것을 생각했다』, 『아무튼, 인터뷰』 등이 있다. 2016년 <시사IN> '올해의 저자'로 선정되었다. **장일호(기자/작가)** <시사IN> 기자. 산문집 『슬픔의 방문』,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해』(공저), 『우리 일의 미래』(공저) 등이 있다. **정규환(작가)** 에디터. 팟캐스트 <개인사정> 진행자. 쓴 책으로 『괄호 안 하트』(공저)와 산문집 『사랑을 찾아갈 거야』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	읽는 사람이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쓰는 사람이기도 한 세 명의 작가-노동자와 먹고 살며 쓰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관객 수	38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형도 플레이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시	2025. 9. 16.(화) 19:30 ~ 21:0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송철호(배우), 김세영(배우), 박승현(배우), 천정완(극작가), 김태형(극작가), 유희경(시인/극작가), 김현우(연출/극작가)
참여자 소개	**창작집단 독 (천정완, 김태형, 유희경, 김현우)** 아홉 명의 극작가로 이루어진 연극 집단. 지금까지 독특한 방식의 공동 창작인 '독플레이' 여덟 편을 비롯해 무수한 개인 작업을 통해 새로운 연극 언어를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희곡, 시, 소설 등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한편, 꾸준히 함께하며 '쉽지 않고' '가지 않은' 길 찾기에 골몰하는 중이다. 희곡집 『당신이 잃어버린 것』 『팬데믹 플레이』를 펴냈다. **송철호(배우), 김세영(배우), 박승현(배우)**
프로그램 내용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을 희곡으로 만난다면 어떨까? 무대 위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그려지는 시를 보고, 듣는 것으로 기형도의 시를 새로이 감각하는 자리.
관객 수	63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김명순의 첫 번째 100주년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대담형
일시	2025. 9. 17(수) 15:00 ~ 16:3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김선영(편집자), 박소란(시인), 김신록(배우/작가), 이유나(번역가)
참여자 소개	**김선영(편집자)** 출판사 '핀드' 대표. 한국문학 편집자로 일하며 다수의 시집과 소설책을 만들었다. 쓴 책으로 『아무튼, 스윙』이 있다. **박소란(시인)** 시인. 시집 『심장에 가까운 말』, 『한 사람의 닫힌 문』, 『있다』, 『수옥』, 산문집 『빌딩과 시』 등을 냈다. 김명순의 에세이집 『사랑은 무한대이외다』와 소설집 『내 마음을 쏟지요 쏟지요』, 문장집 『사랑하는 이 보세요』를 엮었다. 2025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신록(배우, 작가)** 배우. 연기를 통해 삶을, 삶을 통해 연기를 생각한다. 〈비평가〉, 〈마우스피스〉, 〈살아 있는 자를 수선하기〉 등의 연극과 〈괴물〉, 〈지옥〉, 〈재벌집 막내아들〉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인터뷰집 『배우와 배우가』를 출간했다. **이유나(번역가)** 한영 번역가이자 영미문학 연구자이다. 김명순 시 전집(미국 출간 예정)과 김선오 시인의 『싱코페이션』(2024)을 옮겼다. 현재 하버드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프로그램 내용	한국 최초 여성 근대 소설가 김명순의 작품집 『생명의 과실』 출간 100주년을 맞아 선구적인 여성 예술가 김명순의 작품을 현대에 되살린다. 시인 박소란, 배우 김신록, 번역가 이유나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김명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이야기 나눈다.
관객 수	68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아픔을 읽기 쓰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7.(수) 19:30 ~ 21:0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오시경(편집자), 김도미(작가), 메이(작가), 안희제(작가)
참여자 소개	**오시경(편집자)** 편집자. 아픈 사람 옆에서 말을 고르다 영원히 침묵하곤 한다.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잔의 자유』를 편집했다. **김도미(작가)** 함백산 아래에서 자라 이제는 북한산 아래에 살고 있는 암 경험자. 2022년 6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친구들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야기가 소위 '암 투병기'라고 부르는 글들에 대한 대항담론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썼다. 2022년 12월 30일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아픈 몸이 된 이후로 먹고사는 문제의 무거움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저서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잔의 자유』가 있다. **메이(작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을 공부했다. 질병을 겪으며 읽고 쓰는 일이 삶의 방식이 되었다. 에세이라는 (무)형식의 자유로움과 가능성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지식과 사랑이 담긴 글을 쓰고 싶다. 『아프다는 것에 관하여』,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공저)를 썼고, 『아픈 몸을 살다』, 『고통받는 몸』,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 『진실과 아름다움』을 우리말로 옮겼다. **안희제(작가)**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작가이자 비평가. 《비마이너》, 《시사IN》, 《홈리스뉴스》, 《문화일보》 등에서 칼럼을 연재했고, 《문학과 사회》, 《릿터》, 《문화과학》, 국립현대미술관, 합정지구 등에 문화·예술 비평을 썼다. 자신의 아픈 몸과 주변적 위치에서 문화를 더 나은 논의로 이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한다. 책 『증명과 변명』, 『망설이는 사랑』, 『난치의 상상력』, 『식물의 시간』을 썼으며, 함께 쓴 책으로는 『아픈 몸, 무대에 서다』, 『우리는 이어져 있다』, 『몸이 말이 될 때』, 『반려인의 오후』(근간)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질병을 사유하여 글로 쓴 작가들이 모였다. 아픔에 대한 깊고 풍부한 사유가 오가는 자리.
관객 수	53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누가 짓지 않은 집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8.(목)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이오진(극작가/연출), 배해률(극작가), 이소연(극작가), 장영(극작가/드라마트루그), 허선혜(극작가/연출)
참여자 소개	**이오진(극작가/연출)** [호랑이기운]에서 현대 여성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극작가로 데뷔하여 페미니즘 리부트를 전후로 연출 작업을 시작했으며, 희곡집 『청년부에 미친 혜인이』, 『연애사』,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공저), 『여자는 울지 않는다』(공저) 등을 펴냈다. 2023년 두산연강예술상을 받았다. **배해률(극작가)** 극작가. 희곡 <7번국도>, <여기, 한때, 가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사월의 사원>, <시차>, <목련풍선> 등을 썼으며, 제3회 이영만연극상 작가상을 수상했다. **이소연(극작가)** 극작가 동인 (괄호) 소속. 사랑, 폭력, 여성, 전쟁, 고독, 불안과 연결에 대한 글을 쓴다. 201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마트료시카>로 등단하여, <몬순>, <희곡상을 위한 희곡쓰기> 등을 썼다. **장영(극작가/드라마투르그)** 극작가, 드라마투르그. 극작과 연극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일하고 꾸준한 작업적 목표이다.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중층적 요소들에 대한 통찰을 연극에 담아내고자 하며, 의식 전환과 트랜스 퍼스널의 가능성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문라이트 오키나와>, <키리에>, <좋은 괴물>, <FAN>, <트랜스!> 등이 있다. <키리에>로 제 6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허선혜(극작가/연출)** 극작가. 창작살롱 나비꼬리 운영. 혜화동1번지 8기 동인. 세계의 한 귀퉁이를 접거나 샤프심만 한 구멍을 뚫어보는 창작을 즐겨 한다. 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탐구한다. <나의 뱀>, <무서운 게 딱 좋아>, <실수하고 살 수도>, <영지> 등을 창작했다.
프로그램 내용	극작가들은 어떻게 쓰나요. 세상에 없는 집을 지었다 부수는 마음은 뭘까요. 연극으로 문학을 하는 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외롭나요. 우리끼리 다 알 것 같은 비밀을 털어놓고 한 발 더 가보는 건 어떨까요.
관객 수	44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를 쉽게 고쳐 쓰시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낭독형
일시	2025. 9. 18.(목) 19:00 ~ 20:1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김현(시인), 권민경(시인), 안태운(시인), 이새해(시인), 장대성(시인), 한여진(시인)
참여자 소개	**김현(시인)** 2009년 《작가세계》 등단. 시집으로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낮의 해변에서 혼자』, 『장송행진곡』, 『깨끗한 슬픔』(공저), 소설집으로 『고스트 듀엣』, 산문집으로 『걱정 말고 다녀와』,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 『우리 반에도 있다』 등이 있다. 김준성문학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권민경(시인)** 2011년 동아일보 등단. 시집 『베개는 얼마나 많은 꿈을 견뎌냈나요』, 『꿈을 꾸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되었다』, 『온갖 열망이 온갖 실수가』, 『우리는 서로를 펼치고』(공저), 산문집으로 『등고선 없는 지도를 쥐고』, 『울고 나서 다시 만나』 등이 있다. 김춘수시문학상, 고산문학대상을 수상했다. **안태운(시인)** 2014년 《문예중앙》 등단. 시집 『감은 눈이 내 얼굴을』 『산책하는 사람에게』 『기억 몸짓』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새해(시인)** 시인. 시집으로 『나도 기다리고 있어』가 있다. **장대성(시인)** 2024년 시로 《파란》, 소설로 《무등일보》 신춘문예 등단. **한여진(시인)** 2019년 《문학동네》 등단. 시집으로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	5명의 시인들이 쉽게 고쳐-쓴 자작시를 나누며 우리 시의 언어가 미처 살피지 못한 '독자의 자리'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
관객 수	46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나를 구하는 나(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8.(목) 19:30 ~ 21:0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양효실(번역가, 연구자), 김원영(공연자, 작가), 유성원(작가), 하은빈(작가)
참여자 소개	**양효실(번역가, 연구자)** 온갖 소수자들의 자기-창안의 형식으로 촉수를 뻗는 이야기꾼. 미술 비평문을 모은 『대화 비평(2025)』과 예술가-되기를 꼬드기는 『불구의 삶,사랑의 말(2017)』을 냈다. 공동 번역과 개인 번역서가 여럿 있고, 주로 페미니즘, 장애, 퀴어에 대한 것들이다. **김원영(공연자, 작가)** 안무자, 무용수 등으로 활동한다. 장애와 예술, 규범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서 창작자이자 연구자로서 산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등의 책을 펴냈고, <보철(물)로서 움직이기> 등의 공연을 만들고 출연했다. **유성원(작가)** MSM 퀴어활동가이자 출판편집자, 소설가로, 2025년 『성원씨는 어디로 가세요?』를 출간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비규범적 성적 실천과 HIV/AIDS 감염인의 현실, 친밀성의 윤리를 중심으로 글을 쓴다. 산문집 『토요일 외로움 없는 삼십대 모임』을 출간했다. **하은빈(작가)** 목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글을 쓰고 공연을 한다. 『우는 나와 우는 우는』을 썼고 일라이 클레어의 『눈부시게 불완전한』을 우리말로 옮겼다. 불구의 몸, 상한 마음, 잘못한 사람에 관심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자기 이야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저절로를 허락하지 않는 낯선 'auto', 단수에서 복수로 나아가며 '나를 고발하고 나를 구하는 나(들)'에 관한 이야기.
관객 수	68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산다는 농담과 쓴다는 고민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9.(금)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파도(마케터), 금개(작가), 노해원(작가), 양다솔(작가)
참여자 소개	**파도(마케터)** '파도'라는 닉네임이 더 익숙해진 3년 차 흐름출판 마케터 하유정. 파도 파도 끝없는 책의 매력에 빠져 열심히 허우적거리면서도, 사회가 지우려던 이야기를 발견하면 자세를 단정히 바꾼다. 한겨레교육 '출판 선배 특강' 강의와 『경상의 말들』, 『전라의 말들』, 『시골, 여자, 축구』 북토크를 진행했다. **금개(작가)** 본명은 금혜지, 개와 쥐를 좋아하는 닭띠. 강원, 충북, 충남을 거쳐 서울에서 친구들과 살고 있다. 팟캐스트 〈금개의 시도〉, 〈생방송 여자가 좋다〉를 (공동) 진행했다. 각종 젠더 트러블, 경계와 사이에 있는 유머와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 저서 『적정 코미디 기술』이 있다. **노해원(작가)** 반반FC의 주장이자 공격형 미드필더. 얼떨결에 주장이 되어 3년째 팀을 이끌고 있다. 세 아이를 돌보는 일과 축구와 글쓰기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 노력 중이다. 그러나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만다. 축구만 하려던 계획에 실패해 이제는 축구보다 사랑과 우정을 키우기 위해 운동장에 간다. 축구도 인생도 매일이 슬럼프이자 과도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다. 저서 『시골, 여자, 축구』가 있다. **양다솔(작가)** 에세이스트. 얼굴은 까먹지만 문장은 안 까먹는 타고난 글방지기. 글을 쓰는 것보다 써달라고 조르는 일을 더 좋아한다. 열다섯에 처음 글방을 찾아가 10년간 글을 쓰다 작가가 되었다. '일주일에 글 한 편 마감'과 '지각 시 성대모사'라는 독특한 규칙 속에서도 2021년 출범 이후 매회 10분 만에 정원이 마감되고, 매주 200페이지 분량의 글이 쏟아지는 괴력의 커뮤니티 '까불이 글방'을 운영한다.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 『아무튼, 친구』, 『적당한 실례』 등을 썼다.
프로그램 내용	세 명의 에세이 작가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사는 농담과 쓰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유쾌한 시간.
관객 수	31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우리의 세계가 얽혀 있다면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9.(금)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박혜진(다람출판사 대표), 성혜령(소설가), 정선임(소설가), 함윤이(소설가)
참여자 소개	**박혜진(다람출판사 대표)** 다람출판사 대표. 방송인이자 출판인으로 일하며 말과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성혜령(소설가)** 《창작과 비평》 창비신인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버섯 농장』, 『산으로 가는 이야기』 등이 있다. 2023·2025년 젊은작가상, 2024년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선임(소설가)** 2018년 중앙신인문학상 단편소설 부분에 「귓속말」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첫 소설집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로 2022년 대산창작기금을 받았다. 2023년 단편소설 「요카타」로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함윤이(소설가)** 2022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되돌아오는 곰」으로 등단했다. 지은 책으로 『위도와 경도』, 다원예술 프로젝트 『서울집』이 있다. 제14회 젊은작가상과 문지문학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작가의 창작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일까? 창작의 시작점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닿아 있는 '얽힘' 시리즈의 기획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작업이 확장되는 과정을 들어본다. 얽힘 시리즈를 작업한 작가들과 기획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관객 수	29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폐막식] 김혜순, 시하다 -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일시	2025. 9. 14.(일) 19:00 ~ 21:0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김혜순(시인), 김상혁(시인), 신해욱(시인), 안태운(시인), 유선혜(시인), 황유원(시인)
참여자 소개	**김혜순(시인)** 1979년 『문학과지성』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또 다른 별에서』, 『당신의 첫』,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 산문집 『여자짐승아시아하기』, 시론집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여성, 시하다』, 인터뷰집 『김혜순의 말』 등을 펴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명예교수이다. **김상혁(시인)**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9년 『세계의문학』으로 데뷔해 시를 쓰기 시작했고, 몇 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등에서 문예창작 강사로 일하고 있다. **신해욱(시인)** 1974년 춘천에서 태어났다. 199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간결한 배치』, 『생물성』, 『syzygy』, 『무족영원』, 산문집 『비성년열전』, 『일인용 책』 등이 있다. **안태운(시인)** 2014년 『문예중앙』 등단. 시집 『감은 눈이 내 얼굴을』, 『산책하는 사람에게』, 『기억 몸짓』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유선혜(시인)** 시인. 1998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2022년 《현대문학》 시 부문 신인추천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가 있으며, 현재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황유원(시인)** 시인이자 번역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김수영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현대문학상, 김현문학패 등을 받았다. 시집으로 『하얀 사슴 연못』, 『초자연적 3D 프린팅』, 『세상의 모든 최대화』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슬픔에 이름 붙이기』, 『패터슨』, 『모비 딕』, 『폭풍의 언덕』, 『바닷가에서』, 『두더지 잡기』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언제나 '시하는' 시인, 김혜순의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를 낭독하는 자리. 저자 김혜순을 비롯한 여러 시인의 목소리로 40여 편의 시를 함께 읽고 듣는 시간.
관객 수	109명





3. 협력 스테이지

3-1.
구성

기관명	프로그램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아르코문학작가 펠로우십	타인의 삶-장르의 경계를 넘어	사회: 선우은실(평론가) 출연: 김소연(시인) 하성란(소설가)	9/13(토) 13: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31
브로콜리숲	김환영의 '라이브 샌드 퍼포먼스'	출연: 김환영(그림책작가/동시인)	9/13(토) 13: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36
천개의바람	우리들의 어린_마음	출연: 정유경(동시인)	9/13(토) 14: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29
글틴	글틴 오늘의 문학	사회: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출연: 박준(시인) 백은별(소설가) 글틴 청소년 작가 4인	9/14(일) 13: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41
문학과지성사	일곱 시인과 함께 만나는 『시 보다 2025』	출연: 구윤재(시인) 김복희(시인) 김선오(시인) 신이인(시인) 유선혜(시인) 이실비(시인) 한여진(시인)	9/15(월) 15: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26
문학계 인사	어린이-청소년, 문학으로 닿기	사회: 김유진(평론가) 출연: 최상희(소설가) 김다노(동화작가)	9/16(화)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70
문화체육관광부 K-Fellowship	IWP 아이오와 국제 창작 프로그램 포커싱	모더레이터: 정용준(소설가) 출연: 크리스토퍼 메릴(IWP 디렉터) 김유진(소설가) 김혜나(소설가) 한정현(소설가) 김민정(시인/출판사 난다 대표)	9/17(수) 16: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23
한국문학번역원	빅토리아 마스 『미친 여자들의 무도회』 북토크	사회: 김지승(작가) 출연: 빅토리아 마스(소설가)	9/17(수)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28
홈통	마영신 깊이 읽기	출연: 마영신(만화가) 김성진(평론가) 문종필(평론가)	9/17(수)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29
글로연×봄볕	그림책 작가와 편집자 대담: 우리는 왜 예술 그림책을 만드는가?	사회: 소윤경(그림책 작가), 출연: 오승현(편집자/글로연 대표) 박찬석(편집자/봄볕 부대표)	9/17(수) 19: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28
해의 아이들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출연: 유정민(배우) 설재영(배우) 김하준(배우) 김두리(배우) 오유라(배우) 김승진(연주자) 문은아(작가)	9/18(목) 15:0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73
문학계 인사	2025 신춘문예 등단작가 특집	사회: 헬북(편집자/작가) 출연: 길란(소설가) 김용희(시인) 차영은(소설가) 최경민(시인)	9/18(목)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46
예술기록원	향수, 음악과 문학이 소환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하여	출연: 김애란(소설가) 정경영(음악학자)	9/18(목)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42
국립한국문학관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 《꿈으로 지은 집》 연계 황유원, 이유리 작가 토크	출연: 황유원(시인) 이유리(소설가)	9/19(금) 13: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26
문학과지성사× 프란츠	키냐르를 읽는 시간	사회: 박연준(시인) 출연: 송의경(번역가) 김유진(소설가/번역가)	9/19(금) 13: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27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협력] 타인의 삶-장르의 경계를 넘어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3.(토) 13:00 ~ 14: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선우은실(평론가), 김소연(시인), 하성란(소설가)
참여자 소개	**선우은실(평론가)** 201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평론을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산문집 『웃기지 않아서 웃지 않음』과 평론집 『시대의 마음』을 출간하였으며, 공저에는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가 있다. 대산창작기금('21), 아르코문학창작기금('24), 경기문화예술지원('24) 등을 수상하였다. **김소연(시인)** 1993년 계간 현대시사상에 『우리는 찬양한다』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극에 달하다』, 『눈물이라는 뼈』, 『촉진하는 밤』 등을 발간하였고 『마음사전』, 『어금니 깨물기』 등의 산문집을 발표하였다. 제10회 노작문학상, 제57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하성란(소설가)**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풀」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루빈의 술잔』, 『여름의 맛』,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등 다영한 작품집을 발간하였으며, 제30회 동인문학상, 제54회 현대문학상, 제13회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우리는 세계를 감각하고 이해합니다.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합의를 도출해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문학은 삶의 첨단에 놓입니다. 언어를 통해 타인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문학주간 스테이지 '타인의 삶-장르의 경계를 넘어'는 시인 김소연과 소설가 하성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문학평론가 선우은실의 사회로, 시와 소설이라는 구분을 넘어 서로의 '세계관'에서 타인의 삶,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객 수	31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브로콜리숲 협력] 김환영의 '라이브 샌드 퍼포먼스'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시	2025. 9. 13.(토) 13:00 ~ 13:5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김환영(그림책작가/동시인)
참여자 소개	**김환영(그림책작가/동시인)** 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했고 1987년부터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린다. 그림책 『따뜻해』와 동시집 『깜장 꽃』을 쓰고 그렸다.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종이밥』, 그림책 『나비를 잡는 아버지』, 『강냉이』, 『빼떼기』, 『호랑이와 곶감』 등에 그림을 그렸다. 그림책과 동시, 샌드 퍼포먼스를 통해 독자를 만나고, 주민들의 인생 이야기를 수집해 '인생그림책' 만드는 걸 돕고 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 국내외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고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책에 있는 정지된 이미지를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움직이는 영상으로 감상하는 자리.
관객 수	36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천개의바람 협력] 우리들의 어린_마음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일시	2025. 9. 13.(토) 14:00 ~ 15:0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정유경(동시인)
참여자 소개	**정유경(동시인)**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태어나 이야기와 노래를 좋아하는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 교사로 일하며 동시를 공부합니다. 아이들과 여행을 좋아하고 강아지 흰둥이를 사랑합니다. 2007년 《창비어린이》 가을호에 동시 두 편을 발표하며 창작 활동을 시작해, 동시집 『까불고 싶은 날』, 『까만 밤』, 『파랑의 여행』, 『미지의 아이』(공저)를 펴냈고, 시 형식의 이야기책 『비밀 친구 데이비』를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2019년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이야기를 품은 동시책, 『달콤한 곰 님의 교실에서는』을 함께 낭독하고, 동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
관객 수	29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글틴 협력] 글틴 오늘의 문학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낭독형
일시	2025. 9. 14.(일) 13:00 ~ 15:0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정병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준(시인), 백은별(소설가), 글틴 청소년 작가 4인
참여자 소개	**정병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제8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다. 제16대~제20대 국회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제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준(시인)** 2008년 계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중도 배웅도 없이』,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계절산문』을 펴냈다. 현재 출판사 창비의 문학전문위원으로 있으며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박준입니다>의 진행자를 지내기도 했다. 신동엽문학상, 박재삼문학상, 편운문학상, 오늘의젊은예술가상, 유심상 등을 수상했다. **백은별(소설가)** 2009년생, 만 14세 나이에 데뷔한 청소년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필활동을 시작해 소설 『시한부』, 『윤슬의 바다』, 시집 『성장통』, 『기억하는 한 가장 오래』를 출간했다. 소설 『시한부』는 20주 연속 청소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대만, 튀르키예, 인도네시아와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사랑의 열매에 인세 1억 원을 기부,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많은 화제가 되었다.
프로그램 내용	글틴의 오늘을 만든,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스무 살의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글틴이 뽑은 2025 오늘의 작가>와 글틴 청소년 예비 작가가 함께하는 북토크 및 태안여중 밴드부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
관객 수	41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학과지성사 협력] 일곱 시인과 함께 만나는 『시 보다 2025』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대담형
일시	2025. 9. 15.(월) 15:00 ~ 17:4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구윤재(시인), 김복희(시인), 김선오(시인), 신이인(시인), 유선혜(시인), 이실비(시인) 한여진(시인)
참여자 소개	**구윤재(시인)** 2024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김복희(시인)** 201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 『희망은 사랑을 한다』, 『스미기에 좋지』, 『보조 영혼』 등이 있다. 2024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선오(시인)**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시집 『나이트 사커』 『세트장』 『싱코페이션』 등이 있다. **신이인(시인)** 202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검은 머리 짐승 사전』, 『나 외계인이 될지도 몰라』 등이 있다. **유선혜(시인)** 2022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등이 있다. **이실비(시인)** 202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한여진(시인)** 2019년 문학동네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올해 문지문학상 시 부문 후보작을 묶은 『시 보다 2025』에 이름을 올린 젊은 시인 7인이 시 세계 안팎의 이야기를 나누며 문학적 우정을 공유한다. 이 시대의 감각으로 지금 여기의 한국 현대시를 읽고 쓰는 시인들의 빛나는 시적 에너지를 만나볼 수 있다.
관객 수	26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어린이-청소년, 문학으로 닿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6.(화)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김유진(평론가), 최상희(소설가), 김다노(동화작가)
참여자 소개	**김유진(평론가)**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 동시부문(2009) 및 평론부문(2012)과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서평에세이 『구체적인 어린이』, 평론집 『언젠가는 어린이가 되겠지』, 동시집 『나는 보라』, 청소년시집 『그때부터 사랑』 등이 있으며, 성평등 어린이책을 큐레이션하는 '다움북클럽'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상희(소설가)** 2011년 제5회 블루픽션상(『그냥, 컬링』), 2014년 제12회 사계절문학상 대상(『델문도』), 2016년 제3회 SF어워드 중단편 부문에서 우수상(「그래도 될까?」)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늪지의 렌』, 『우주를 껴안는 기분』, 『속눈썹, 혹은 잃어버린 잠을 찾는 방법』 등이 있다. **김다노(동화작가)** 201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그런 하루」가 당선되어 등단하고, 2019년 제1회 나다움어린이책 창작 공모전에서 동화 『비밀 소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비밀 숙제』, 『최악의 최애』, 『아홉 살 하다』, 『하다와 황천행 돈가스』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세계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우리는 문학으로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소설가 최상희, 동화작가 김다노가 들려주는 다양한 여성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관객 수	70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화체육관광부 K-Fellowship 협력] IWP 아이오와 국제 창작 프로그램 포커싱
프로그램 유형	네트워킹, 강연형
일시	2025. 9. 17.(수) 16:00 ~ 18:0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정용준(소설가), 크리스토퍼 메릴(IWP 디렉터), 김유진(소설가), 김혜나(소설가), 한정현(소설가), 김민정(시인/출판사 난다 대표)
참여자 소개	**정용준(소설가)** 2009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에 단편소설 「굿나잇, 오블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2011년 문지문학상 이달의소설에 선정되고 2011년, 2013년, 2016년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소나기마을문학상과 황순원문학상, 문지문학상,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다. 2018년부터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소설 창작 교수로 재직 중이다. **크리스토퍼 메릴(IWP 디렉터)** 기자이며 시인이자 논픽션 작가로서 장르를 가리지 않으며, 『빛나는 물』, 『워크북』, 『신열과 조수』, 『불조심』 등 네 권의 시집을 출간하고 미국시인협회가 수여하는 피터 레이번(Peter I. B, Lavan) 상을 받았다. 홀리 크로스 대학교의 종신 문학 교수직을 거쳐 2000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 창작 프로그램(International Writing Program, IWP)의 원장을 맡고 있다. **김유진(소설가)** 2004년 단편소설 「늑대의 문장」으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으며,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2011년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2013년 황순원 신진문학상을 받았다. 저서로 장편소설 『숨은 밤』 등이 있으며,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이오와 국제 라이팅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이를 바탕으로 산문집 『받아쓰기 : 내가 머문 아이오와 일기』를 펴냈다. **김혜나(소설가)** 장편소설 「제리」로 2010년 제34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저서로 장편소설 『제리』, 『정크』, 『나의 골드스타 전화기』, 소설집 『청귤』, 산문집 『나를 숨 쉬게 하는 것들』, 등이 있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이오와 국제 라이팅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참여자 소개	**한정현(소설가)**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소녀 연예인 이보나』 『쿄코와 쿄지』 등이 있으며 2021년 「우리의 소원은 과학 소년」으로 젊은작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쿄코와 쿄지」로 부마항쟁문학상을 수상하였다.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이오와 국제 라이팅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김민정(시인/출판사 난다 대표)** 1999년에 문예중앙에 「검은 나나의 꿈」 외 9편의 시가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있으며 산문집 『각설하고,』가 있다. 현재 출판사 난다의 대표이다.
프로그램 내용	한강, 최승자 등 위대한 작가들이 함께한 IWP 프로그램, 2025년 디렉터 크리스토퍼 메릴의 방한을 계기로 펼쳐내는 예술위와 함께한 과거와 한국문학의 미래의 장.
관객 수	23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한국문학번역원 협력] 빅토리아 마스 『미친 여자들의 무도회』 북토크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7.(수) 17:00 ~ 18:3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김지승(작가), 빅토리아 마스(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지승(작가)** 경계 안팎의 유동적 위치성을 체현하는 작가이자 독립연구자. 문학, 문화이론, 정신분석학을 공부했고 비영리단체 사업 기획 및 매체 업무를 통해 다양한 삶들을 만났다. 현재 제도 밖에서 여성적 읽기-쓰기의 공간을 짓고 허물기를 반복하며 아픈 몸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어쩔 수 없이) 탐색 중이다. 불편과 불안을 지탱하는 언어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 『100세 수업』, 『아무튼, 연필』, 『짐승일기』, 『술래 바꾸기』, 『마지네일리아의 거주자』 등이 있다. **빅토리아 마스(소설가)** 영화계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9년 알뱅 미셸에서 첫 소설을 발표했다. 『미친 여자들의 무도회』는 르노도상 수상작이자 20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뒤이어 발표한 『기적』으로 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세 번째 소설로 『탕플 탑의 고아』를 선보였다.
프로그램 내용	빅토리아 마스의 『미친 여자들의 무도회』는 '광기'라는 이름 아래 고립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며, 문학이 닿을 수 있는 연대와 위로를 보여줍니다. 북토크를 통해 우리는 외면된 존재들과 이어지는 '도움—닿기'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합니다.
관객 수	28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홈통 협력] 마영신 깊이 읽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7.(수) 19:00 ~ 20: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마영신(만화가), 김성진(평론가), 문종필(평론가)
참여자 소개	**마영신(만화가)** 2021년 《엄마들》로 만화계의 오스카 상이라 불리는 '하비상'을 수상했다. 《남동공단》, 《벨트 위 벨트 아래》, 《삐꾸 래봉》 등 현실적이고 사회성 짙은 등 만화를 발표했으며 글 작가로 《너의 인스타》, 〈돌고래 뚜뚜〉, 〈러브 스트리밍〉 등에 참여했다. 예술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작가들과 함께 레이블 '즐겨찾기'를 운영 중이다. **김성진(평론가)** 만화평론가. SICAF,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축제 및 전시 기획.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 교수, 대안만화전문서점 '홈통' 공동대표, <만화 연구와 비평> 기획이사. **문종필(평론가)** 평론가이자 에세이스트. 지은 책으로 문학평론집 『싸움』이 있으며 이 평론집으로 2023년 5회 [죽비 문화 多 평론상]을 수상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만화평론 공모전 수상집에 「그래픽 노블의 역습」(2021)과 「좋은 곳」(2022)과 「무제」(2023)를 발표하면서 만화평론을 시작하였고, 현재 숭실대 교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하비상 수상 작가 마영신 깊이 읽기. 작가, 만화평론가, 문학평론가가 서로의 시선을 교차하는 작가 세계 탐색의 시간. 홈통만화연구실 만화인들이 만든 마영신 특집호는 별책 부록.
관객 수	29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글로연×봄볕 협력] 그림책 작가와 편집자 대담: 우리는 왜 예술 그림책을 만드는가?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7.(수) 19:00 ~ 20:1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소윤경(그림책 작가), 오승현(편집자/글로연 대표), 박찬석(편집자/봄볕 부대표)
참여자 소개	**소윤경(그림책 작가)** 회화 작가로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전시에 참가하며, 그림책 『내가 기르던 떡붕이』, 『레스토랑 Sal』, 『콤비 Combi』, 『호텔 파라다이스』, 『수연』, 『우주지옥』, 『청동투구를 쓴 소년』, 『영원의 얼굴』을 쓰고 그렸다. 지구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의 안드로메다 예술가로 오묘한 그림책을 전파하여 인간의 내면을 순화하고 무지로 인한 파멸적 행동들을 저지하고자 한다. 더불어 여행가, 모험가로 살아가길 꿈꾼다. **오승현(편집자/글로연 대표)** 그림책 편집자로 출판사 글로연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편집과 아트디렉팅을 한 그림책으로는 제1회 대한민국 그림책상 논픽션 대상을 수상하고 2022 볼로냐도서전 라가치상 어메이징 북셀프에 선정된 『줄타기 한판』, 제1회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한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 2019 BIB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등이 있으며, 편집한 그림책으로는 제5회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한 『09:47』과 2025 볼로냐도서전 라가치상 어메이징 북셀프에 선정된 『2053년 이후, 그 행성 이야기』 등이 있다. **박찬석(편집자/봄볕 부대표)** 오랫동안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 일했다. 지금은 그림책협회 부회장 활동을 하고 있으며, 봄볕에서 다양한 그림책과 어린이책을 만들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그림책 『사라, 버스를 타다』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	그림책 작가 소윤경과 박찬석, 오승현 편집자가 한국 출판계에서 예술 그림책이 마주한 현실과 지향점을 톺아본다.
관객 수	28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해의 아이들 협력]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토크형
일시	2025. 9. 18.(목) 15:00 ~ 16:3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유정민(배우), 설재영(배우), 김하준(배우), 김두리(배우), 오유라(배우), 김승진(연주자), 문은아(작가)
참여자 소개	**해의 아이들(극단)** '해의 아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기 안의 목소리를 만나도록 돕는 창작 단체입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감정과 질문들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는 작품을 만듭니다. **문은아(작가)** 밤송이처럼 까슬까슬한 이야기, 재채기처럼 간질간질한 이야기, 노을처럼 울컥울컥한 이야기, 바다처럼 두근두근한 이야기, 우주만큼 커다래지는 좁쌀 이야기들을 짓고 싶습니다. 혼자 노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노는 건 더 좋아합니다. 쓴 책으로 10회 5·18문학상을 받은 『이름 도둑』과 『오늘의 10번 타자』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째깍째깍! 숨을 준비는 되었겠지? 판타지아 워터랜드에서 펼쳐지는 이상한 숨바꼭질! 워터랜드가 폐장되기 전날, 9살 연지는 엄마와 마지막 물놀이를 즐기러 놀러온다. 그런데 수면 아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물속에서 만난 아이는 사라진 오빠를 찾고, 그 오빠는 째깍상어와의 싸움을 준비 중! 과연 연지는 이 숨바꼭질에서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
관객 수	73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025 신춘문예 등단작가 특집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8.(목) 17:00 ~ 18:1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헬북(편집자/작가), 길란(소설가), 김용희(시인), 차영은(소설가), 최경민(시인)
참여자 소개	**헬북(편집자/작가)** 출판 노동자. 지옥에서 온 편집자 '헬북'이라는 이름으로 『미래가 물었다, 지금 잠깐 시간 되냐고』를 쓰고 펴냈다. 지금은 무려 여덟 번째 출판사에 다니며 의외로 어린이·청소년책 편집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이십 대를 불태웠고 실제로도 불쏘시개로 쓰일 뻔한 과거 습작을 모아서 『늙은작가상 낙선작품집』을 엮어냈다. 별로 늙지도 않은 주제에, 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만족한다. **길란(소설가)** 소설 쓰는 사람. 202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복 있는 자들」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전 작품들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현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작품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가 특산품이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상인 도시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애정과 미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 **김용희(시인)** 시를 쓰는 사람. 아직 시인이란 호칭은 어색하고 어렵다. 2025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동안 대한민국 최초 운칠기삼으로 시인이 된 사람으로 소개하기도 했지만, 말의 힘에 관한 영상을 본 후 기칠운삼으로 시인이 된 사람이라고 혼잣말을 가끔 하는 사람. 당선 소식을 들은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긴 꿈속이 아닌가 혼자 볼을 꼬집어 보는 사람. **차영은(소설가)** 직장에서는 다소간 뚜렷하게 쓰려고 노력한다. 휴일에는 비교적 모호하게 쓰려고 노력한다. 202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경고문 쓰는 여자」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최경민(시인)** 공무원이자 시인. 출근은 정시에, 시는 엇박자로 쓴다. 2025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낮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바쁜 일이 없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일이 없다고 시가 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있으면 일단 시는 없다. 그래도 보고서를 쓰다 보면 시도 써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살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오늘의 한국문학이 아직은 닿지 못한, 너무 높은 끓는 점을 가진 작가 헬북과 이제 막 작가로서 새로운 점으로 나아갈 도움닫기를 준비 중인 등단 작가와 함께 나누는 '등단'에 대한 이야기.
관객 수	46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예술기록원 협력] 향수, 음악과 문학이 소환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하여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8.(목) 19:00 ~ 20: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김애란(소설가), 정경영(음악학자)
참여자 소개	**김애란(소설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소설집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비행운』, 『바깥은 여름』,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이중 하나는 거짓말』,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이 있으며, 2025년 신작 『안녕이라 그랬어』를 출간했다.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프랑스 비평가와 기자들이 선정하는 '리나페르쉬 상(Prix de l'inaperçu)'을 받았다. **정경영(음악학자)** 음악학자.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 노스텍사스주립대학교(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작곡과 음악학 전공 교수이다. 저서로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생각합니다』 등이 있으며, '차이나는 클라스'(2022, JTBC), '다큐프라임'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 악기가 악기를 만났을 때, 2022, EBS) 등 방송을 통해 대중과도 소통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대학로에 부활한 <르네쌍스 고전음악감상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인 르네쌍스 안에서 김애란 작가와 정경영 음악학자가 함께 풀어내는 음악과 문학의 메타언어.
관객 수	42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국립한국문학관 협력]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 - 《꿈으로 지은 집》 연계 황유원, 이유리 작가 토크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대담형
일시	2025. 9. 19.(금) 13:00 ~ 14:10
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황유원(시인), 이유리(소설가)
참여자 소개	**황유원(시인)** 시인이자 번역가. 2013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김수영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 젊은 예술가상, 현대문학상 등을 받았다. 시집으로 『하얀 사슴 연못』, 『초자연적 3D 프린팅』, 『세상의 모든 최대화』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위대한 개츠비』, 『슬픔에 이름 붙이기』, 『챔피언들의 아침식사』 등이 있다. **이유리(소설가)**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단편소설 「빨간 열매」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브로콜리 펀치』, 『모든 것들의 세계』, 『비눗방울 퐁』, 연작소설 「좋은 곳에서 만나요」를 썼다.
프로그램 내용	황유원 시인과 이유리 소설가가 자신의 꿈과 작품 세계를 들려주는 시간
관객 수	26명





3. 협력 스테이지

3-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학과지성사×프란츠 협력] 키냐르를 읽는 시간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대담형
일시	2025. 9. 19.(금) 13:00 ~ 14:30
장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박연준(시인), 송의경(번역가), 김유진(소설가/번역가)
참여자 소개	**박연준(시인)**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에 시 「얼음을 주세요」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 『베누스 푸디카』, 『사랑이 죽었는지 가서 보고 오렴』과 산문집 『소란』,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내 아침인사 대신 읽어보오』, 『모월모일』, 『마음을 보내려는 마음』, 동화 『정말인데 모른대요』를 펴냈다. **송의경(번역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에 출강했다. 키냐르의 작품 『은밀한 생』, 『로마의 테라스』, 『떠도는 그림자들』,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 『섹스와 공포』, 『옛날에 대하여』, 『빌라 아말리아』, 『신비한 결속』, 『부테스』, 『눈물들』, 『하룻낮의 행복』,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 『음악 수업』, 『세 글자로 불리는 사람』, 『행복한 시간들』과 그 외 다수의 문학 작품을 우리말로 옮겼다. **김유진(소설가/번역가)**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2004년 단편소설 「늑대의 문장」으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으며, 2015년 아이오와 국제창작프로그램에 참가했다. 2011년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2013년 황순원 신진문학상을 받았다. 저서로 소설집 『늑대의 문장』, 『여름』, 장편소설 『숨은 밤』, 산문집 『받아쓰기』가 있으며, 옮긴 책 『음악 혐오』가 있다. 제2회 젊은작가상, 황순원신진문학상, 김용익소설문학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키냐르를 읽는 시간, 그리고 하나의 세계를 옮긴다는 것.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의 작품을 한국어로 옮긴 번역자들이 함께 키냐르를 읽고 이야기한다.
관객 수	27명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1.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학 축제 <문학주간>을 매해 개최하고 있다. 2025년에는 '도움-닿기'를 주제로, 전국의 문학시설과 상주작가들이 함께하는 문학주간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는 전국의 상주작가와 문학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2개 이상의 시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무대로, 문학을 매개로 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장이 열렸다. 전국 문학시설과 상주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문학공간이 더욱 활기찬 문학의 장으로 거듭난 시간이었으며 교류를 통해 문학시설들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신청기간	2025. 7. 15.(화) ~ 7. 24.(목) 15:00까지
추진목적	· 국민참여형 문학행사인 <문학주간>과 연계하여 문학인과 향유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전국 문학시설을 기반으로 소통 확대 ·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시설과 작가들이 직접 기획, 제작,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 활성화와 문학시설 활력 증진을 도모
신청대상	·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문학시설 및 작가 · 2개 이상 문학시설로 구성된 팀 (*3개 이상 협업 권장)
지원사항	· 10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예정 · 팀별 최대 2,000,000원 지원(원천세 일괄 공제 후 지급 예정) · 문학주간 전국 홍보 시 프로그램 동시 홍보 · 선정 시 상주작가 지원사업 전체 평가 가점 반영
신청내용	· 2개 이상의 시설과 상주작가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학주간 기간 내에 1회 이상 프로그램 진행 (*문학주간 기간 : 9.13~9.19) ·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별개로, 문학주간 주제 '도움-닿기'와 연계한 특별프로그램 구성 · 더 많은 주민들과 독자들이 문학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참여/체험 위주의 특별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역 및 시설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상주작가 관심사를 접목시킨 문학 프로그램 등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성 있는 기획안 우대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중요	· 반드시 문학주간 주제인 '도움-닿기'와 연결되는 문학 프로그램이어야 함 · 2개 이상 시설 협력 필수, 3개 이상 팀 구성 시 가점 부여 · 기존 상주작가 운영 프로그램과 별도의 내용으로 신규 기획 필수 (*기존 참여자 외에도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프로그램명	팀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이웃 닿기 : 소설낭독극장	이웃사촌 도서관	김홍(소설가) 조우리(소설가) 김보정(배우) 이상운(배우)	9/13(토) 10:00	서울특별시 중랑구립중화문학도서관	30
			9/13(토) 14:00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둔촌도서관	30
어린이 문학캠프	책둠벙 문학특공대	김문주(동화작가) 도희주(동화작가) 박형섭(동화작가) 채수옥(시인)	9/13(토) 14:00	경남 고성군 책둠벙도서관	33
문학으로 귀를 열다		박형섭(동화작가)	9/14(일) 14:00		12
서로함께	아이들과 무사이	계선이(카프카의 밤 대표) 김영수(책과아이들 대표) 최종규(작가)	9/13(토) 17:00	부산광역시 카프카의 밤	9
			9/14(일) 10:00	부산광역시 책과아이들	
시와 함께 (영화 시쓰기)		송인재(소설가) 윤보성(시인) 최용석(문화예술교육사)	9/14(일) 10:00	부산광역시 무사이 책방 무사이 극장	8
광복 80주년, 시를 싣고 마음에 닿다	광복 80	박정은(여행작가) 정란희(동화작가) 허인영(강북청소년문화도서관) 황선희(노작홍사용문학관)	9/14(일) 10:30	경기 화성시 노작홍사용문학관	33
작가들이 사는 <우리 동네 문학마을>	H.B.D.(Happy Book Day / H 효성, B 부평, D 다누리)	강원임(작가) 신지명(작가) 오시은(작가)	9/14(일) 14:0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87
두근두근 시 창작 주머니	구름판	김은지(시인) 정재율(시인) 황성희(시인)	9/16(화) 19: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답십리 도서관	13
도약 = 방향(d) x 힘(f) x 공감(e)⁴ x 관계(r)⁴	도약 = 방향(d) x 힘(f) x 공감(e)⁴ x 관계(r)⁴	이미라(청학서림 대표) 채도운(보틀북스 대표) 박지혜(에세이스트) 장기웅(작가)	9/17(수) 10:00	경남 밀양시 청학서림	26
			9/17(수) 19:00	경남 진주시 보틀북스	
시끌시끌(詩글詩글) 문학 피크닉	시끌시끌(詩글詩글) 패밀리	성주희(동화작가) 신은숙(그림책작가) 황성희(시인)	9/17(수) 14:00	대구광역시 구수산도서관 뒷마당	22
Point Nemo 라디오 공개 방송	숲속의 가온	김유담(소설가) 서윤빈(소설가) 쓰다(싱어송라이터)	9/19(금) 19:00	서울특별시 가온도서관 3층 가온마루	19
문학으로 도움닫기, 마음으로 도움-닿기 북콘서트	문학과 열림의 교차로	정유진(소설가) 홍명진(소설가) 김지연(연주자) 정은아(연주자) 사회: 여소연(연주자)	9/19(금) 19:00	인천광역시 검단복지회관 공연장	116
도서관방탈출		송성진(석남도서관) 최다정(검단도서관)	9/13-9/18 (월요일 휴관, 5일간)	인천광역시 검단도서관, 석남도서관	42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이웃 닿기 : 소설낭독극장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일시	2025. 9. 13.(토) 10:00, 14:00
장소	중랑구립중화문학도서관, 강동구립둔촌도서관 (서울)
참여자	이웃사촌 도서관 I 전수지(사서), 최혜진(사서), 김홍(소설가), 조우리(소설가), 김보정(배우), 이상운(배우)
기획의도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지역 강동구와 중랑구는 서로의 생활 권역이 겹치는 이웃 동네이다. 중랑구의 주민들이 강동구 암사유적지와 올림픽공원으로 나들이를 오기도 하고, 강동구의 주민들이 중랑구의 중랑천 장미축제를 즐기고 중랑캠핑숲을 찾는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지역에 위치한 두 도서관(강동구립둔촌도서관, 중랑구립중화문학도서관)이 '이웃사촌 도서관'이 되어 보다 가깝게 닿아 보려고 한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이웃사촌 도서관'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웃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독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프로그램 내용	'이웃사촌 도서관' 교류의 첫 번째 행사로 2025년 문학주간의 주제인 '도움-닿기'에서 착안한 [이웃-닿기 : 소설낭독극장]은 강동구립둔촌도서관의 상주작가인 조우리 소설가와 중화문학도서관의 상주작가인 김홍 소설가의 작품 중 '도움'과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소설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9월 한 달간 두 도서관의 사서가 '도움-닿기'를 주제로 큐레이션을 교류하였다. 문학주간 중 9월 13일 오전과 오후에 각 도서관에서 한 번씩 진행된 소설 낭독 공연과 북 콘서트는 이웃, 도움,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상주작가의 소설을 전문 배우가 낭독하였으며, 선착순 30명의 신청자에게는 낭독 작품이 수록된 책을 증정하였다.
관객 수	60명 (공연 각 회차당 30명씩 2회)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어린이 문학캠프 · 문학으로 귀를 열다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 강연형
일시	2025. 9. 13.(토) ~ 2025. 9. 14.(일) 14:00
장소	책둠벙도서관 (경남 고성)
참여자	책둠벙 문학특공대 I 김문주(동화작가), 도희주(동화작가), 박형섭(동화작가), 채수옥(시인)
기획의도	경남 고성군은 창원, 진주, 사천, 통영 등 4개 시로 둘러싸였으나 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없는 문화 소외지역이다. 고성군은 2021년 군을 아동문학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예산을 확보, 5년여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오는 9월 군립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지만 아직 프로그램 등은 진행할 여력이 없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명의 작가는 서울(기쁨이 자라는 작은도서관)과 창원(경남문학관, 김달진문학관, 이원수문학관)에서 활동 중이지만 고성에서 문학 강연을 한 경험이 있어 고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며, 문학의 불모지인 고성군에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학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문학 저변 확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프로그램 내용	**1. 어린이 문학캠프** - 어린이들이 팀을 이루어 4명의 작가와 함께 주어진 문제를 풀고 게임을 통해 작가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책 내용과 집필 과정을 자세히 들으며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한다. **2. 문학으로 귀를 열다** - 시대별 베스트셀러의 탄생 과정, 도서관-출판사-서점 등 책 생태계 설명, 전국의 책문화공간 소개 등 생활 속에서 문학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박형섭 작가와 함께 알아본다.
관객 수	33명 · 12명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서로함께 · 시와 함께(영화 시 쓰기)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시	2025. 9. 13.(토) 17:00, 10:00 2025. 9. 14.(일) 10:00
장소	카프카의 밤, 책과아이들, 무사이 책방/무사이 극장 (부산)
참여자	아이들과 무사이	계선이(카프카의 밤 대표) 김영수(책과아이들 대표), 최종규(책과아이들/작가), 최용석(무사이프렌즈/문화예술교육사), 송인재(무사이프렌즈)
기획의도	**서로함께** 작은마을 같은 작은책집에서, 서로 즐겁게 말을 나누며 이야기와 생각을 심도록 찬찬히 돌아보는 동안, 삶을 우리 손빛으로 담는다. **시와 함께** 영화 시 쓰기를 통해 다른 이와 감상을 나눈 후 나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느낌을 나의 글로 오랫동안 간직한다.
프로그램 내용	**서로함께** 카프카의 밤과 책과아이들이 함께하는 '말닿기 마음닿기'. 작은 책방에서 모여 우리말로 시를 쓰며, 낱말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을 나누고 오늘 쓴 시를 직접 꾸며 전시합니다. 말이 닿고, 마음이 닿는 시간을 즐겨봅니다. **시와 함께** 시나 책,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한 편을 함께 감상한 후 다른 이와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봅니다. 영화를 통해 떠오른 시상으로 시를 쓰고 공유해보며, 시적 영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봅니다.
관객 수	9명 · 8명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광복 80주년, 시를 싣고 마음에 닿다 —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로 나라를 지킨 문화 독립운동가들과의 만남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참여형
일시	2025. 9. 14.(일) 10:30
장소	노작홍사용문학관 (경기 화성)
참여자	광복 80	박정석(사서), 전성동(사서), 허인영(사서), 황선희(노작홍사용문학관), 박정은(작가), 정란희(작가)
기획의도	K-Culture가 세계의 주류로 떠오르는 요즘, 우리의 도약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태동한 한국문학은 친일로 점철되기도 했으나 시와 소설, 연극과 영화, 민요 등 조선의 문화와 예술로 저항한 '문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우리의 말과 글로 나라를 지키려 한 '문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문학이 도약할 수 있었음을 각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손을 내민다. 일제에 당당히 맞선 노작 홍사용과 만해 한용운의 생애를 살펴보고 시를 읽으며 그들의 마음에 닿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용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의 참여자들과 노작홍사용문학관 참여자들이 만나 홍사용과 한용운의 생애를 살펴보고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강의실로 이동해 빈 종이에 '오늘'의 우리가 '과거'의 시인들에게 드리는 헌사의 글을 써 공유하고, 문학과 연극으로 조국 사랑을 실천한 홍사용 선생의 전시관을 돌아본 후 홍사용 시인의 묘소가 있는 반석산에 올라 참배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헌정한다.
관객 수	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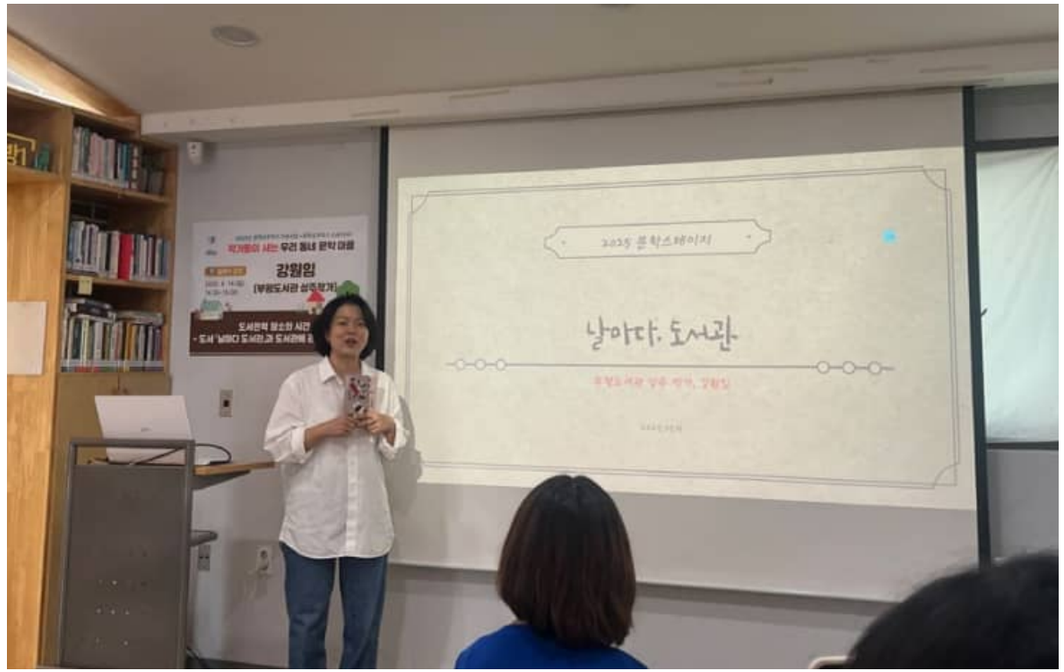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작가들이 사는 <우리 동네 문학마을>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참여형
일시	2025. 9. 14.(일) 14:00
장소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청소년문학공간 다누리 (인천)
참여자	H.B.D.(Happy Book Day / H 효성, B 부평, D 다누리) I 강원임(작가), 신지명(작가), 오시은(작가)
기획의도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를 작은 문학마을로 설정하고, 마을에 사는 세 작가의 공간에 놀러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꾸며 본다.
프로그램 내용	**체험 프로그램** 1. 신지명 작가의 '카페 달고나' ·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음료 (음료 도안 컬러링 + 상상력 스토리텔링 활동) · 포춘쿠키로 만나는 작가의 문장 2. 강원임 작가의 '더 라이브러리' · 문장 필사 책갈피 (만들기) · '도서관' 관련 도서 큐레이션 전시 3. 오시은 작가의 '동백 정원' · 이토록 소중한 동백꽃 키링 (만들기) ·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종이접기) **릴레이 작가 강연** 1.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을 위해' (신지명 작가) · 동화책 『오, 나의 달고나』와 노키즈존 이야기 2. '도서관적 장소와 시간' (강원임 작가) · 도서 『날마다, 도서관』과 도서관에 관한 책과 사유 3. '동백이 소곤소곤 - 제주 4.3' (오시은 작가) · 그림책 『곤을동이 있어요』와 4.3 이야기
관객 수	87명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두근두근’ 시 창작 주머니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시	2025. 9. 16.(화) 19:00
장소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서울)
참여자	구름판	문여민애(사서), 배진우(사서), 임인자(사서), 김은지(시인), 정재율(시인), 황성희(시인)
기획의도	누가 나를 시 속으로 밀어 올려준다면 기억의 구름판을 힘껏 밟고 당신들 사이를 떠다닐 수 있겠습니다. 세 명의 시인이 오늘의 ‘시 주머니’를 함께 열어 볼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내용	**1. 체육복 입기** - 시로 쓰고 싶은 대상을 미리 준비해 옵니다. (사진, 옷, 응원 봉, 작은 돌, 과일, 일기, 못 보낸 편지, 아끼는 단어 등) **2. 준비운동 (시의 소스 나누기)** - 가져온 시 주머니에서 준비물을 소개하고, 준비물에 얽힌 이야기를 나눕니다. **3. 발판 구르기 & 뛰어오르기 (시 비법 공유하기)** - 김은지, 정재율, 황성희 시인이 준비해 온 시 창작에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공유하고, 정신의 유연함과 관련된 창작 자세 및 비법, 창작 과정을 공유합니다. **4. 머무르기 (집중과 응원의 순간 : 정신의 유연성으로 온몸 사용하기)** - 시인이 제공해 준 구름판을 밟고 자신의 에피소드에서 시적 부분을 발견합니다. 발견한 시적 순간에 머무르며 그동안 만들어놓은 시적인 근육을 사용해 머물러 봅니다. **5. 생활로의 착지 (준비된 뜀틀 넘고, 다음 클래스를 기약하기)** - 오늘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처음과 달라진 나에 대해 말해 봅니다. 집으로 가기 전, 마련된 뜀틀을 한 번씩 넘어보고 시의 허공을 거쳐 자신의 현실로 멋지게 착지해 봅니다.
관객 수	13명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도약 = 방향(d) x 힘(f) x 공감(e)⁴ x 관계(r)⁴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시	2025. 9. 17.(수) 10:00, 19:00
장소	청학서림, 보틀북스 (경남 밀양, 진주)
참여자	도약 = 방향(d) x 힘(f) x 공감(e)⁴ x 관계(r)⁴ I 이미라(청학서림 대표), 채도운(보틀북스 대표), 박지혜(에세이스트), 장기웅(작가)
기획의도	도약은 이기적일 때보다 이타적일 때 더 힘을 얻는다. 타인의 삶을 감각하고 지워진 존재를 비추는 일에서 우리는 방향을 잡고 출발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도약을 위한 도식에서 방향, 힘, 공감, 그리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학 활동, 환경 실천, 인문적 대화를 엮었다. 비건 작가와의 생태적 체험, 그 체험이 바탕이 된 글짓기, 차와 곁들이는 글쓰기 테라피 등 참가자들은 문학과 삶이 만나는 접점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은 공간이 가진 지역성, 그리고 상주작가 개인의 전문성과 삶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진주에서는 일상 속 비건 실천과 생태적 감수성을 삶의 기반으로 삼아온 상주작가 '초식마녀'가 환경과 연결된 감각적 체험과 비건 공예 활동을 이끕니다. 밀양에서는 티테라피 전공자이자 섬세한 내면 성찰을 글쓰기로 풀어내는 작가, '오서'가 상주하며, 다도라는 느린 행위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글로써 자신을 돌보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이처럼 각 공간의 성격과 작가의 고유한 경험이 어우러져,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움이 닿는 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관객 수	26명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끌시끌(詩글詩글) 문학 피크닉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시	2025. 9. 17.(수) 14:00
장소	구수산도서관 뒷마당 (대구)
참여자	시끌시끌(詩글詩글) 패밀리	박영미(사서), 배진우(사서), 서효봉(사서), 성주희(동화작가), 신은숙(그림책작가), 황성희(시인)
기획의도	'시끌시끌(詩글詩글) 문학 피크닉'은 2025년 문학주간의 주제인 「도움—닿기」를 느슨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즐기는 문학 피크닉 프로그램이다. '시끌시끌'은 문학의 즐거움을 뜻하면서도, 사람들이 만나 수다를 나누듯 문학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낯선 이의 글이 나에게 스며드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용	**1. 문학 피크닉 감성 UP** 피크닉 텐트 안에서 옛날 간식과 함께 캠핑 분위기를 즐긴다. **2. 3인3색 상주작가와의 만남** 구수산도서관, 대구문학관, 서부도서관 상주작가가 텐트를 방문해 각자 색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림책 작가, 시인, 동화 작가가 준비한 이벤트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상주작가와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이다. **3. 피크닉 미션 수행하기 / 즉석 사진으로 '오늘의 나' 남기기** 각자 텐트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을 정하는 과정을 사진에 담고 문학실에서 진행하는 필사 이벤트와 상주작가와의 만남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사진 출력소에서 바로 출력한다. **4. 미니 전시회 '오나전(오늘의 나를 전시)'** 행사 마지막에는 참여자가 찍은 사진을 각 텐트 입구에 전시. 각자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면서 작은 '도움—닿기'의 순간을 만든다. **5. 자유 피크닉 타임**
관객 수	22명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Point Nemo 라디오 공개 방송 '거기 누구 없나요?'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무대형
일시	2025. 9. 19.(금) 19:00
장소	가온도서관 3층 가온마루 (서울)
참여자	숲속의 가온	송은정(사서), 유동석(사서), 윤정섭(소설가), 김유담(소설가), 서윤빈(소설가), 쓰다(싱어송라이터)
기획의도	본 기획은 포인트 니모라는 가장 고립된 장소에서 두렵고 막막한 마음을 느끼는 두 소설가가 라디오 프로그램 공개 방송이라는 형식을 빌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음악과 문학을 통해 고립이 아닌 소통과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가온도서관 3층의 가온마루라는 아름답고 아늑한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 및 독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밴드를 초청해 문학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적 시너지를 추구하고자 한다. 한편, 노원구의 지역 서점인 더숲과의 협력을 통해 서점과 도서관이 함께 독자 저변을 넓히고 문학 향유의 기쁨을 널리 전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용	**1부 : Hello? 여기는 포인트 니모입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두 소설가가 서로의 책에서 한 부분을 뽑아 낭독한다. 그 부분에서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낭독자가 설명하고, 상대 작가는 소설을 쓰던 당시 그 내용을 쓰게 된 마음을 나눈다. **2부 : 기다리던 신청곡 시간입니다!** 1부에서의 사연을 듣고 밴드는 연주곡 리스트를 정해 들려준다. 밴드는 곡을 연주하고, 왜 그 곡을 선택했는지 그 의미를 공유한다. 소설가들은 연주된 음악과 관련된 생각을 나누고 음악을 들으며 떠오른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3부 : 해적이 스테이션을 점거했습니다!** 마이크는 관객들에게 넘겨진다. 관객들은 밴드와 작가에게 자유롭게 질문한다.
관객 수	19명





4.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4-2.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학으로 도움닫기, 마음으로 도움—닿기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무대형
일시	(북콘서트) 2025. 9. 19.(금) 19:00 (방탈출) 2025. 9. 13.(토) ~ 9. 18.(목)
장소	검단복지회관 공연장, 검단도서관, 석남도서관 (인천)
참여자	문학과 열림의 교차로	송성진(사서), 최다정(사서), 정유진(작가), 홍명진(작가), 여소연(북콘서트 사회자, 연주자), 김지연(연주자), 정은아(연주자)
기획의도	2025년 문학주간의 주제 '도움-닿기'는 문학을 통해 서로의 삶에 닿는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도서관이라는 공공 공간에서 지역 간, 세대 간 연결을 실현하고자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의 주요 이용층인 아동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러 도서관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는 콘텐츠와 문학을 결합함으로써, 다시금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학을 보다 능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인천 서구의 구도심에 위치한 석남도서관과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검단도서관은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을 지닌 도서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도서관이 협력하여 인천의 신·구도심을 문학으로 잇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지역 간 문화적 균형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	**북콘서트** 상주작가들이 직접 추천하는 아동·청소년 도서를 만나보고, 가야금 협주를 통해 책과 음악이 하나되는 특별한 시간. **문학기반 방탈출** 참여자가 탐정이 되어 도서관 내부에서 작품 속 인물을 찾아내는 미션 수행.
관객 수	116명(북콘서트) · 42명(문학기반 방탈출)





5. 전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학주간2025×현대어린이책미술관 전시 《아자! 아자!》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소풍
프로그램 유형	전시 및 교육
일시	(전시) 2025. 9. 13.(토) ~ 9. 19.(금) 7일간 (교육) 2025. 9. 13.(토) ~ 9. 14.(일) 11:00, 12:00 (총 4회)
장소	아르코미술관 1층 공간열림
참여기관 소개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문화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백화점그룹이 2015년에 설립한 문화 교육 공간입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국내 최초 '책'을 주제로 한 어린이미술관으로, 그림책 관련 전시, 테마 교육, 열린서재 등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 특별한 미술관입니다. ㅇ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현대백화점 판교점 5F ㅇ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전일과 당일 휴관)
프로그램 내용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는 문학주간2025 협력 전시로 《아자! 아자!》를 선보입니다. 문학주간2025의 주제인 '도움-닿기'와 연계된 이번 전시는 구름판을 딛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의 과정을 공감하고,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열린서재는 국내외 그림책 6천여 권을 '키워드'로 분류하는 새로운 시도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 미술관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 추가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자! 아자!》 전시는 열린서재의 86개의 키워드에서 출발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도움-닿기'가 되어 줄 이번 전시의 대표 키워드 5가지—'가족사랑'과 '도전', '모험', '용기', '응원&희망'—는 어린이들을 응원하며,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어 줍니다. 5가지 키워드를 잘 설명하는 그림책 100여 권과 대표 도서 5권의 작품 15여 점으로 구성된 《아자! 아자!》 전시는 작품과 연계된 상시 전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그림책 응원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림책 응원석〉은 그림책 속 주인공이 맞닥뜨린 도전과 어려움의 순간에 공감하며, 어린이들이 응원을 건네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활동지를 활용해 말과 행동, 표정, 태도 등 다양한 방식의 응원을 알아가며, 각자 자신만의 응원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자! 아자!》 전시를 통해 어린이 관람자가 자신을 응원하는 주변을 발견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관객 수	738명





6. 야외 협력 기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학광장] 문장의소리 공개방송 특집 보이는 라디오 '문학까지 닿은 마음'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시	2025. 9. 13.(토) 15:00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1층 대학로 공작소·씨어터 광장
참여자	윤성희(소설가), 박상영(소설가), 유계영(시인), 우다영(소설가), 문은강(소설가)
참여자 소개	**윤성희(소설가)**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레고로 만든 집」이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서른세 개의 단추가 달린 코트」가 2001년 「계단」이 연이어 『현장 비평가가 뽑은 올해의 좋은 소설 2001』에 실렸으며, 「모자」는 『2001년 현대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그림자들」은 『2001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수록되었다. 「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부메랑」으로 2011년 11회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 이수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국일보문학상, 김승옥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레고로 만든 집』, 『거기, 당신?』, 『감기』, 『웃는 동안』, 『베개를 베다』, 『날마다 만우절』 등이 있고, 중편소설 『첫 문장』, 장편소설 『구경꾼들』, 『상냥한 사람』 등이 있다. **박상영(소설가)** 2016년 문학동네신인상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믿음에 대하여』, 장편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 에세이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등이 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2023년 국제 더블린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젊은작가상 대상, 허균문학작가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연출: 유계영(시인)** 2010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온갖 것들의 낮』, 『이제는 순수를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 산문집으로 『꼭대기의 수줍음』 등이 있다. **DJ: 우다영(소설가)** 2014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밤의 징조와 연인들』, 『앨리스 앨리스 하고 부르면』, 『그러나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과 중편소설 『북해에서』 등이 있다. **구성작가: 문은강(소설가)** 20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밸러스트』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춤추는 고복희와 원더랜드』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문학적 생애의 시작을 응원하고, 때로는 길을 잃은 순간들을 함께하며 성장하는 또 하나의 사랑법을 통해 문학에서의 배움과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
관객 수	29명





6. 야외 협력 기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예술후원홍보센터] 2025 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 in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프로그램 유형	공연형
일시	2025. 9. 13.(토) 17:00
장소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참여자	안영수(랑컴퍼니 대표), 클라운진(벌룬퍼포머), 동백당:빵집의 사람들(연극),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뮤지컬), 송나영, 안상은, 이종석, 김찬종(싱어롱 콘서트)
프로그램 내용	9월 13일(토),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메카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세 가지 이야기! 마음을 울리고, 노래하고, 함께 웃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문화예술 기부 캠페인과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 공연 ①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1947년 군산, 작은 빵집이 지켜낸 따뜻한 연대의 이야기.(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공연 ②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칠곡 할머니들이 한글을 깨치고 삶을 꽃피운 감동의 무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공연 ③ 뮤지컬 <싱어롱 콘서트> 배우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대학로가 떼창으로 물듭니다.
관객 수	현장방문객 1,215명 무료관객 3,500명 체험부스 1,110명





6. 야외 협력 기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완전존중 캠페인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시	2025. 9. 13.(토) ~ 9. 14.(일) 10:00~19:00
장소	마로니에 공원 야외 및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내용	문학주간2025와 연계하여 문학 분야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추진 **저작권 캠페인 홍보 부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간단 OX 퀴즈 및 룰렛 이벤트 등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캠페인 진행 **저작권 상담존** “내 작품의 저작권, 과연 안전할까?” “복잡한 출판 계약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AI 시대, 창작의 경계가 헷갈려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하는 문학 창작 특화 1:1 심층상담 진행
관객 수	1,461명





6. 야외 협력 기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인문정신확산팀x한국정신문화재단] 21세기 인문가치포럼 in 서울 [인문정신확산팀x청년재단] 청년인문교실 '고립은둔 청년의 방'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전시·체험형
일시	(강연) 2025. 9. 13.(토) 15:00 (체험) 2025. 9. 13.(토) ~ 9. 14.(일) 10:00~18:00
장소	마로니에 공원 야외, 야외무대
참여자	김석훈(배우/환경 커뮤니케이터), 서은국(교수), 이낙준(작가/의사) 엄지인(사회)
프로그램 내용	**21세기 인문가치포럼 in 서울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여정** 강연과 체험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행복의 조건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 강연에서는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 환경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배우 김석훈, 의사이자 작가인 이낙준이 각자의 길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행복의 본질을 각기 다른 경험으로 전합니다. 전시·체험 부스에서는 색채 심리 카드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민 엽서를 통해 마음을 비워내며, 나만의 행복 키링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행복으로 향하는 작은 여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문교실 '고립은둔 청년의 방'**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 형성을 위한 전시·체험형 프로그램. ① 기획전시: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및 지원기관 소개 ② 북 큐레이션: 전시에서 소개된 관련 도서 큐레이션 ③ OX룰렛: '고립은둔'과 관련된 가벼운 퀴즈 풀이 체험 ④ 고립은둔 청년의 방: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
관객 수	767명





6. 야외 협력 기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5 문학나눔 문학에서 또 다른 나를 찾는 여정
프로그램 유형	전시·체험형, 대담형
일시	(체험) 2025. 9. 13.(토) ~ 9. 19.(금) 10:00~18:00 (북콘서트) 2025. 9. 14.(일) 13:00 / 15:00
장소	마로니에 공원 야외, 야외무대
참여자	김언(시인), 송경동(시인), 양안다(시인), 윤고은(소설가), 신주희(소설가), 김지연(소설가), 이경재(평론가)
프로그램 내용	**작가와의 만남① 시선의 교차** 현실과 사회의 모순에 맞서 시의 목소리를 내온 송경동, 정제된 문장과 깊은 사유로 시의 결을 확장해온 김언, 젊고 솔직한 감각으로 시대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양안다. 세 명의 시인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쌓아온 시적 세계가 교차하는 시간. **작가와의 만남② 소설의 윤곽** 소설적 상상으로 현실의 단면을 비추는 윤고은, 경계의 사유 속에서 불완전함을 응시하는 신주희, 일상의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해 드러내는 김지연. 이경재 평론가와 함께 세 명의 소설가가 드러내는 마음의 형상을 만나봅니다. **문학나눔 홍보부스** - 문학나눔 사업 소개 및 선정도서 전시 - 이벤트 및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객 수	2,287명





7. 참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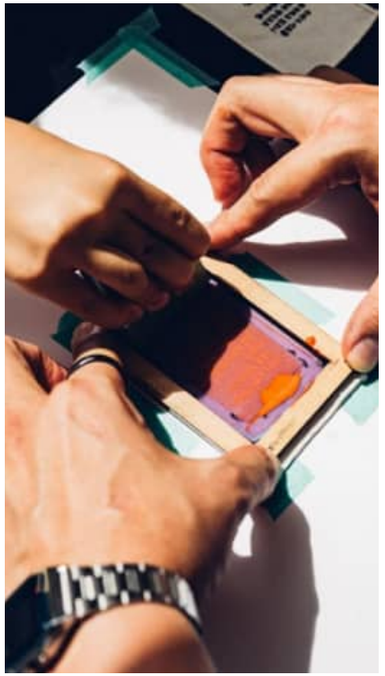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포켓 실크스크린 책갈피 & 스탬프 핀버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시	2025. 9. 13.(토) ~ 9. 19.(금) 12:00 ~ 18:30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프로그램 내용	**포켓 실크스크린 책갈피 만들기** 실크스크린을 통해 완성해보는 참여작가 문장 책갈피 **스탬프 핀버튼 만들기** 다양한 스탬프로 꾸며보는 나만의 핀버튼

프로그램명	10주년 기념 문장뽑기 & 야외 북 라운지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시	2025. 9. 13.(토) ~ 9. 19.(금) 11:00 ~ 19:00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프로그램 내용	**10주년 기념 문장뽑기** 나의 취향을 이어 뽑아보는 7색 문장카드 **야외 북 라운지** 마로니에 공원에 북 라운지를 조성하여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선별한 장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

참여 인원	총 3,186명











3

결과 및 제언

1. 만족도 조사 136

1-1. 개요
1-2. 내용
1-3. 응답자 특성
1-4. 만족도 조사

2. 평가 및 제언 149

2-1. 사업 평가
2-2. 기획위원 제언

3. 참여 관객 후기 156

1. 만족도 조사

1-1.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문학주간2025 축제 관람객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표본	471명
조사기간	2025.9.13.(토) ~ 2025.9.19.(금)

1-2. 내용

구분	내용
문학주간 정보 취득 및 방문 관련	· 사전 인지 여부 · 참여 횟수 · 정보 습득 경로 · 참여 계기 ·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 평가	· 행사 프로그램 운영 · 행사 홍보의 우수성 ·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 유사한 문학 축제와의 차별성 · 행사 기획의 매력 정도
프로그램 내용 평가	· 문학주간2025 행사 주제의 적절성 ·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의 적합성 ·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 · 각 프로그램의 주제 및 성격의 적합성
사업 평가	· 행사 취지에 맞는 운영 여부 · 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 영향 · 향후 행사 참여 의향
전체 만족도 평가	· 문학주간2025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기타	· 문학주간2025에 대해 좋았던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의견

1-3.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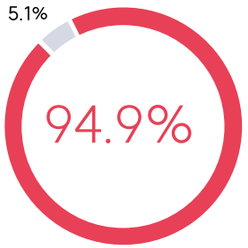
특 성		백분율(100%)	응답건 수(총471건)
성별	여성	78.77%	371
	남성	16.35%	77
	응답하고 싶지 않음	4.88%	23
연령대	10대	3.18%	15
	20대	33.12%	156
	30대	32.48%	153
	40대	20.38%	96
	50대 이상	10.83%	51
직업	직장인 및 자영업	29.94%	141
	문화예술계종사자	22.72%	107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59%	97
	전문직	4.46%	21
	주부	4.67%	22
	초중고생	2.97%	14
	무직	7.01%	33
	기타	7.64%	36
거주 지역	서울	63.48%	299
	경기	23.35%	110
	인천	4.88%	23
	강원	0.64%	3
	대전·충청	2.55%	12
	광주·전라	3.40%	16
	부산·울산·경상	1.70%	8
	제주	0%	0
	해외	0%	0

1. 만족도 조사

1-4. 만족도조사

사전 인지 여부

Q1. 문학주간2025 행사를 알고 계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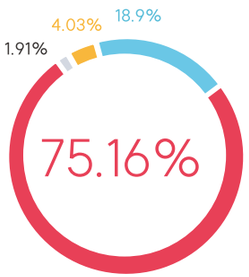


구분	백분율	계
사전 정보를 통해 알고 방문	94.90%	447
모르고 우연히 방문	5.10%	24

문학주간2025 행사에 대한 사전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N=471) 중 94.90%가 사전 정보를 통해 알고 방문한 것으로 답해
2024년 대비 사전 인지를 통한 참여도가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참여 횟수

Q2. 2016년부터 진행된 지난 문학주간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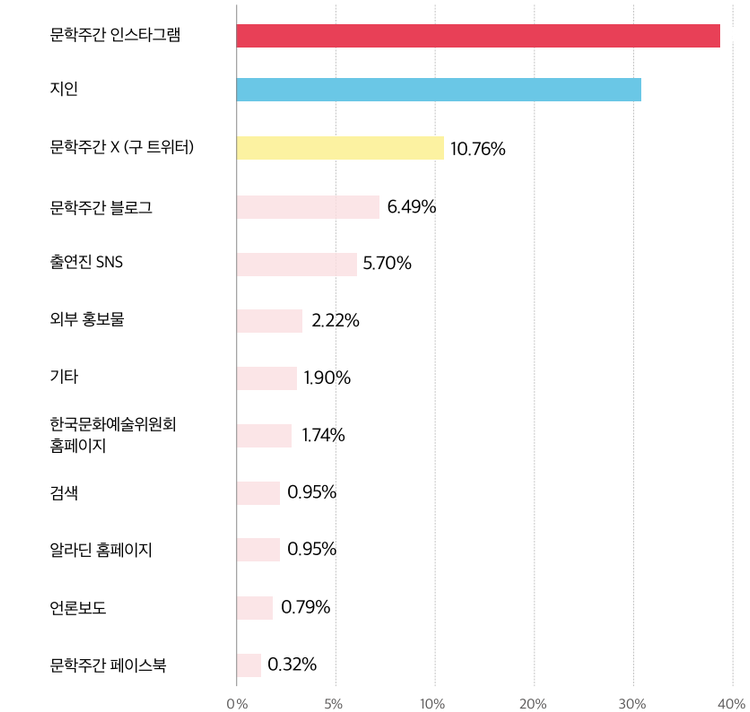


구분	백분율	계
처음	75.16%	354
1-2회	18.90%	89
3-4회	4.03%	19
5회 이상	1.91%	9

2016년부터 진행된 문학주간 행사 참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N=471) 중 75.16%가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2회 참여 응답자가 18.90%, 3-4회 참여 응답자가 4.03% 순으로 나타남.

정보 습득 경로

Q3. 문학주간2025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는지요?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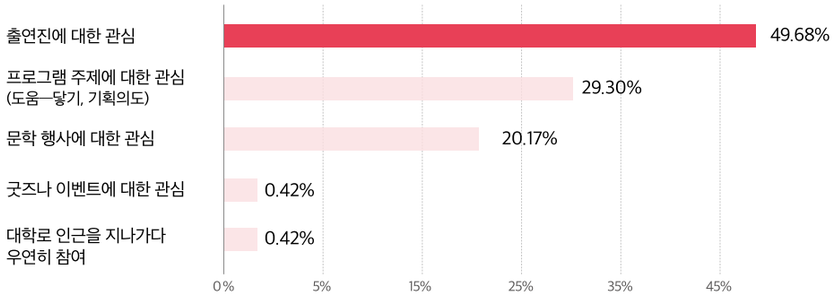
문학주간2025를 알게 된 주요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문학주간 인스타그램'을 통한 경로가 37.97%로 가장 높았고,
'지인'을 통한 경로가 30.2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025년 새로 시작한 **X(구 트위터)를 통한 정보 습득도 전체의 10.76%**를 차지해
운영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을 차지함.

1. 만족도 조사

1-4. 만족도조사

참여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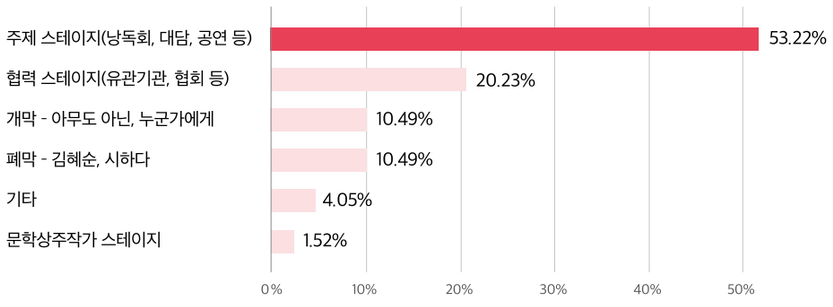
Q4. 문학주간2025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문학주간2025 참여 계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출연진에 대한 관심'이 49.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관심' 29.30%, '문학 행사에 대한 관심' 20.17% 순으로 나타남.

관심 프로그램

Q5. 문학주간2025 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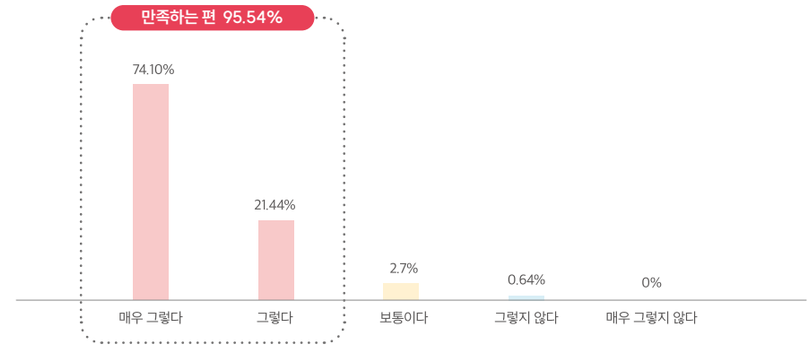
문학주간2025에 관심을 가지게 된 프로그램은
'주제 스테이지'가 53.22%**로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 스테이지가 20.23%, 개막과 폐막이 동일하게 10.49%의 비율로 응답함.

1-4. 만족도조사

세부 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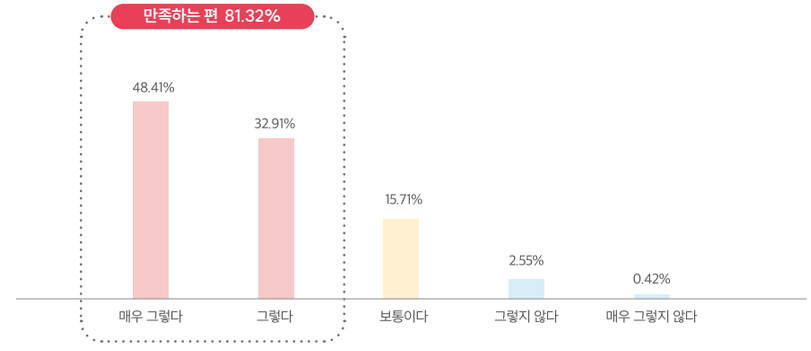
프로그램 운영 측면

Q6-1. 행사 진행 및 운영요원 등이 잘 운영되었다.



'행사 진행 및 운영요원 등이 잘 운영되었다'는 질문에 대해
'잘 되었다'는 응답이 95.5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잘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0.64%로 매우 낮게 나타남.

Q6-2. 행사의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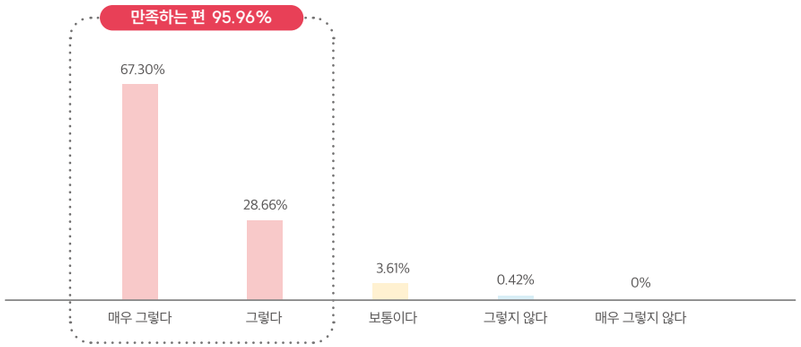
'행사의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는 질문에 대해
'잘 이루어졌다'가 81.32%로 나타났으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2.97%로 낮게 나타남.

1. 만족도 조사

1-4.
만족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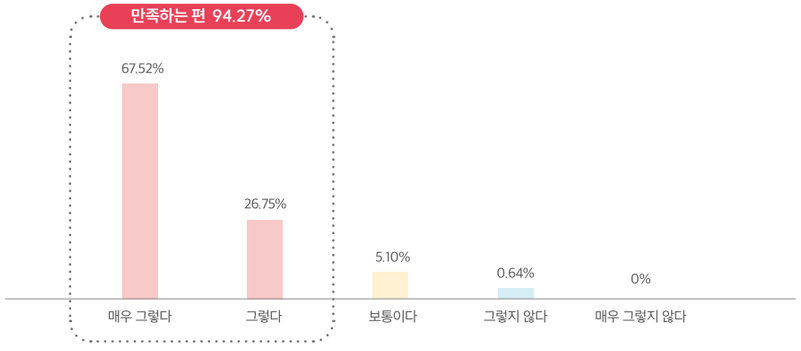
세부 항목별
프로그램 운영 측면

Q6-3.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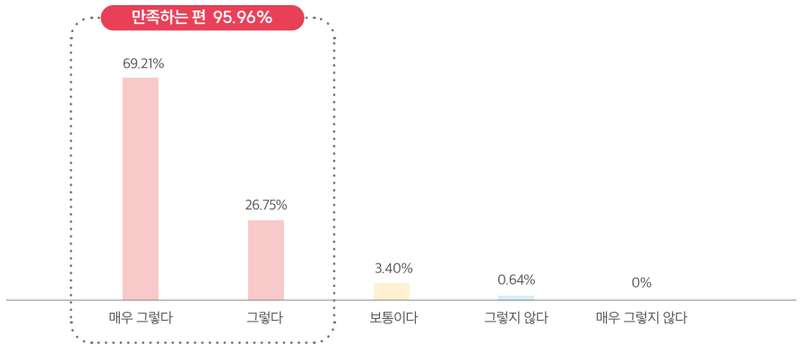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 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95.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0.42%로 매우 낮게 나타남.

Q6-4. 다른 행사와 구별되는 의미나 차별성이 있다.



'다른 행사와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이 94.2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별성이 없다'는 응답은 0.64%로 매우 낮게 나타남.

Q6-5. 행사 프로그램 기획이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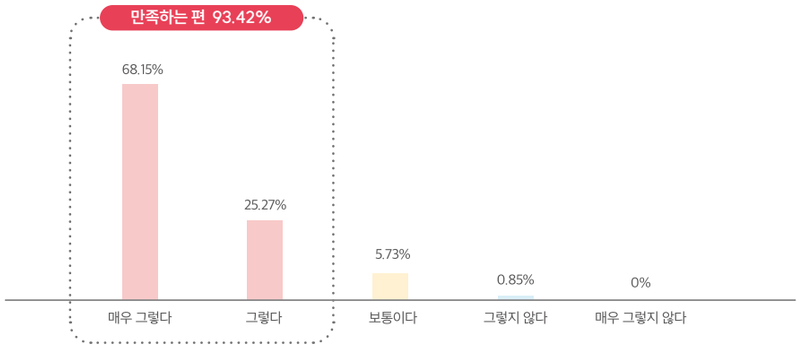
'행사 프로그램 기획이 매력적이다'는 질문에 대해
'매력적이다'는 응답이 95.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매력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0.64%로 매우 낮게 나타남.

1. 만족도 조사

1-4.
만족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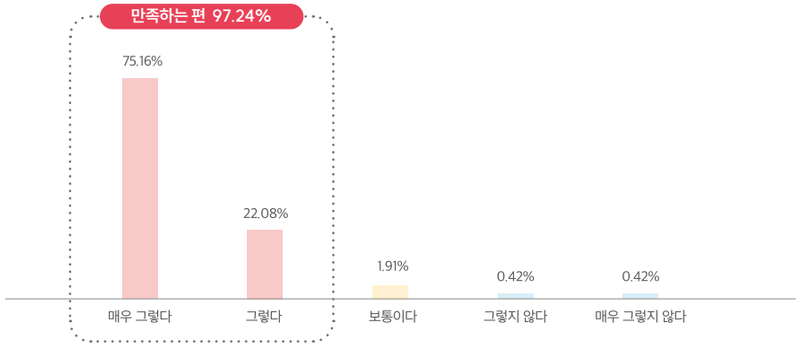
세부 항목별
프로그램 내용 측면

Q7-1. '도움—닿기'라는 행사 주제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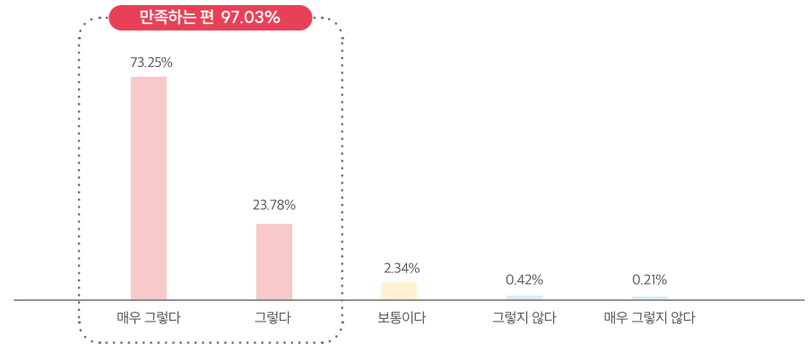
'도움—닿기'라는 행사 주제가 적절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93.42%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0.85%로 낮게 나타남.

Q7-2. 참여한 패널이 프로그램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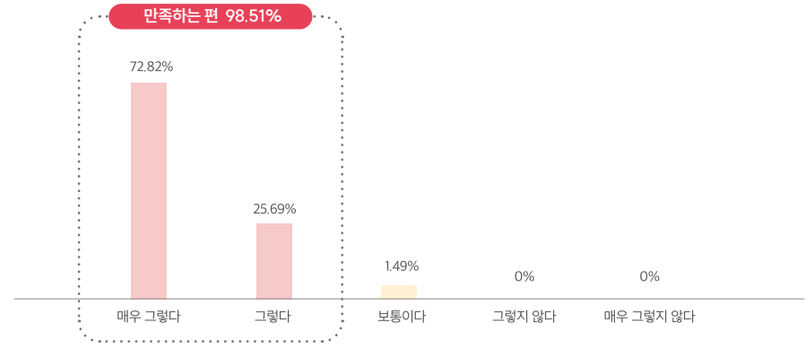
'참여한 패널이 프로그램에 적합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이 97.2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0.84%로 매우 낮게 나타남.

Q7-3. 프로그램 내용이 우수하다.



'프로그램 내용이 우수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우수하다'는 응답이 97.0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0.63%로 매우 낮게 나타남.

Q7-4.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제 및 성격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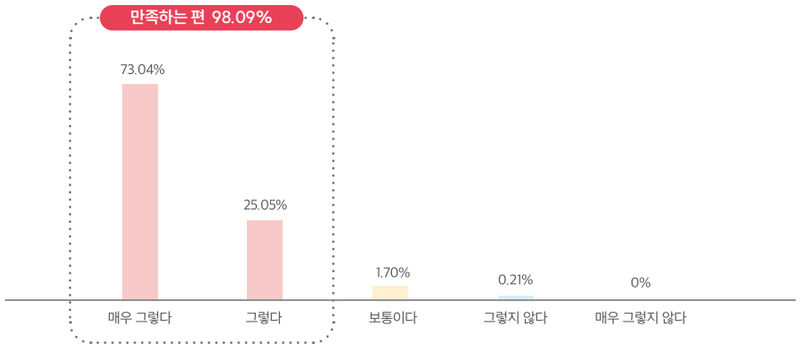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제 및 성격에 적합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이 98.5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0%로 부정 응답자 없음으로 나타남.

1. 만족도 조사

1-4. 만족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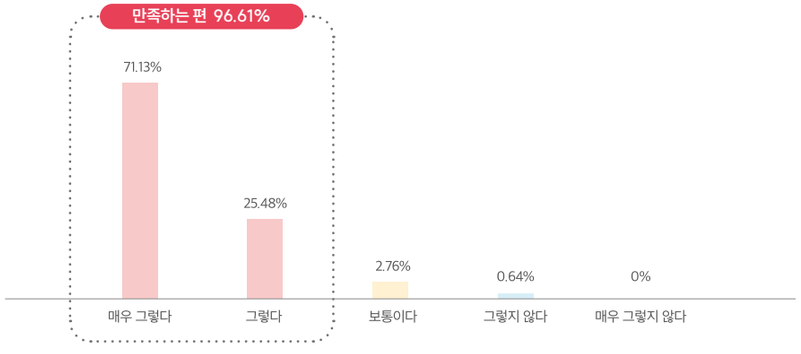
세부 항목별
사업에 대한 항목

Q8-1. 문학향유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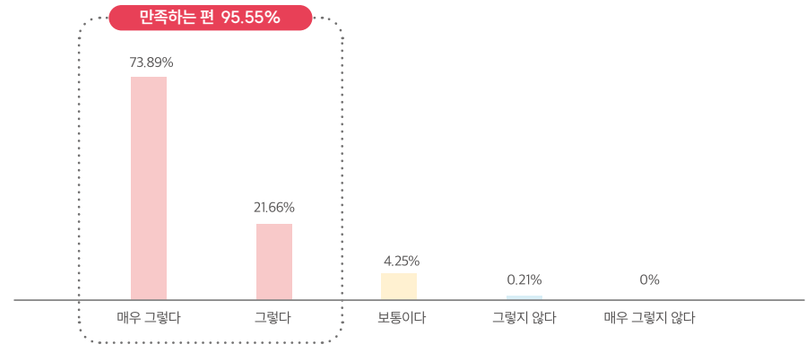
'문학향유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다'라는 질문에 대해
'잘 운영되었다'는 응답이 98.0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잘 운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0.21%로 매우 낮게 나타남.

Q8-2.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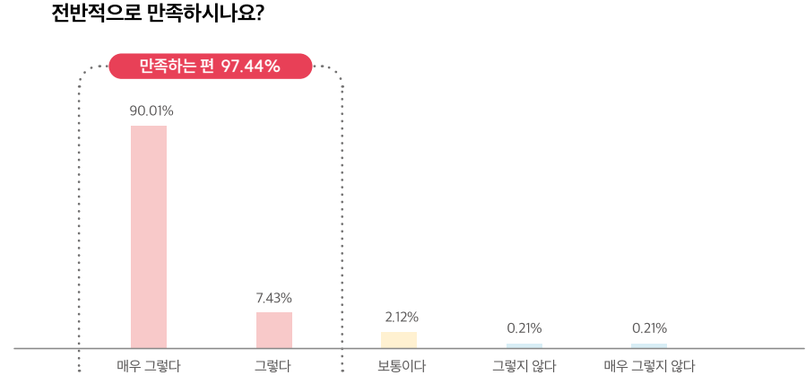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라는 질문에 대해
'높아졌다'는 응답이 96.6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높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0.64%로 매우 낮게 나타남.

Q8-3. 내년에도 문학주간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내년에도 문학주간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95.5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0.21%로 매우 낮게 나타남.

Q9. 앞서 평가하신 모든 항목을 종합해서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전체 평가 항목들을 종합하여 올해 진행된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97.4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42%로 매우 낮게 나타남.

1. 만족도 조사

1-4. 만족도조사

세부의견 및 건의사항

운영

- 비 오는 날씨에도 운영에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행요원분들 너무 좋아요.
- 주제 스테이지 70분은 너무 짧아요. 내년엔 길게 해주세요.
- 다 좋았지만 공간이 날씨에 비해 너무 추웠습니다.

내용

- 아동문학 관련 행사가 있어 좋았습니다.
- 내년에도 그림책 분야 또 해주세요.
-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획이 들어가서 좋습니다.
- 희곡을 듣는 시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좋은 공연 감사합니다.
- 작가님과 청중과의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대화시간이 강연 시간만큼 많다면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 이런 좋은 행사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문학과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행사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기획 감사합니다!
- 공연 연계 문학 행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 행사였습니다.
- 다양한 주제와 패널분들로 좋은 프로그램 구성하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더 다양한 작가분들, 창작가분들의 목소리 내지 몸짓을 함께 할 수 있는 섹션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홍보

- 도움—닿기 덕분에 시를 더 쓰고 싶어졌어요. 좋은 수업을 통해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 홍보를 잘해주셔서 사흘 동안 대학로에 왔습니다!
- 네이버 예약 특성상 프로그램 제목만 보고 예약하려니 출연진 정보를 알기 어려워 인스타그램과 몇 번 오가며 예약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제목이 꼭 직관적일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만, 정보를 예약 페이지 내에서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치열한 티켓팅
-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예약할 때부터 자세하게 공지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SNS 홍보에서 주제 텍스트가 잘 보이게 디자인되어서 너무 좋았고, 전체적인 구성도 잘 짜여져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2. 평가 및 제언

2-1. 사업 평가

•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홍보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2025 문학주간

2025년 문학주간은 탄탄한 프로그램 구성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홍보 시작 단계부터 높은 대중적 관심을 얻었으며, 프로그램 예매가 빠르게 마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초 주제의 신속한 확정과 적절한 시점의 키 비주얼 완성은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홍보 전략과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었으며, 참여 열기를 현장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 다양한 기관 협업과 체계적 운영으로 활기찬 현장 조성

다수의 협력 기관이 참여했음에도 안정적인 협업 구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장 운영 전반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특히 관람객들이 머무르며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야외 부스와 참여형 공간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0주년 기념 게시대, 북라운지,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의 상징적인 공간 구성은 문학주간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행사의 축제적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 다양한 장르 도입을 통한 프로그램의 실질적 확장

이번 문학주간은 아동문학을 비롯해 여러 장르를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을 실질적으로 넓혔으며, 문학주간이 가진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세대와 관심사가 다른 관람객까지 포용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다만, 아동문학 분야의 경우 가족 단위 참여가 편리한 주말을 중심으로 소규모 참여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할 전략적 필요와 함께 향후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높은 참여율 속 노쇼 문제, 참여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무료 행사의 특성상 노쇼(No-Show) 비율이 높게 나타나 운영 효율성과 좌석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드러났다. 향후 간단한 보증금 제도 도입, 대기자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 현실적인 참여 관리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면, 행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 및 제언

2-2. 기획의원 제언

김선영

'문학주간'에 출연자로만 참여하다 처음 기획위원에 합류해 '2025 문학주간'을 치렀고, 그간 내가 편히 즐긴 '일주일'에 참으로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 시간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무진의 열정과 경륜, 태인크리에이티브랩의 전문성과 섬세함, 기획위원들의 기량과 노련함이 합을 이뤄 '문학주간' 10주년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 덕분에 이른 봄에서 시작된 준비 기간부터 마지막 폐막식까지의 시간이 올해의 큰 보람으로 남게 되었다.

'2025 문학주간'은 문학의 자리가 좁아져간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문학의 힘은 세다는 것을 절감한 시간이기도 했다. 다른 분야와 협력하고 여러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문학에 있다는 것도 실감했다. 개막식에 올린 소설가 황정은,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배우 옥자연의 무대에서 문학의 위용을 목도하며 '2025 문학주간'의 문을 열었고, 시 낭독 자체만으로 강렬한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 김혜순과 후배 시인들이 폐막식 무대를 통해 보여주었다. 특히나 한국 여성 작가 최초의 책 『생명의 과실』의 출간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 최초 여성 근대 소설가 김명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한국문학의 계보를 되짚는 작업을 한 것이 큰 기쁨이었는데, 시인 박소란, 번역가 이유나, 배우이자 작가 김신록의 낭독 공연은 문학의 과거와 현재가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공명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예년에 비해 큰 호응을 얻은 이번 '2025 문학주간'은 최근 범람하는 여러 북페어 속에서 오로지 문학이 주인이 되는 자리를 마련한 귀한 행사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 퀴어 작가들의 목소리 등 문학 안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질병과 비인간, 경력 단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문학주간의 품을 넓혀준 기획이었다. 세계 속 한국문학의 강세 속에 토니 어워즈 수상작 <어쩌면 해피엔딩>의 극작가 박천휴를 발빠르게 섭외한 것도 빛나는 성취였다.

'2025 문학주간'은 삶 가까이에 문학을 두고, 문학이 닿을 수 있는 지점들을 마음껏 상상하고 펼쳐나간 시간이었다. 내년을 더 기대하게 된다는 독자들의 목소리가 큰 격려로 들렸다. '문학과 함께하는 일주일'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더 대단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을의 시작을 '2025 문학주간'과 함께한 덕분인지 추워지는 계절 속에서도 따뜻한 기억을 품으며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함께 행사를 준비한 선생님들과 참여한 관객들에게 많이 배웠고 문득문득 그리워진다. 깊이 감사드린다.

김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획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김선영, 소유정, 양근애, 예소연, 오세란 기획위원들 간 호흡이 척척 잘 맞았습니다. '도움-닿기'라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개별 프로그램 기획 및 일정 조정까지 막힘없이 자연스레 이루어졌습니다. 문학주간 10주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으면서 또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마련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채로운 개별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고, 장르 및 참여자 등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것은 올해 문학주간의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확인해주듯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독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독자와 함께 '도움-닿는' 관계를 맺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매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획을 이끌어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과 새로운 감각과 탄탄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준비부터 홍보, 전시 기획, 굿즈 제작, 현장 운영 등을 무리 없이 매끄럽게 이끌어주신 '태인크리에이티브랩' 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문학주간이 문학으로 삶을 끊임없이 사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2. 평가 및 제언

2-2. 기획의원 제언

소유정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문학주간 기획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작년의 노고를 알아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컸으나 내심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획회의를 앞두고 걱정이 불어나던 중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새삼스럽게 되새겼습니다. 문학주간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닌 여럿이 같이 만드는 행사라는 것을요.

2025 문학주간 기획을 함께 한 김선영, 김현, 양근애, 예소연, 오세란 위원님이 있어 초여름부터 부지런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게 등을 밀어주는 손들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문학주간을 위한 한 해를 보낸 문학지원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에 있어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태인크리에이티브랩에도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작가로 또 기획위원으로 함께한 올해 문학주간을 통해 저는 문학과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도 도움-닿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문학주간은 아동·청소년문학 프로그램 도입으로 맑은 얼굴들을 전보다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게 참 벅찼고, 의지가 되는 구름판을 딛고 선 느낌이었습니다.

올해 가을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보낸 일주일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관람객으로서는 일주일 내내 문학주간을 즐길 수 있어 좋았으나 기획자로서 행사 집중도는 다소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일정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주간의 가을은 여름이 지나야 온다는 걸 알고 있기에 저는 내년 여름부터 기대할 것입니다. 또 어떤 멋진 프로그램이 저를 마로니에공원으로 부를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양근애

2024년에 이어 2025년 문학주간의 기획을 맡게 된 건, 아무래도 기억과 망각이 서로 엉겨 막춤을 춘 탓이다. 힘들었던 점을 오래 담아두고 내 손을 떠난 성취를 망각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좋았던 기억이 불쑥 나타나고, 부끄러워 얼굴에 경련이 일었던 순간을 망각했으니 말이다. 여튼 그 덕에 '도움-닿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올해도 좋았다!

두 번째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문학이라는 활자화된 세계가 실은 삶이 지속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이었다. 글은 언제나 사후적이지만 글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너무나 생생한 현재이자 현실이라는 것. 올해 문학주간은 삶의 현장에 오롯이 존재했던 개별적이고 유한한 경험이 어떻게 문학이라는 형식을 만나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속에는 빛나는 것들 대신, 빛남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머뭇거림과 실패와 후회와 지켜지지 않을 다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도움-닿기'라는 주제가 더욱 애틋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올해 함께 한 기획위원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다. 좋은 작가들을 소개 받았고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했으며, 더 나은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덕분에 독자나 관객의 반응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올해 규모도 커지고 행사 날짜도 길어져서 에너지는 더 많이 들었지만, 문예위 담당자분들과 태인 관계자들,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에 무사히 문학주간을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다른 기획위원이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어서 뿌듯했고 여러 장르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하게 여겨졌다. 내년에는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지, 10회를 지나 11회에 다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문학주간이 기대된다.

대학로는 가을이 한창 바쁘다. 많은 공연이 올라가고 각종 축제로 분주하다. 그 사이에 문학주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가을, 대학로'는 이제 '문학주간'이기도 하다. 대학로를 오가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2. 평가 및 제언

2-2. 기획의원 제언

예소연

'2025 문학주간'의 기획위원으로서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프로세스에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획을 의논하고 무사히 실행 단계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과 '태인'의 실무적 역량 덕분이었습니다. 회의 일정부터 시작해 아웃라인을 잡고 구체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세심하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 기획 단계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와 시의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심에 '2025 문학주간'이 더욱 풍성한 문학의 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미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획위원과 저를 포함해 새롭게 들어온 기획위원과의 시너지도 좋았습니다. 김현, 소유정, 양근애 기획위원들이 공유해준 인풋을 통해 처음 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선영, 오세란 기획위원의 아이디어와 세심함으로 인해 제가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문학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마련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습니다. 행사 하나하나가 뜻깊고 소중했고 이것들이 한 해 한 해 모여 더 많은 성취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문학주간이 수도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를 꾀한다는 것 또한 지역과 문학을 다른 방식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소규모 동네 책방과 도모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세란

제10회를 맞은 2025년 문학주간에 기획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아동·청소년문학'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행사에 포함하게 되어 큰 부담을 안고 출발하였는데 여러 기획위원님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올해 문학주간은 도움닫기에서 출발하여 '도움-닿기'로 주제를 확정하는 과정부터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 선정 과정에서도 아동과 청소년 관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느꼈습니다. 이후 포스터 제작이나 행사 시간조정 등에서도 역시 많은 고려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다양한 문학과 예술 현장에서 '당사자성'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학주간에서 아동·청소년문학을 포함한다면 아동·청소년문학과 관객 참여 과정에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기획해야 할지 '당사자성'에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러한 대규모의 문학행사에 '어떻게', 슬며시 끼어 당사자로 행사를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행사가 막이 오른 후에 이 고민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간 성인 중심의 행사였던 문학주간에 어린이가 관객으로 참여하는 것은 분명 쉽지만은 않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이를 위해 진심을 담아 준비하였으나 그간 행사 성격이 성인 관객이 중심이 된 지점이 분명히 있었으므로 단순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모양이 아닌 홍보와 프로그램 진행 면에서 더욱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낀 하루하루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 진형민(동화작가)×윤세종(환경단체 변호사)> 같은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우리 사회의 당사자임을 선포하는, 어린이 관객을 위한 자리였는데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초등 저학년 어린이 관객이 많아 관객 동원 면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어린_마음 - 정유경(동시인)>도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판타지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 길상효(동화작가)×김리리(동화작가)×송미경(동화작가)×오세란(평론가)>나 <어린이-청소년, 문학으로 닿기 - 최상희(소설가)×김다노(동화작가)×김유진(평론가)>의 경우 아동·청소년문학을 읽거나 쓰는 성인 독자를 위한 시간이었는데, 관객 호응도가 높아 문학주간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익숙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첫 행사라서 극장과 무대를 잘 활용하지 못하였는데 이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재 성인 중심의 클래식한 낭독 공연이 아닌 어린이 관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발랄한 방식으로 극장과 무대 행사를 기획한다면 더 풍성한 자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보니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문학주간에 아동·청소년문학 프로그램이 함께 참여한 것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행사를 마친 후 다양한 독자와 아동·청소년문학을 창작하려고 준비하는 분, 실제 창작자, 양육자들로부터 이번 행사의 기획 취지와 프로그램 내용, 홍보 등을 보며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주목과 세심한 준비가 느껴져 좋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은 것은 모두 함께 준비해 주신 기획위원님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태인크리에이티브랩 덕분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3. 참여 관객 후기

공연을 보고 정말 좋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다. 정은 님 같은 어른이 되자고 다짐했고, 사월 님의 노랫말 같은 사랑이 궁금해졌다. 낭독회, 연주, 대화가 너무나 큰 힘이 되어서 눈물이 찔끔 났다.

황정은 작가님이 낭독하시고 나면 김사월 님이 노래해 주시는, 밀도 높은 문장과 노래를 들으며 황홀했던 시간이었다.

행복한 90분이었다. 다음에는 대극장에서 보고 싶다.

기획위원 토크도 즐거웠다. 낭독하는 황정은의 목소리와 노래하는 김사월의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합이 잘 맞아 내내 즐거웠다.

개막식 공연 패널과 프로그램 모두 좋았습니다. 기획 및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막행사 |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시지만, 창작과 관련한 질문에는 굉장히 예리하고 적확한 답을 주시는 걸 보고 놀라웠다. 또 개인적인 것까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즐거웠던 자리였다.

주제 스테이지 | 생각보다, 생각만큼

70분이 너무 짧다고 느낄 만큼 좋았던 스테이지였다.

퀴어시낭독회 정말 좋았고, 회차가 하나여서 아쉬웠습니다. 또 자주 다른 기회로 보고 싶습니다.

주제 스테이지 | 퀴어시낭독회

2025년 문학주간 10주년인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문지 협력을 통해 열린 시 보다 2025에선 7명의 시인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경계 너머의 이야기는 신을 둘러싼 대담이 우리를 매료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분들 모시고 길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주제 스테이지 | 경계 너머의 이야기 / 협력 스테이지 | 일곱 시인과 함께 만나는 『시 보다 2025』

세 작가가 펼쳐내는 판타지세계에는 그만치의 현실이 밑에 깔린 것이다. 각각의 작가에게 한 시간씩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 많은 비밀들을 들어볼텐데 아쉬워하며 나왔다.

주제 스테이지 | 판타지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출판계의 이금희 김현 시인님의 진행 정말 귀했고, 근래 행사 참여하면서 가장 만족도 높았습니다.

주제 스테이지 | 읽고 만나고 쓰는 마음

진지하고 무거운 자리일 줄 알았는데 오진 연출님이 유쾌하게 진행해 주셔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이렇게 극작가들이 다 같이 모이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정말 귀한 자리였다. 유료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도 충분히 참여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만족한다.

주제 스테이지 | 누가 짓지 않은 집

앤솔로지 형태로 꾸준히 나오는 한국문학이 드문데, 늘 좋은 라인업으로 나오는 얽힘 시리즈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 뜻깊었다. 북토크 당일에 나온 3기 책을 현장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어 좋았다.

주제 스테이지 | 우리의 세계가 얽혀 있다면

뮤지컬 공연의 화면이 더 크게 연출된다면 바다의 감동이 더 클 것 같았어요. 세월호를 떠올리게 한 공연이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치유의 느낌을 줘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협력 스테이지 |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좋아하는 시인분들이 떼로 나오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시 낭독회 후 원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시를 읊어보는 뒤풀이 기획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군요.

너무 좋은 행사 덕분에 위로받고 기분 좋아져서 예술가의집을 나옵니다.

김현 시인님 진행 너무 재밌습니다. 다양한 시인, 다양한 작가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주제 스테이지 | 시를 쉽게 고쳐 쓰시오

혼자 책으로 읽을 땐 눈치채지 못했던 인물의 결들, 작가가 들려준 창작의 동기, 그리고 낭독을 통해 입체화된 감정들이 책 너머로 흘러들어왔다. 예소연 작가가 직접 들려준 친구와의 관계, 후회,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덕분에 이 작품은 내게 또 다른 모습으로 새겨졌다.

주제 스테이지 | 우리 철봉하자 낭독회

4

홍보

1. 홍보 개요 160

2. 언론 홍보 161

3. 온라인 홍보 170

3-1. 인스타그램
3-2. 네이버 블로그
3-3. 페이스북
3-4. X
3-5. 홈페이지
3-6. 알라딘
3-7. 네이버 예약
3-8. 영상 홍보
3-9. 커뮤니티 홍보
3-10. 이벤트

4. 오프라인 홍보 200

4-1. 인쇄 홍보물
4-2. 옥외 홍보물
4-3. 현장 제작물

1. 홍보 개요

홍보 개요

언론 홍보	언론기사 66건
	기획기사 1건
온라인 홍보	인스타그램 총 76건
	블로그 총 68건
	페이스북 총 72건
	X(구 트위터) 총 104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알라딘 댓글 이벤트 참여 4,561명
	온라인 예약 평균 예약률 94.6%
	유튜브 콘텐츠 발행 4건
	커뮤니티 홍보 44건
	주말토리 인스타그램 및 스토리 조회수 : 16,292건, 도달수 : 6,371건
	주말토리 뉴스레터 발송 : 80,123건, 오픈(PV) : 36,086건
오프라인 홍보	창비어린이 지면광고
	대학로예술극장 앞 대형 포스터 게시
	옥외 현수기 혜화역 일대
	옥외 현수기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옥외 LED 영상 및 키비주얼 송출
	예술가의 집 실내 안내 전광판
	예술가의 집 앞 대형 배너

2. 언론 홍보

언론 홍보 보도리스트 총 67건

보도일자	매체	기사명	URL
8/18	연합뉴스	'문학주간' 내달 13일 개막…김혜순·박천휴 등 참여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8064400005?input=1195m
8/18	뉴시스	'문학주간' 내달 개막…박천휴·성해나·김혜순 무대 오른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8_0003293716
8/18	헤럴드경제	김혜순부터 김애란까지…내달 '문학주간' 열린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56058?ref=naver
8/18	이데일리	김혜순·박천휴·황정은 대학로 뜬다…내달 13일부터 '문학주간'	https://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26
8/18	YTN	'문학주간 2025' 9월 13일 개막...박천휴 작가 등 참여	https://www.ytn.co.kr/_ln/0106_202508181401557481
8/18	KBS뉴스	'문학주간 2025' 다음 달 13일 개막…'토니상' 박천휴 강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2541&ref=A
8/18	아주경제	김혜순, 박천휴, 성해나, 김애란 등 총집합…문학주간 내달 13일 개최	https://www.ajunews.com/view/20250818144230025
8/19	뉴스핌	소설가 성해나·황정은, 시인 김혜순 무대 선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18000904
8/19	파이낸셜뉴스	아르코 '문학주간' 내달 13일 개막..김혜순 시인·박천휴 작가 등 참여	https://www.fnnews.com/news/202508191030505326
8/19	울산매일신문	문학으로 '도움-닿기'…내달 '문학주간 2025' 연다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18
8/20	뉴스1	"문학, 서로를 돕고 연결하다"…토니상 수상자 박천휴 작가 등 참여	https://www.news1.kr/life-culture/general-cultural/5884295
8/22	서울신문	김혜순, 박천휴, 성해나, 김애란이 한자리에…다음달 '문학주간'	https://www.seoul.co.kr/news/life/publication-literature/2025/08/22/20250822500071?wlog_tag3=naver
9/1	한국경제	'독서의 계절' 가을맞아 전국 독서행사… 출판도시 달리고 기형도·김혜순·성해나 읽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14768i
9/9	조선일보	문화예술위 '문학주간'… 시 낭독 등 프로그램 풍성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5/09/09/Z5EPGG2TZFBCRKECEXKHEFR2H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9/9	뉴스워커	아르코, 전국이 책 향기로 물드는 '문학주간'... 2025 전국 각지 도서관·책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009
9/9	K스피릿	전국이 책 향기로 물드는 문학주간 2025, 도서관·책방에서 다채로운 행사 진행	https://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46
9/9	아주경제	전국이 책 향기로 물든다…'문학주간 2025' 13일부터 개최	https://www.ajunews.com/view/20250909113014708
9/9	라이브뉴스	전국이 책 향기로 물드는 문학주간 2025, 전국 각지 도서관·책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54232
9/9	ABC뉴스	10주년 문학주간 행사 '도움-닿기' 13-19일 열린다	https://www.abcn.kr/news/articleView.html?idxno=82302
9/9	머니투데이	항상 소설가·시인 있는 이곳…문학 주간에 작가들 만나볼까	https://www.mt.co.kr/culture/2025/09/09/2025090914214810484
9/9	베이비뉴스	전국이 책 향기로 물드는 문학주간... 2025 전국 각지 도서관·책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28
9/9	CNB저널(문화경제)	전국이 책 향기로 물드는 문학주간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각지 도서관·책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https://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89290
9/9	시사타임즈	문학주간 2025, 전국 각지 도서관·책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https://blog.naver.com/kmts9/224001577778
9/10	매일신문	구수산도서관,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시끌시끌 문학피크닉' 개최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91009452930218

2. 언론 홍보

보도일자	매체	기사명	URL
9/10	이로운넷	'문학주간 2025' 개막… 전국 도서관·책방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2834
9/10	뉴시스	예술위, 문학주간 '도움—닿기'…전국 도서관·책방서 33개 프로그램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0_0003323025
9/10	ABC뉴스	현진건 '운수 좋은 날' 낭독공연	https://www.abcn.kr/news/articleView.html?idxno=82352
9/11	경상매일신문	대구 구수산도서관, 시끌시끌 문학피크닉 개최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562908
9/13	톱스타뉴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옥자연, 개막식 여운→문학주간 현장 감동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04561
9/14	한국경제	박천휴 "요즘 내 화두는 '크로스 컬처'...문화 전반에 확산될 것"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42015i
9/14	톱클래스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와 나현우 배우가 꼽은 최애 대사는	https://topclass.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64
9/14	케이스타뉴스	[K현장] 박천휴 작가 "외로움이 창작의 힘..사랑 하고파"	https://www.star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42
9/14	케이스타뉴스	[K현장] 박천휴 작가 "K팝이 보여준 크로스 컬처처럼 곧 문학도"	https://www.star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41
9/15	이데일리	토니상' 박천휴 "창작의 원동력은 '외로움'과 '궁금증'"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5526642300448&mediaCodeNo=257&OutLnkChk=Y
9/15	싱글리스트	어쩌면 해피앤딩' 극작가 박천휴부터 시인 김혜순까지, '문학주간2025' 본격 개막	https://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677919
9/15	독서신문	10주년 맞은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본격 개막	https://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657
9/15	아주경제	[포토] 10주년 맞은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본격 개막	https://www.ajunews.com/view/20250915121018710
9/15	아시아경제	10주년 맞은 '문학주간2025' 개막…19일까지 '도움-닿기' 행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91512503285867
9/15	뉴스저널리즘	박천휴 대담부터 김혜순 낭독회까지…'도움-닿기'로 문학주간 시작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167
9/15	K스피릿	첫날은 극작가 박천휴, 마지막은 시인 김혜순	https://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08
9/15	마이데일리	아르코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 19일까지 대학로서 개최	https://www.mydaily.co.kr/page/view/2025091513502210723
9/15	비욘드포스트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 개막…피날레(19일)는 김혜순 시인의 신작 낭독회로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91513421793989 2e75d13a3_30
9/15	아주경제	첫날은 박천휴, 마지막은 김혜순…문학주간 2025 '도움—닿기' 개막	https://www.ajunews.com/view/20250915142901828
9/15	매일안전신문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 대학로예술극장에서 개막	https://idsn.co.kr/news/view/1065589951863025
9/15	노컷뉴스	첫날은 박천휴, 마지막은 김혜순…'문학주간2025' 본격 개막	https://www.nocutnews.co.kr/news/640028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915025654
9/15	뉴스1	박천휴 작가부터 김혜순 시인까지…10주년 맞은 '아르코 문학주간'	https://www.news1.kr/life-culture/performance-exhibition/5912633
9/15	뉴스핌	'토니상' 박천휴부터 김혜순 시인까지…10주년 맞은 '아르코 문학주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915000817
9/15	굿모닝충청	"우리는 이어져 있다고 믿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385
9/15	서울문화투데이	10주년 맞은 '문학주간 2025', <도움—닿기> 개막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10
9/15	스포츠동아	김혜순 낭독·박천휴 대담… 문학주간2025, 대학로서 10주년 열다	https://sports.donga.com/life/article/all/20250915/132391091/1
9/15	국제뉴스	10주년 맞은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 본격 개막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605
9/16	스포츠경향	첫날은 극작가 박천휴, 마지막은 시인 김혜순… 10주년 맞은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 본격 개막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91605210 03?pt=nv
9/16	뉴시스	성해나 "본질 알려하지 않는 현상 만연" '…무당' 정흥칼리와 '혼모노' 대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5_0003330035
9/16	한국금융경제신문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본격 개막…10주년 맞아 다양한 예술가 참여	https://www.k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875
9/17	문화제육관광부	따뜻한 '도움—닿기'의 장 <문학주간2025>	https://blog.naver.com/mcstkorea/224011618038
9/19	연합뉴스	"경계를 지우려 했습니다"…김혜순 시 낭독에 숨죽인 관객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9171500005?input=1195m
9/19	뉴시스	"나는 명랑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김혜순, 조명 아래 담담히 시 낭독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9_0003336757
9/19	한겨레21	황정은 "연루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8048.html
9/20	한국경제	시인 김혜순과 후배 시인들의 '불면의 심포니'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06329i
9/20	조선일보	김혜순 "詩에 담긴 유머는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나는 매운 연기"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5/09/20/5RMS65766BDEPF4FJ2RTD7FDC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9/21	경향신문	"시는 거대 담론 아니지만…" 문학주간 마무리한 '김혜순, 시의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11134001
9/21	이데일리	김혜순 詩, 6명 시인들 목소리로 음악이 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3926642302416&mediaCodeNo=257
9/22	문화일보	인사도, 감사도 없이…김혜순과 후배 시인들이 詩로 채운 '낭독의 밤'	https://www.munhwa.com/article/11534962?ref=nate
9/22	동아일보	"나는 명랑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쪽빛 조명 무대 위로 詩가 흘러내렸다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50921/132433032/2
9/22	아주경제	대학로 무대 감싸안은 여섯 시인의 '낭독 극장'	https://www.ajunews.com/view/20250920200811597
9/25	한국경제	"옛말로 쓰여진 김명순 작품들 현대어로 되살렸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582341

2. 언론 홍보

주요보도① ‘문학주간’ 내달 13일 개막…김혜순·박천휴 등 참여 연합뉴스 | 25.08.18(월)



연합뉴스

최신뉴스

'문학주간' 내달 13일 개막…김혜순·박천휴 등 참여

송고 2025-08-18 11:46

황재하 기자
+ 구독

대학로 등 전국서 낭독회·북토크·공연…올해 주제는 '도움-닿기'

문학을 기반으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축제가 다음달 서울 대학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펼쳐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9월 13~19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과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 집과 전국 각지에서 ‘문학주간 2025’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10회째를 맞은 올해 주제는 ‘도움-닿기’로 ‘도움닫기’와 ‘닿다’는 말을 합성했다. 더 높이 또는 멀리 뛰기 위한 힘찬 도움닫기를 통해 서로의 삶에 닿을 수 있는 발판을 문학이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학주간은 전국 문학인이 참여해 문학의 가치와 의미를 논하고 관객과 공유하는 축제다. 올해는 낭독회와 북토크, 공연, 전시 등 총 52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일인 9월 13일 예술가의 집에서는 올해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가 강연하는 주제 스테이지 ‘생각보다, 생각만큼’이 열린다. 이어 올해 등단 20주년을 맞은 소설가 황정은,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배우 옥자연이 개막 공연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를 선보인다. 14일에는 백온유의 소설 ‘유원’과 동명의 연극에 관해 이야기하는 ‘날아오르기, 직전’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고, 15일에는 성해나의 소설 ‘혼모노’를 무당 겸 작가 정홍칼리가 새롭게 해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시인 김혜순은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 ‘김혜순, 시하다-신작 시집 낭독회’에 참석한다. 김혜순의 신작 시집을 다른 시인들이 낭독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른 기관과 협력해 마련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9월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사 초청 사업 ‘K-펠로우십’과 협력해 아이오와 국제 창작 프로그램(IWP) 디렉터 크리스토퍼 메릴이 예술가의 집에서 강연한다. IWP는 미국 아이오와대학교가 매년 다양한 문학을 잇기 위해 세계의 작가들을 초청하는 행사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도 참여한 바 있다. 이외에 한국문학번역원과 협력한 소설가 빅토리와 마스의 북토크, 국립한국문학관과 협력한 시인 황유원과 소설가 이유리의 북토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학주간을 즐길 수 있다. 9월 13일 부산에서 ‘서로함께’, 14일 경기 화성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 ‘광복 80주년, 시를 싣고 마음에 닿다’, 13~14일 경남 고성 ‘책돔벙도서관’ 등의 행사가 열린다. 축제 기간 아르코미술관 1층에서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과의 협력 전시 ‘아자! 아자!’가 진행된다.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10주년 이벤트 부스와 문학주간 굿즈를 직접 만들어보는 부스가 차려진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8064400005

주요보도② 10주년 맞은 ‘문학주간2025’ 개막…19일까지 ‘도움-닿기’ 행사 아시아경제 | 25.09.15(월)



아시아경제 문화·라이프 10주년 맞은 '문학주간2025' 개막…19일까지 '도움-닿기…

10주년 맞은 '문학주간2025' 개막…19일까지 '도움-닿기' 행사

서민음 기자

입력 2025.09.15 12:50 00분 55초 소요

- 지난 13일 개막
- 소설가 황정은 낭독, 김사월 노래 선봬
- 17일 김혜순 시인 낭독회 개최
- 전국 각지서 연계 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가 지난 13일 개막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다채로운 순서로 관람객을 맞는다.개막행사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기획위원 6인의 토크를 시작으로, 등단 20주년을 맞은 소설가 황정은의 낭독과 사회를 맡은 배우 옥자연의 무대, 싱어송라이터 김사월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김사월은 행사명에 맞춰 노래 ‘누군가에게’를 불러, ‘도움-닿기’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제78회 토니 어워즈 6관왕을 차지한 극작가 박천휴와 시인 김현이 만났다. 두 예술가는 책·노래·영화·뮤지컬 등 창작 과정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생각보다 괴롭고 생각만큼 행복한’ 예술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마로니에공원 야외광장에서는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in 대학로’를 비롯해 인문 콘서트, 문학나눔 큐레이션, 문학주간 10주년 특별 부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오는 19일 저녁 7시에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김혜순 시인의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낭독회가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김혜순 시인과 여러 시인의 목소리로 60여 편의 시를 함께 읽고 듣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문학주간은 대학로를 넘어 전국 각지로 확산한다. 강원 김유정문학촌, 경남 청학서림, 대구 구수산도서관, 부산 수영구도서관 등지에서도 작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학은 개인의 감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매개체”라며 “지역 곳곳에서 더 많은 문학축제가 열리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아르코 위원장은 “문학주간은 지난 10년간 1700여 명의 작가와 함께하며 K-문학의 감동을 공연·전시·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확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문학을 통해 작가와 국민들에게 ‘도움-닿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학주간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매진 시에는 현장 잔여석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아르코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91512503285867

2. 언론 홍보

주요보도③ 김혜순 “詩에 담긴 유머는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나는 매운 연기” 조선일보 | 25.09.20(토)



朝鮮日報

김혜순 "詩에 담긴 유머는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나는 매운 연기"

시인들과 '문학주간'서 신작 시집 낭독

황지윤 기자

업데이트 2025.09.20. 14:04 가

새까만 무대 위로 파란 재킷을 입은 시인이 걸어나왔다. 조명이 비춘 건 시인 김혜순(70). 무대에 나란히 놓인 여섯 개 의자 맨 끝에 앉더니 입을 열었다. “날씨와 나, 둘만 있어/ 다정했다 매서웠다 날씨의 기분// 나는 날씨와 둘만 살아/ 날씨에 따라 당연히 옷을 갈아입고/ 춤춰줄까 물구나무서줄까 물어봐// 날씨는 오늘 화가 많더니 울었어/나는 그 변덕을 사랑해…” 이달 초 펴낸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난다)의 문을 여는 첫 시 ‘그리운 날씨’다.

1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김혜순, 시하다 - 신작 시집 낭독회’ 행사가 열렸다. 13~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문학주간 2025’ 폐막식을 겸했다. 100여명이 넘는 관객이 소극장을 채웠다. 행사가 끝나고 사인을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무대 위 나머지 다섯 개 의자는 시인 김상혁·신해욱·안태운·유선혜·황유원이 채웠다. 차례로 무대에 등장한 이들 시인은 한 시간 반 동안 김혜순과 번갈아가며 김혜순의 신작 시를 읽었다. 사람은 가만히 있고 목소리가 움직이는 낭독 무대. 한 시인이 시 한 편을 오롯이 다 읽기도 하고, 나눠 읽기도 했다. 목소리가 이리저리 모였다 흩어졌다.

낭독에 앞서 시인이 이번 행사를 위해 쓴 글이 무대 뒤 화면에 떴다. “제가 오늘 낭독하게 될 이 시집의 시들은 아주 최근에 쓰인 것들입니다. (…) 저는 이 시들을 쓸 때, 저와 타자, 저와 동물 식물 사물 광물의 경계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간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도 넘나들었습니다. ‘죽음의 자서전’(2016) ‘날개 환상통’(2019)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2022) 이후 3년 만에 낸 시집이다. ‘죽음 3부작’으로 묶이는 앞선 세 편의 시집보다 명랑하다.

시인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시들에 담긴 유머가 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시가 수행하는 죽음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피어나는 매운 연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웃으면서 깃발을 꾸미는 행위 같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대상을 죽이는 차가운 관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상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그것을 하는 것이 시라는 장르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내내 했더랬습니다.” 김혜순의 시론(詩論)도 엿볼 수 있었다. “시는 거대 담론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도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은 어떤 의지의 발현이고, 그것에 대한 예술적인 일어섬입니다. 이 시들을 쓰면서 시라는 장르가 수행할 수 있는 담론과 맞붙은 어떤 이미지와 리듬의 일어섬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5/09/20/5RMS65766BDEPF4FJ2RTD7FDCY/

기획기사 황정은 “연루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 한겨레21 | 25.09.19(금)



“그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진주가 그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애가 어떻게 보였나. 취한 것처럼 보였나. 맞은 것 같지는 않았나. 얼굴이나 팔 뚝에 상처가 있지는 않았나. 협박당하는 것 같지는 않았나.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나. 애가 울고 있지는 않았나. 어느 방향으로 갔나. 그 애가 어느 쪽으로 갔나. 그런 것을 몇 번이고 물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나에게 그때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엔 언제나 그렇게 물었다.”

‘연루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

소설가 황정은이 소설집 ‘아무도 아닌’(문학동네 펴냄)에 수록된 ‘양의 미래’의 한 부분을 읽었다. 2025년 9월1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소설·연극 등 다양한 문학과 예술 장르를 매개로 작가와 독자 간 접점을 만들며 10년째 열어온 ‘문학주간’의 2025년 개막 행사였다. 배우 옥자연이 진행하고 인디 포크 가수 김사월이 “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을 담아 낭독 사이사이 노래했다.

옥자연이 물었다. “‘양의 미래’를 선택해서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황정은이 답했다. “이 단편 안에는 제가 실종된 채로 내버려둔 진주라는 어린 여성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태 가끔 계속 생각을 해요.” 소설에서 ‘나’는 서점에 두 남자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온 진주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다. 이후 아파트 화단 깊숙한 곳에서 진주의 가방이, 멀지 않은 공사장에서 헝겊 공처럼 돌돌 말린 여성 속옷이 발견됐다. 진주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발견되지도 않았다.

황정은이 말을 이었다. “이 ‘양의 미래’라는 소설을 쓸 당시에 ‘나는 이 세계에서 가해자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폭력적인 사건들에 이상하게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뭘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고통이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루감이라는 것을 당시에 많이 생각했는데, ‘양의 미래’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의 범위는 서점이라는 작은 공간과 화자라는 한 사람의 삶이었거든요. 9년, 10년 계속 작업해오다보니까 쓰는 사람으로서의 저에게는 이 영역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어서 온갖 것에 다 연루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컨대 올여름의 더위라든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정말 내 몫은 없나?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연루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어요.”

황정은은 이날 낭독으로 참여한 개막 행사에서 10년 전에 쓴 단편 ‘양의 미래’를 읽고, 또 2025년 펴낸 데모 일지이자 에세이 ‘작은 일기’(창비 펴냄)를 읽으며 세상과의 연루감을 깊게 말했다. 작가는 이 세계와 연루됐기에 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국회 앞으로 갔고, “마음이 곤죽”이 되었고, 써야 할 원고를 자꾸 쓰지 못했다. 2025년 1월에는 체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때문에 한강진으로, 광화문 동십자각으로 가고 또 갔다.

많은 작가 가운데 황정은이 ‘문학주간 2025’ 개막 행사에 자리한 이유는 뭘까. 행사를 기획한 시인 김현은 “계엄과 내란 이후 맞이하는 첫 문학 축제인 만큼 빛의 혁명을 통과해온 작가적 증언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황정은 작가가 등단 스무 해를 맞았고, 등단 스무 해에 펴낸 ‘작은 일기’에 세월호 때부터 계엄·내란 사태에까지 연대해온 기록이 담겨 있어서 맞춤한 작가였다”고 말했다.

2. 언론 홍보

기획기사 **황정은 “연루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 한겨레21 | 25.09.19(금)

비인간 ‘유령’들의 대화

문학은 언제나 세계와 연결돼 있다. 그 ‘연결감’은 9월13~19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와 전국 곳곳 도서관 등에서 열린 문학주간 여러 행사에서 드러났다. 도드라진 주제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와 동물권. 9월14일 열린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무대에는 어린이·청소년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윤세종 변호사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린이 시민의 이야기를 ‘왜왜왜 동아리’(창비 펴냄)라는 동화로 옮긴 진형민 작가가 올랐다. 기후소송이 처음 제기된 뒤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끌어낸 과정,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참여한 한 어린이는 “기후위기로 날이 더워지면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의견을 남겼다. 오세란 아동문학 평론가는 “어린이가 공동체의 시민임을 보여주는 주요한 이슈가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행사에서 빠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거리를 비롯한 공공공간에서 공연하는 예술단체 바람컴퍼니는 9월 14일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 전남 함평 나비축제, 대구 맹꽁이축제 등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혹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야’ 주인공이 되는 산천어와 나비, 맹꽁이, 캐나다 구스(거위)를 주연으로 한 연극 ‘유령들의 대화’를 낭독극 형태로 공연했다. 배우들은 산천어나 나비의 어떤 특징을 의인화하거나 흉내 내는 형태로 연기하는 대신, 인류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이자 고유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재현하고자 ‘되기’의 윤리를 고민하며 연기했다. ‘나는 산천어’ ‘나는 나비’ ‘나는 맹꽁이’ 등으로 내가 누군인지를 밝히면서 각 존재들의 질감과 움직이는 방식을 성찰했다. 관객은 맹꽁이의 언어인 ‘무엥’ ‘꾸엥’을 함께 말하고, 산천어가 사는 곳인 화천천의 대사 “나는 화천천. 나는 모든 곳에 흐르고 있어. 나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지”를 낭독하며 ‘연결감’을 느꼈다.

낭독극의 한 토막. “난 산천어. 난 산천어 축제를 위해 만들어졌지. 처음 양식장을 벗어났을 때 정말 기뻤지. 언니들과 바다에 갈 수 있을까? 우린 화천천에 도착했어. 몸이 얼얼해지는 차가움. 그래도 헤엄칠 수 있어서 행복했지. 바다에 가자. 벽에 부딪혔어. 계속 헤엄쳤지. 할 수 있는 만큼 숨이 차도록 헤엄쳤어. 난 먹이를 보고 바로 물었어. 그리고 공기 중으로 들어올려졌어.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이 없어. 숨이 차… 숨이… 차…. 나 같은 산천어가 60만 명이 넘게 있었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연기한 산천어, 나비, 맹꽁이는 모두 유령이었다. 실제로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축제에는 양식 산천어 60만 마리가 양쪽이 막힌 2㎞ 화천천 구간에 풀어지고 ‘얼음벌판’을 빼곡하게 메운 사람들이 갇힌 산천어를 낚는다. 2025년 2월에만 186만 명이 방문했다.(화천군 발표)

유령 산천어가 사람들에게 질문했다. “얼음 위에 무릎 꿇은 사람들. 온몸을 바짝 붙이고, 하염없이 작은 구멍을 바라보는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 기도하고 있어? 바라는 게 뭐야? 지금, 왜, 여기에 있어?” 공연이 끝난 뒤 한 관객은 “흔히 유령이라고 하면 인간을 떠올리는데, 맹꽁이와 산천어와 나비 유령이라니, 또 이들을 그 동물의 감각과 질감으로 표현한 것이 참 아름다웠고, 한편으로는 나라는 인간의 편협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객 조주영씨는 “인간의 유희를 목적으로 만드는 축제를 동물의 관점에서 보니 제사가 떠오를 만큼 죽음이 깃든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혼 축하드려요‘라는 완벽한 일곱 글자

이런 연결감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작가가 읽고, 만나고, 쓴다. ‘사랑을 찾아갈 거야’(푸른숲 펴냄)라는 에세이를 쓰고 9월16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읽고 만나고 쓰는 마음’이라는 행사에서 독자들을 만난 정규환 작가는, 2024년 10월11일 한국의 동성 부부 11쌍이 동시에 제기한 혼인평등소송(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규환은 2024년 8월21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날에 쓴 기록을 이날 읽었다.

“10여 분 만에 혼인신고 접수가 마무리됐다. ‘아시다시피 동성 간의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접수와 동시에 불수리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불수리 통지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한 뒤 접수증과 불수리 통지서를 우리에게 살포시 건네줬다. 여기까지는 모두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미뤄온 숙제를 끝낸 듯 일종의 개운함을 느끼려던 찰나, 그녀는 ‘결혼 축하드려요’라고 마무리 멘트를 건넸다. 사무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듯 매우 일상적인 음성이었지만, 모든 시민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견지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연민이나 편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이성과 감정의 흐트러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심한 듯 다정하게. 그렇지만 매우 또렷한 발성으로 ‘결혼 축하드려요’라는 완벽한 일곱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낸 것이다.” 작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고 쓰고 읽었다. “법은 우리를 거절했지만, 사람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기획기사 **황정은 “연루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 한겨레21 | 25.09.19(금)

담당 공무원의 축하 인사에 정규환은 용기를 얻어 서대문구청 한쪽에 마련된 ‘신혼부부용 포토존’에서 남편 김찬영씨와 입맞춤하는 결혼 기념 사진을 찍었다. ‘완벽한 인사’를 건넨 공무원이 웃으면서 몇 번이고 사진을 찍어줬다.

2024년 10월 동성 부부들이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은 각하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정규환 등 동성 부부 6쌍은 2025년 5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규환은 “아직 법은 그대로지만 시민들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임을 믿는다”며 그가 세계에서 만나는 변화와 앞으로 기대하는 변화를 전했다.

“법은 그대로지만 시민들은 나아간다”

문학주간 2025는 ‘도움-닿기’라는 주제어를 정했다.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소설가 예소연은 “지난해나 올해나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 그 속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건 연결감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곳에 닿을 수 있다면 다종다양한 존재가 모여서 구름판을 만들어내고 그게 도움닫기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정으로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작가들과 프로그램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혜순 시인, 김애란 소설가 등 150여 명의 시인, 소설가, 연극인, 평론가 등이 참여해 독자-관객과의 접점을 넓혔다.

황정은이 9월 13일 문학주간2025 개막 행사에서 마지막으로 힘주어 읽은 단어는 ‘가능성’과 ‘사랑’이었다. “록산 게이의 칼럼 모음집을 읽기 시작했다. 희망보다는 가능성을 믿는다는 이야기에 깊이 감응했다. 나도 그렇다, 진작 그래왔다고 중얼거리며 서문을 읽었다. (…) 내가 이 세계를 깊이 사랑한다.”(‘작은 일기’ 중)

비인간, 인간, 퀴어, ‘아무도 아닌’ 다종다양한 존재가 가능성을 믿으며 ‘사랑’과 ‘변화’와 ‘연결’을 더 많이 말한다면,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나아갈까.

출처 | https: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8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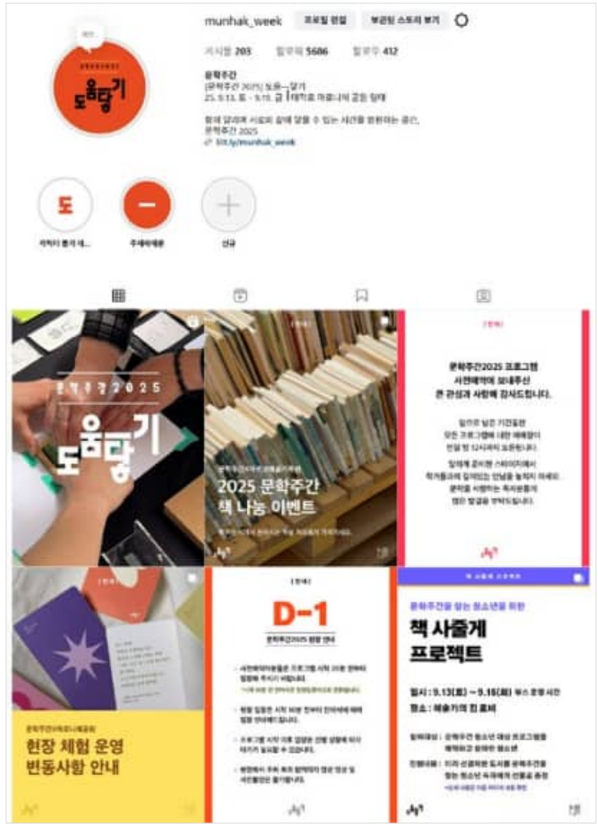
3. 온라인 홍보

홍보 운영

채널		주소	실적
인스타그램	문학주간	https://www.instagram.com/munhak_week/	콘텐츠발행 76건
블로그	문학주간	https://blog.naver.com/arkomunhak	포스팅 68건
페이스북	문학주간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94761660540	콘텐츠발행 72건
X	문학주간	https://x.com/munhak_week	콘텐츠발행 104건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content/5445	업데이트
알라딘	알라딘	https://www.aladin.co.kr/events/wevent.aspx?eventid=292795	댓글 이벤트 참여 4,561건
온라인 예약	네이버	https://booking.naver.com/booking	40개 프로그램 예약 운영 평균 예약률 약 94.6% 달성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youtube.com/@arkokorea	콘텐츠발행 4건
온라인 커뮤니티		-	44건

3-1. 인스타그램

- 문학주간 주요 프로그램 및 공지사항 피드 발행
- 문학주간 이벤트 및 캠페인 운영
- 문학주간 피드 반응 참여 및 팔로우 유도



채널 운영	2025년 7월 23일 ~ 10월 30일
팔로워 수	5,686명(2025.09.29. 기준) *작년 대비 3,453명 증가
콘텐츠 발행 개수	게시물 75개, 스토리 293개
추진 성과	도달한 계정 : 80,127 콘텐츠 반응 : 18,079

3. 온라인 홍보

인스타그램 발행 리스트

No.	게시날짜	게시 내용	도달수 / 좋아요
1	7/23	키비주얼 오픈 (메인 포스터)	2,559 / 135
2	7/23	키비주얼 오픈 (서브 포스터-화이트)	1,138 / 100
3	7/23	키비주얼 오픈 (서브 포스터-블루)	6,837 / 351
4	7/28	온라인 이벤트 ① 오픈	8,164 / 1,178
5	8/1	온라인 이벤트 ② 오픈	2,757 / 591
6	8/5	라인업 공개 (13,14,15일)	25,642 / 549
7	8/5	라인업 공개 (16,17일)	4,090 / 147
8	8/5	라인업 공개 (18,19일)	4,434 / 170
9	8/5	개막(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13,064 / 431
10	8/6	주제스테이지(청소년, 시에 닿다)	2,726 / 120
11	8/6	주제스테이지(생각보다, 생각만큼)	4,399 / 124
12	8/6	주제스테이지(이런 밤, 들 가운데서)	3,178 / 82
13	8/6	주제스테이지(유령들의 대화)	2,447 / 88
14	8/6	주제스테이지(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설 마음)	2,723 / 95
15	8/7	주제스테이지(퀴어시낭독회)	13,823 / 486
16	8/7	주제스테이지(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2,014 / 59
17	8/7	주제스테이지(날아오르기, 직전)	3,294 / 95
18	8/7	주제스테이지(경계 너머의 이야기)	5,186 / 188
19	8/7	주제스테이지(우리 철봉 하자 낭독회)	3,423 / 112
20	8/8	주제스테이지(기형도 플레이)	4,142 / 160
21	8/8	주제스테이지(그만두는 경력)	4,523 / 149
22	8/8	주제스테이지(판타지세계에 도착했습니다)	1,895 / 50
23	8/8	주제스테이지(읽고 만나고 쓰는 마음)	2,663 / 116
24	8/8	주제스테이지(김명순의 첫 번째 100주년)	6,728 / 168
25	8/8	주제스테이지(아픔을 읽기 쓰기)	3,108 / 77
26	8/9	주제스테이지(나를 구하는 나(들))	3,504 / 160
27	8/9	주제스테이지(누가 짓지 않은 집)	5,061 / 114
28	8/9	주제스테이지(시를 쉽게 고쳐 쓰시오)	3,113 / 96
29	8/9	주제스테이지(산다는 농담과 쓴다는 고민)	3,578 / 116
30	8/9	주제스테이지(우리의 세계가 얽혀 있다면)	4,764 / 145
31	8/9	폐막(김혜순, 시하다)	7,098 / 406
32	8/11	협력스테이지(타인의 삶-장르의 경계를 넘어)	2,598 / 93
33	8/11	협력스테이지(김환영의 '라이브 샌드 퍼포먼스')	1,675 / 33
34	8/11	협력스테이지(우리들의 어린_마음)	1,495 / 30
35	8/11	협력스테이지(글틴 오늘의 문학)	2,090 / 54
36	8/11	협력스테이지(일곱 시인과 함께 만나는 『시 보다 2025』)	4,578 / 203
37	8/12	협력스테이지(어린이-청소년, 문학으로 닿기)	1,721 / 54
38	8/12	협력스테이지(IWP 아이오와 국제 라이팅 프로그램 포커싱)	4,408 / 69
39	8/12	협력스테이지(마영신 깊이 읽기)	1,803 / 45
40	8/12	협력스테이지(빅토리아 마스 미친 여자들의 무도회 북토크)	2,405 / 119
41	8/12	협력스테이지(그림책 작가와 편집자 대담)	2,685 / 115
42	8/13	협력스테이지(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2,110 / 38
43	8/13	협력스테이지(향수, 음악과 문학이 소환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하여)	5,003 / 121
44	8/13	협력스테이지(2025 신춘문예 등단작가 특집)	5,946 / 157
45	8/13	협력스테이지(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 <꿈으로 지은 집> 연계 황유원, 이유리 작가 토크)	2,057 / 31
46	8/13	협력스테이지(야외)(문장의소리 공개방송 특집 보이는라디오 '문학으로 닿은 마음')	6,124 / 112
47	8/14	전시스테이지(문학주간2025 X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전시) <아자! 아자!>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소풍	2,019 / 40
48	8/14	사전예약 오픈 일정 안내	5,460 / 147
49	8/18	협력스테이지(키냐르를 읽는 시간) - 공지 수정 파일 재업로드	3,612 / 63
50	8/19	온라인 이벤트 ③ 오픈	2,068 / 193
51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1~5)	1,284 / 39
52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6~10)	2,030 / 66
53	8/22	문학주간2025 전야제 <Talk! Talk! 문학에너지발전소>	1,434 / 44
54	8/29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 소풍 <그림책 응원석> 신청 공지	1,456 / 50
55	9/1	<도움ㅡ닿기> 티저 공개	2,501 / 101
56	9/2	문학주간2025 X 한국저작권위원회	1,136 / 47
57	9/3	온라인 이벤트 ④ 오픈	3,428 / 618
58	9/4	사전예약 취소표 잔여좌석 오픈 안내	10,391 / 130

3. 온라인 홍보

인스타그램 발행 리스트

No.	게시날짜	게시 내용	도달수 / 좋아요
59	9/5	문학주간 야외 체험 부스 안내	1,801 / 105
60	9/5	포켓 실크스크린 책갈피 만들기 체험 릴스	1,512 / 47
61	9/8	FAQ	1,464 / 43
62	9/10	굿즈 소개	2,875 / 176
63	9/12	문학주간을 찾는 청소년을 위한 책 사줄게 프로젝트	1,318 / 61
64	9/12	D-1 안내	2,246 / 71
65	9/14	현장 체험 운영 변동사항 안내	1,157 / 47
66	9/15	사전예약 관련 안내	3696 / 114
67	9/15	2025 문학주간 책 나눔 이벤트	6,131 / 275
68	9/17	문학주간 현장 숏폼	1,138 / 43
69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3)	1,011 / 54
70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4)	1,442 / 81
71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5)	1,374 / 64
72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6)	1,470 / 60
73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7)	1,516 / 80
74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8)	909 / 39
75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9)	2,884 / 266
76	10/24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영상	1.083 / 74

3-2. 네이버 블로그

- 홈페이지형 블로그 개편 및 위젯 추가로 기타 SNS 채널 유입 확보
- 문학주간 전체 프로그램 개별 포스팅 및 공지
- 홈페이지(문학주간) 각 스테이지 개별 프로그램 클릭 시 블로그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로 연동



채널 운영	2025년 7월 23일 ~ 10월 30일
팔로워 수	985명(2025.09.29. 기준)
콘텐츠 발행 개수	게시물 68개
추진 성과	행사 달 기준 방문자 수 : 3,665 이웃 추가 수 : 84명 (9월 기준)

3. 온라인 홍보

블로그 발행 리스트

No.	게시날짜	게시 내용	조회수
1	7/23	키비주얼 오픈 (메인 포스터)	707
2	7/24	주제해제문	1,886
3	8/5	라인업 공개	707
4	8/5	개막(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341
5	8/6	주제스테이지(청소년, 시에 닿다)	125
6	8/6	주제스테이지(생각보다, 생각만큼)	184
7	8/6	주제스테이지(이런 밤, 들 가운데서)	140
8	8/6	주제스테이지(유령들의 대화)	175
9	8/6	주제스테이지(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설 마음)	215
10	8/7	주제스테이지(퀴어시낭독회)	202
11	8/7	주제스테이지(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118
12	8/7	주제스테이지(날아오르기, 직전)	109
13	8/7	주제스테이지(경계 너머의 이야기)	184
14	8/7	주제스테이지(우리 철봉 하자 낭독회)	154
15	8/8	주제스테이지(기형도 플레이)	150
16	8/8	주제스테이지(그만두는 경력)	147
17	8/8	주제스테이지(판타지세계에 도착했습니다)	167
18	8/8	주제스테이지(읽고 만나고 쓰는 마음)	106
19	8/8	주제스테이지(김명순의 첫 번째 100주년)	163
20	8/8	주제스테이지(아픔을 읽기 쓰기)	166
21	8/9	주제스테이지(나를 구하는 나(들))	179
22	8/9	주제스테이지(누가 짓지 않은 집)	218
23	8/9	주제스테이지(시를 쉽게 고쳐 쓰시오)	140
24	8/9	주제스테이지(산다는 농담과 쓴다는 고민)	201
25	8/9	주제스테이지(우리의 세계가 얽혀 있다면)	107
26	8/9	폐막(김혜순, 시하다)	250
27	8/11	협력스테이지(타인의 삶-장르의 경계를 넘어)	100
28	8/11	협력스테이지(김환영의 '라이브 샌드 퍼포먼스')	102
29	8/11	협력스테이지(우리들의 어린_마음)	85
30	8/11	협력스테이지(글틴 오늘의 문학)	203
31	8/11	협력스테이지(일곱 시인과 함께 만나는 『시 보다 2025』)	245
32	8/12	협력스테이지(어린이-청소년, 문학으로 닿기)	116
33	8/12	협력스테이지(IWP 아이오와 국제 창작 프로그램)	120
34	8/12	협력스테이지(마영신 깊이 읽기)	93
35	8/12	협력스테이지(빅토리아 마스 미친 여자들의 무도회 북토크)	94
36	8/12	협력스테이지(그림책 작가와 편집자 대담)	176
37	8/13	협력스테이지(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74
38	8/13	협력스테이지(향수, 음악과 문학이 소환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하여)	128
39	8/13	협력스테이지(2025 신춘문예 등단작가 특집)	361
40	8/13	협력스테이지(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 <꿈으로 지은 집> 연계 황유원, 이유리 작가 토크)	136
41	8/13	협력스테이지(키냐르를 읽는 시간)	134
42	8/13	협력스테이지(야외)(문장의소리 공개방송 특집 보이는라디오 '문학으로 닿은 마음')	117
43	8/14	전시스테이지(문학주간2025 X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전시 <아자! 아자!>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소풍	123
44	8/14	사전예약 오픈 일정 안내	731
45	8/18	사전예약 오픈!	316
46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이웃-닿기 : 소설낭독극장)	23
47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어린이 문학캠프/문학으로 귀를 열다)	39

3. 온라인 홍보

블로그 발행 리스트

No.	게시날짜	게시 내용	조회수
48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서로함께/시와 함께(영화 시쓰기))	21
49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광복 80주년, 시를 싣고 마음에 닿다)	17
50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작가들이 사는 <우리 동네 문학마을>)	15
51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두근두근' 시 창작 주머니)	49
52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시끌시끌(詩글詩글) 문학 피크닉)	25
53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도약 = 방향(d)x힘(f)x공감(e)⁴x관계(r)⁴)	22
54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Point Nemo 라디오 공개 방송)	26
55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문학으로 도움닫기, 마음으로 도움-닿기)	51
56	8/22	문학주간2025 전야제 <Talk! Talk! 문학에너지발전소>	172
57	8/29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 소풍 <그림책 응원석> 신청 공지	168
58	9/1	<도움—닿기> 티저 공개	61
59	9/2	문학주간2025 X 한국저작권위원회	31
60	9/4	사전예약 취소표 잔여좌석 오픈 안내	61
61	9/5	문학주간 야외 체험 부스 안내	61
62	9/8	FAQ	91
63	9/10	굿즈 소개	75
64	9/12	문학주간을 찾는 청소년을 위한 책 사줄게 프로젝트	68
65	9/12	D-1 안내	41
66	9/14	현장 체험 운영 변동사항 안내	54
67	9/15	사전예약 관련 안내	55
68	9/15	2025 문학주간 책 나눔 이벤트	129

3-3. 페이스북

- 문학주간 주요 프로그램 및 공지사항 피드 발행
- 문학주간 이벤트 및 캠페인 운영



채널 운영	2025년 7월 23일 ~ 10월 30일
팔로워 수	441명(2025.09.29. 기준)
콘텐츠 발행 개수	게시물 71개
추진 성과	도달한 계정 : 1,588 콘텐츠 반응 : 524

3.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발행 리스트

No.	게시날짜	게시 내용	도달수 / 좋아요
1	7/23	키비주얼 오픈(메인 포스터)	136 / 5
2	7/29	온라인 이벤트 ① 오픈	620 / 86
3	8/1	온라인 이벤트 ② 오픈	172 / 9
4	8/5	라인업 공개	262 / 7
5	8/5	개막(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52 / 2
6	8/6	주제스테이지(청소년, 시에 닿다)	88 / 2
7	8/6	주제스테이지(생각보다, 생각만큼)	42 / 0
8	8/6	주제스테이지(이런 밤, 들 가운데서)	49 / 1
9	8/6	주제스테이지(유령들의 대화)	175 / 0
10	8/6	주제스테이지(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설 마음)	49 / 0
11	8/7	주제스테이지(퀴어시낭독회)	39 / 0
12	8/7	주제스테이지(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83 / 2
13	8/7	주제스테이지(날아오르기, 직전)	186 / 1
14	8/7	주제스테이지(경계 너머의 이야기)	46 / 2
15	8/7	주제스테이지(우리 철봉 하자 낭독회)	49 / 2
16	8/8	주제스테이지(기형도 플레이)	40 / 2
17	8/8	주제스테이지(그만두는 경력)	133 / 3
18	8/8	주제스테이지(판타지세계에 도착했습니다)	90 / 3
19	8/8	주제스테이지(읽고 만나고 쓰는 마음)	41 / 1
20	8/8	주제스테이지(김명순의 첫 번째 100주년)	189 / 1
21	8/8	주제스테이지(아픔을 읽기 쓰기)	42 / 0
22	8/9	주제스테이지(나를 구하는 나(들))	102 / 2
23	8/9	주제스테이지(누가 짓지 않은 집)	132 / 0
24	8/9	주제스테이지(시를 쉽게 고쳐 쓰시오)	41 / 2
25	8/9	주제스테이지(산다는 농담과 쓴다는 고민)	39 / 0
26	8/9	주제스테이지(우리의 세계가 얽혀 있다면)	42 / 0
27	8/9	폐막(김혜순, 시하다)	42 / 1
28	8/11	협력스테이지(타인의 삶-장르의 경계를 넘어)	32 / 0
29	8/11	협력스테이지(김환영의 '라이브 샌드 퍼포먼스')	63 / 3
30	8/11	협력스테이지(우리들의 어린_마음)	82 / 1
31	8/11	협력스테이지(글틴 오늘의 문학)	33 / 0
32	8/11	협력스테이지(일곱 시인과 함께 만나는 『시 보다 2025』)	38 / 0
33	8/12	협력스테이지(어린이-청소년, 문학으로 닿기)	29 / 0
34	8/12	협력스테이지(IWP 아이오와 국제 라이팅 프로그램 포커싱)	31 / 0
35	8/12	협력스테이지(마영신 깊이 읽기)	33 / 2
36	8/12	협력스테이지(빅토리아 마스 미친 여자들의 무도회 북토크)	36 / 1
37	8/12	협력스테이지(그림책 작가와 편집자 대담)	89 / 3
38	8/13	협력스테이지(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34 / 3
39	8/13	협력스테이지(향수, 음악과 문학이 소환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하여)	33 / 0
40	8/13	협력스테이지(2025 신춘문예 등단작가 특집)	35 / 2
41	8/13	협력스테이지(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 <꿈으로 지은 집> 연계 황유원, 이유리 작가 토크)	33 / 0
42	8/13	협력스테이지(야외)(문장의소리 공개방송 특집 보이는라디오 '문학으로 닿은 마음')	40 / 0
43	8/14	협력스테이지(키냐르를 읽는 시간) - 수정 파일 재업로드	39 / 1
44	8/14	전시스테이지(문학주간2025 X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전시 <아자! 아자!>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소풍	43 / 0
45	8/14	사전예약 오픈 일정 안내	105 / 3
46	8/19	온라인 이벤트 ③ 오픈	127 / 5
47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1~5)	33 / 0
48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6~10)	35 / 1
49	8/22	문학주간2025 전야제 <Talk! Talk! 문학에너지발전소>	33 / 2
50	8/29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 소풍 <그림책 응원석> 신청 공지	89 / 1
51	9/1	<도움ㅡ닿기> 티저 공개	83 / 1
52	9/2	문학주간2025 X 한국저작권위원회	31 / 1
53	9/3	온라인 이벤트 ④ 오픈	254 / 21
54	9/4	사전예약 취소표 잔여좌석 오픈 안내	123 / 1
55	9/5	문학주간 야외 체험 부스 안내	24 / 1
56	9/5	포켓 실크스크린 책갈피 만들기 체험 릴스	23 / 1
57	9/8	FAQ	28 / 1
58	9/10	굿즈 소개	28 / 2
59	9/12	문학주간을 찾는 청소년을 위한 책 사줄게 프로젝트	100 / 1
60	9/12	D-1 안내	29 / 1
61	9/14	현장 체험 운영 변동사항 안내	21 / 0
62	9/15	사전예약 관련 안내	17 / 1
63	9/15	2025 문학주간 책 나눔 이벤트	15 / 0
64	9/17	문학주간 현장 숏폼	26 / 2
65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3)	17 / 1
66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4)	12 / 1
67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5)	19 / 2
68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6)	23 / 1
69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7)	32 / 1
70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8)	27 / 1
71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9)	49 / 1
72	10/24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영상	26 / 1

3. 온라인 홍보

3-4. X

- 문학주간 계정 신설
- 문학주간 주요 프로그램 및 공지사항 피드 발행
- 문학주간 이벤트 및 캠페인 운영
- 계정 팔로우 및 피드 반응 유도



채널 운영	2025년 7월 23일 ~ 10월 30일
팔로워 수	643명(2025.09.29. 기준)
콘텐츠 발행 개수	게시물 104개
추진 성과	노출수: 353,311 참여수: 22,388

X 발행 리스트

No.	게시날짜	게시 내용	조회수 / 참여수
1	7/23	키비주얼 오픈	1만 / 62
2	7/24	문학주간팀 일상 및 소통 ①	185 / 5
3	7/24	주제해제문	252 / 3
4	7/28	온라인 이벤트 ① 오픈	2,628 / 131
5	7/30	라인업 스포일러	452 / 13
6	7/30	문학주간팀 일상 및 소통 ②	1,911 / 45
7	7/31	문학주간팀 일상 및 소통 ③	437 / 11
8	8/1	온라인 이벤트 ② 오픈	9,788 / 115
9	8/4	D-40 알림	1,093 / 15
10	8/5	라인업 공개	3,084 / 110
11	8/5	문학주간팀 일상 및 소통 ④	3,882 / 43
12	8/5	개막(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1.5만 / 148
13	8/6	사전예약 예고	2,400 / 27
14	8/6	굿즈 스포일러	1,569 / 31
15	8/6	주제스테이지(청소년, 시에 닿다)	2,826 / 15
16	8/6	주제스테이지(생각보다, 생각만큼)	2,831 / 23
17	8/6	주제스테이지(이런 밤, 들 가운데서)	3,649 / 29
18	8/6	주제스테이지(유령들의 대화)	3,264 / 27
19	8/6	주제스테이지(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설 마음)	2,397 / 9
20	8/7	주제스테이지(퀴어시낭독회)	5,468 / 56
21	8/7	주제스테이지(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1,348 / 8
22	8/7	주제스테이지(날아오르기, 직전)	3,117 / 33
23	8/7	주제스테이지(경계 너머의 이야기)	4,997 / 24
24	8/7	주제스테이지(우리 철봉 하자 낭독회)	1,620 / 10
25	8/8	주제스테이지(기형도 플레이)	2,758 / 38
26	8/8	주제스테이지(그만두는 경력)	1,389 / 12
27	8/8	주제스테이지(판타지세계에 도착했습니다)	1,068 / 3
28	8/8	주제스테이지(읽고 만나고 쓰는 마음)	855 / 8
29	8/8	주제스테이지(김명순의 첫 번째 100주년)	1,703 / 24
30	8/8	주제스테이지(아픔을 읽기 쓰기)	1,138 / 8
31	8/9	주제스테이지(나를 구하는 나(들))	1,622 / 19
32	8/9	주제스테이지(누가 짓지 않은 집)	2,504 / 53
33	8/9	주제스테이지(시를 쉽게 고쳐 쓰시오)	2,158 / 22
34	8/9	주제스테이지(산다는 농담과 쓴다는 고민)	758 / 5
35	8/9	주제스테이지(우리의 세계가 얽혀 있다면)	1,754 / 15
36	8/9	폐막(김혜순, 시하다)	7,898 / 34
37	8/11	협력프로그램 스포일러	1,415 / 23
38	8/11	협력스테이지(타인의 삶-장르의 경계를 넘어)	3,675 / 21

3. 온라인 홍보

X 발행 리스트

No.	게시날짜	게시 내용	조회수 / 참여수
39	8/11	협력스테이지(김환영의 '라이브 샌드 퍼포먼스')	6,494 / 11
40	8/11	협력스테이지(우리들의 어린_마음)	796 / 2
41	8/11	협력스테이지(글틴 오늘의 문학)	3,367 / 15
42	8/11	협력스테이지(일곱 시인과 함께 만나는 『시 보다 2025』)	5.873 / 29
43	8/12	협력스테이지(어린이·청소년, 문학으로 닿기)	704 / 7
44	8/12	협력스테이지(IWP 아이오와 국제 라이팅 프로그램 포커싱)	1,191 / 8
45	8/12	협력스테이지(마영신 깊이 읽기)	808 / 7
46	8/12	협력스테이지(빅토리아 마스 미친 여자들의 무도회 북토크)	3,984 / 16
47	8/12	협력스테이지(그림책 작가와 편집자 대담)	702 / 2
48	8/13	협력스테이지(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3,151 / 4
49	8/13	협력스테이지(향수, 음악과 문학이 소환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하여)	1,037 / 9
50	8/13	협력스테이지(2025 신춘문예 등단작가 특집)	3,919 / 23
51	8/13	협력스테이지(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 <꿈으로 지은 집> 연계 황유원, 이유리 작가 토크)	936 / 7
52	8/14	협력스테이지(키냐르를 읽는 시간)	2,001 / 3
53	8/14	협력스테이지(야외)(문장의소리 공개방송 특집 보이는라디오 '문학으로 닿은 마음')	4,668 / 34
54	8/14	전시스테이지(문학주간2025 X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전시 <아자! 아자!>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소풍	909 / 4
55	8/14	사전예약 오픈 일정 안내	3,884 / 50
56	8/18	사전예약 오픈 2시간 전 알림	8,818 / 32
57	8/18	사전예약 오픈 알림	9,558 / 51
58	8/19	온라인 이벤트 ③ 오픈	9,855 / 104
59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1~4)	738 / 7
60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5~8)	482 / 1
61	8/22	문학상주작가스테이지(9~10)	371 / 3
62	8/22	문학주간2025 전야제 <Talk! Talk! 문학에너지발전소>	767 / 7
63	8/25	D-19 알림	644 / 20
64	8/26	체험 굿즈 스포일러	1,188 / 26
65	8/27	문학주간팀 일상 및 소통 ⑤	805 / 18
66	8/29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 기획 예술로 소풍 <그림책 응원석> 신청 공지	733 / 4
67	9/1	<도움—닿기> 티저 공개	2,526 / 15
68	9/2	문학주간2025×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특별 상담	447 / 4
69	9/2	문학주간팀 일상 및 소통 ⑥	1,568 / 12
70	9/3	문학주간 X 팔로워 도서 증정 이벤트 오픈	7,430 / 36
71	9/4	사전예약 취소표 및 잔여좌석 오픈 안내	5,617 / 28
72	9/4	김혜순 신작시집 출간일 폐막식 홍보	2,773 / 28
73	9/5	사전예약 취소표 오픈 5분 전 알림	1,964 / 2
74	9/5	문학주간 야외 체험 부스 안내	1,999 / 30
75	9/5	포켓 실크스크린 책갈피 만들기 체험 숏폼	1,683 / 26
76	9/8	D-5 알림	646 / 10
77	9/8	FAQ	533 / 6
78	9/9	문학주간팀 일상 및 소통 ⑦	578 / 9
79	9/10	D-3 알림	667 / 14
80	9/10	굿즈 소개	4,586 / 45
81	9/12	D-1 스탭 현장 스케치	591 / 7
82	9/12	문학주간을 찾는 청소년을 위한 책사줄게프로젝트	1,163 / 11
83	9/12	D-1 안내	1,164 / 10
84	9/13	1일차 스탭 현장 스케치 ①	636 / 11
85	9/13	1일차 스탭 현장 스케치 ②	542 / 11
86	9/14	2일차 스탭 현장 스케치 ①	711 / 9
87	9/14	2일차 스탭 현장 스케치 ②	842 / 16
88	9/14	현장 체험 운영 변동사항 안내	1,190 / 10
89	9/14	2일차 스탭 현장 스케치 ③	2,333 / 21
90	9/15	사전예약 관련 안내	2,210 / 11
91	9/15	2025 문학주간 책 나눔 이벤트	4,845 / 98
92	9/15	3일차 스탭 현장 스케치	982 / 11
93	9/17	문학주간 현장 숏폼	5,000 / 62
94	9/18	4·5일차 스탭 현장 스케치	922 / 5
95	9/19	6일차 스탭 현장 스케치	1,227 / 19
96	9/19	7일차 스탭 현장 스케치	845 / 24
97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3)	548 / 5
98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4)	172 / 4
99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5)	142 / 2
100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6)	123 / 2
101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7)	206 / 3
102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8)	178 / 2
103	10/2	문학주간 현장 후기(9/19)	400 / 9
104	10/24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영상	387 / 4

3. 온라인 홍보

3-5. 홈페이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문학주간 업데이트 및 상세 정보 노출
- 블로그를 통해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페이지 연동 작업
- 사전 예약 페이지 연동 및 리플렛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현





3-6. 알라딘

- 문학주간 홍보 및 이벤트 운영
- (이벤트①) 문학주간 캐릭터 뽑기 테스트를 통해 사전 예약까지 연결되도록 운영
- (이벤트②) '나의 인생에서 [도움—닿기]가 되었던 책 속의 문장' 댓글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 적립금 1천원 지급
- (이벤트③) 문학주간 행사 도서 포함 2만 5천원 이상 구매시 알라딘 굿즈 '패브릭 금박 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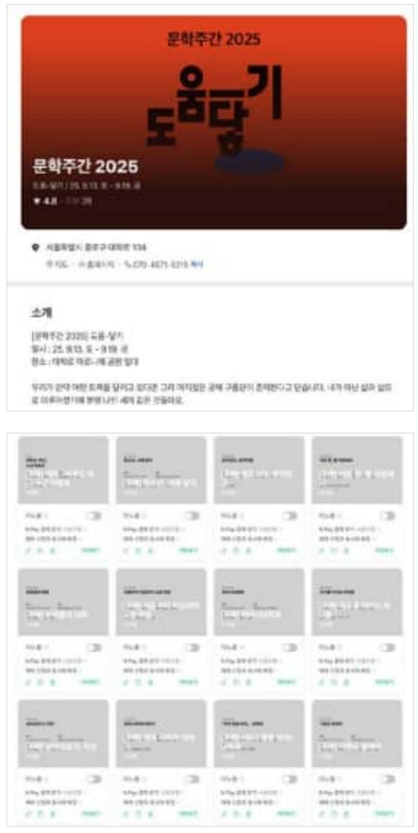
운영기간	2025년 8월 18일 ~ 9월 19일
참여자 수	댓글 이벤트 4,561명(2025.9.19.이벤트 마감)
이벤트 운영	① 문학주간 캐릭터 뽑기 테스트 ② '나의 인생에서 [도움—닿기]가 되었던 책 속의 문장' 댓글 이벤트 ③ 알라딘 굿즈 배포 이벤트

3. 온라인 홍보

3-7. 네이버 예약

- 사전 신청을 위한 네이버 예약페이지 개설, 포털로 키워드 검색 시 예약페이지 연결되도록 구현





3-8. 영상 홍보

- 콘텐츠 발행 : 티저 영상 1건, 티저 쇼츠 영상 2건, 스케치 영상 2건, 녹화 영상 4건
- 기획의도가 담긴 티저영상물 제작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홍보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르코미술관 옥외홍보 LED)

발행일	제작물	EA	매체명	조회수
9/13	티저영상(90초)	1	인스타그램/페이스북/X/유튜브	3691/164/2514/197
9/28	[숏폼]굿즈 소개	1	인스타그램/페이스북/X	2361/34/1677
9/30	[숏폼]현장 프로그램 리뷰	1	인스타그램/페이스북/X	1892/45/4893
10/24	스케치영상(180초)	1	인스타그램/유튜브	
10/27	스케치영상 모음(11분)	1	유튜브	
제작중	헤드라이너 녹화영상	4	납품	

티저영상









3. 온라인 홍보

3-8. 영상 홍보

숏폼




숏폼 1차 | 굿즈 소개




숏폼 2차 | 현장 프로그램 리뷰

하이라이트 영상









3-9. 커뮤니티 홍보

홍보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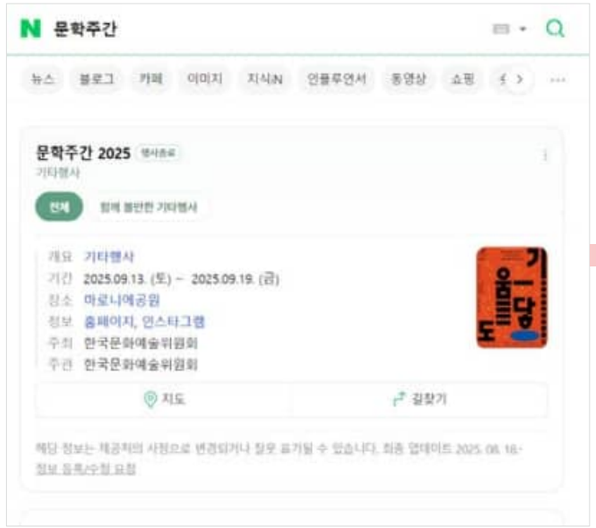
발행일	구분	매체명	인사이트	링크
7/29	축제 정보	대한민국 구석구석	조회수: 3,300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fes_detail.do?cotid=eb1ebacb-2274-4fbf-a652-89d63fb799eb
7/29		네이버(축제정보 등록)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B%AC%B8%ED%95%99%EC%A3%BC%EA%B0%84&oquery=%EC%95%8C%EC%BA%A1%EC%B3%90&tqi=jLE7QsqVJLhssPmJEZhsssssqs-229498&ackey=0uecdaid
7/29		서울문화포털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B%AC%B8%ED%95%99%EC%A3%BC%EA%B0%84&oquery=%EC%95%8C%EC%BA%A1%EC%B3%90&tqi=jLE7QsqVJLhssPmJEZhsssssqs-229498&ackey=0uecdaid
8/18	외부 홍보	주말토리 인스타그램	조회수 : 16,292 도달 : 6,371 좋아요 : 117	https://www.instagram.com/p/DNebkVdz1zD/
8/19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 159	https://www.instagram.com/p/DNh5dl70lUZ/?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YXo0Zjc4cGNpbWF1
8/19	협력사	문학과지성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 237	https://www.instagram.com/p/DNhvwGwv_CD/?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aTV4eTZwMGN5aWw3
8/20	축제 정보	비짓서울	-	https://korean.visitseoul.net/events/LiteratureWeek_/50043?utm_source=snssharing&utm_medium=urlcopy
8/21	협력사	문학과지성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 127	https://www.instagram.com/p/DNmyuFoPRQh/?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TY1YzM5NTVpNjBjdQ==
8/29	외부 홍보	주말토리 뉴스레터	발송자수 : 80,123 오픈(PV) : 36,086 클릭수 : 369	https://www.instagram.com/p/DNebkVdz1zD/
8/31	네이버 카페	마포용산맘 모여라	조회수 : 358	https://cafe.naver.com/nanuginara/296618
8/31		종로서대문맘스힐링♥중구맘		https://cafe.naver.com/fksgml/201127
8/31		노원맘 대표카페		https://cafe.naver.com/applelog/852734
8/31		큐레이터 세상		https://cafe.naver.com/hbrm/94813
8/31		문화충전200%		https://cafe.naver.com/real21/3022901
8/31		미즈넷		https://cafe.naver.com/miznett/4718092
8/31		공연전시조아		https://cafe.naver.com/gongjeonjoa/126547
8/31		구로맘홀릭		https://cafe.naver.com/seondan63/33472
8/31		서울맘스러브		https://cafe.naver.com/starkart/2581042
8/31		북카페 책과 콩나무		https://cafe.naver.com/booknbeanstalk/1363507
8/31		컬처블룸		https://cafe.naver.com/culturebloom/2870207
8/31		천사들의 놀이터		https://cafe.naver.com/pp04350/179083
8/31		레몬테라스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34004795
8/31		월급쟁이부자들		https://cafe.naver.com/wecando7/11603731
8/31		서울뷰티맘		https://cafe.naver.com/jnc3/229916
9/1	기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rko_theater/223988098747

3. 온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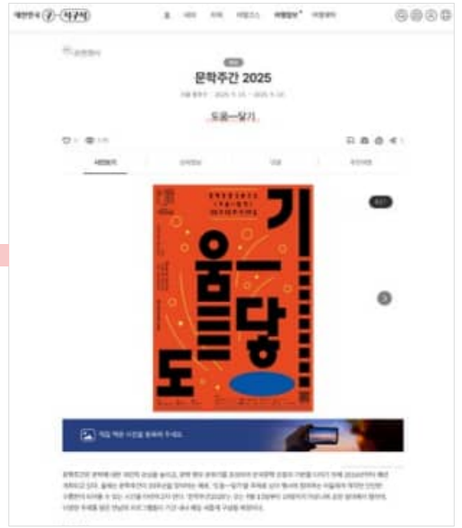
3-9.
커뮤니티 홍보
홍보 리스트

발행일	구분	매체명	인사이트	링크
9/1		창비 인스타그램	좋아요 : 156	https://www.instagram.com/p/DOCbQ0uE7jo/?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ZDg2dWhqZnFzeG5r
9/2	기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인스타그램	좋아요 : 79	https://www.instagram.com/p/DOF0qebEqoh/?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ThtZzdrdGtwM3E0Zg==
9/3	네이버카페	강서마곡맘모여라	조회수 : 224	https://cafe.naver.com/ysmom/83170
9/3		둔촌동아지매 (강동구맘 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185478/3139
9/3		영등포구로맘 모여라		https://cafe.naver.com/specbible/65825
9/3		강북노원도봉성북 응답하라 아지매		https://cafe.naver.com/agameworld/893629
9/4		종로서대문맘스힐링♥중구맘		https://cafe.naver.com/fksgml/201668
9/4		관금동맘블리		https://cafe.naver.com/news2080/353239
9/4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공식카페 싱그레		https://cafe.naver.com/seoulhanbumo/82354
9/4	협력사	알라딘 인스타그램	좋아요 : 34	https://www.instagram.com/p/DOKhr4biNfG/?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ZGFxNHIwMGh6bHlx
9/5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인스타그램	좋아요 : 112	https://www.instagram.com/p/DONZkk8CX8T/?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Y3U3MXk2M3ZzOWdk
9/10	기관	아르코미술관 인스타그램	좋아요 : 36	https://www.instagram.com/p/DOaP5acga8S/?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cWdtZGN3dW1yMXg2
9/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 551	https://www.instagram.com/p/DOfMrCGFGik/?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WI4NndmZ2dhMHpndw==
9/12	협력사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인스타그램	좋아요 : 85	https://www.instagram.com/p/DOfze2miXr-/?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WxicjlkejZ5ank3ZA==
9/15		도서출판 한울림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ulimkids/224009229746
9/17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cstkorea/224011618038
9/18		문학광장 인스타그램	좋아요 : 28	https://www.instagram.com/reel/DOtgAK4ksAT/?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cmFydmU0amJmNmJt
9/24		아르코미술관 인스타그램	좋아요 : 37	https://www.instagram.com/p/DO-V7bqAeLR/?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TI4M2IzbWV0b2FhOA==
9/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에이스퀘어	-	https://thearts.arko.or.kr/asquare/search/194

• 축제정보등록



• 대한민국 구석구석



• 비짓서울



• 서울문화포털



3. 온라인 홍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스타그램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인스타그램



• 문학과지성사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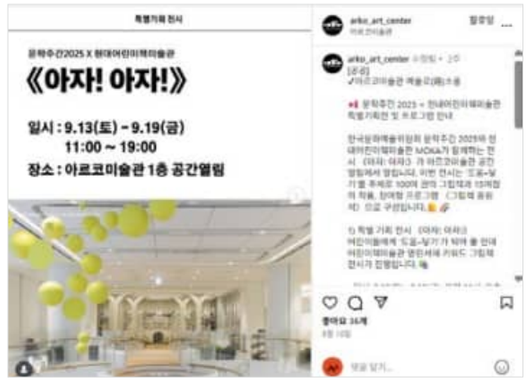
• 창비 인스타그램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인스타그램



• 아르코 미술관 인스타그램



• 주말토리



• 알라딘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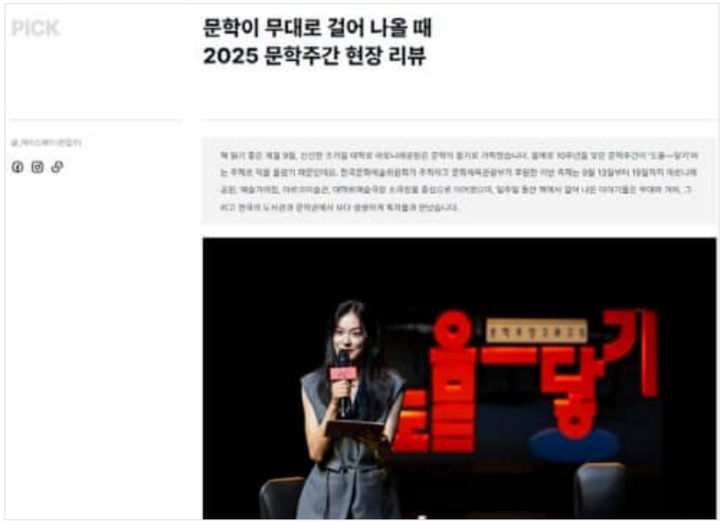
• 문학광장 인스타그램





3. 온라인 홍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에이스퀘어



• 네이버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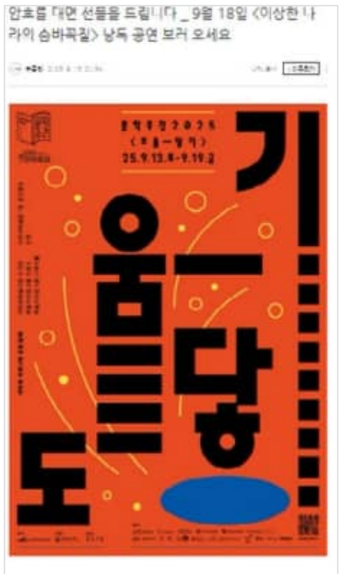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블로그



•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 도서출판 한울림 블로그



3-10. 이벤트

• 문학주간 2025 주제 맞히기 퀴즈 이벤트



진행일시	2025년 7월 28일 ~ 8월 4일
참여방식	문학주간 2025 주제를 댓글 달기 *문학주간 팔로우 및 태그 필수
선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30명
참여자	총 1,488명 인스타그램 - 1,286명 페이스북 - 93명 X - 109명

• 나에게 <도움—닿기>가 되었던 책 소개 이벤트



진행일시	2025년 8월 1일 ~ 8월 8일
참여방식	나에게 <도움—닿기>가 되었던 책을 댓글에 달아 소개하기 *문학주간 팔로우 및 태그 필수
선물	네이버페이 30,000원권 (10명)
참여자	총 763명 인스타그램 - 672명 페이스북 - 1명 X - 90명

3. 온라인 홍보

3-10. 이벤트

• 알라딘 협업 이벤트



진행일시	2025년 8월 18일 ~ 9월 19일
참여방식	① '나의 인생에서 [도움—닿기]가 되었던 책 속의 문장' 댓글 이벤트 ② 문학주간 행사 도서 구매 알라딘 굿즈 배포 이벤트
선물	① [도움—닿기] 문장 댓글 이벤트 - 적립금 지급 ② 도서 구매 시 - 패브릭 금박 노트 증정
참여자	총 4,561명

• 문학주간 캐릭터 뽑기 이벤트



진행일시	2025년 8월 19일 ~ 9월 1일
참여방식	① 프로필 링크 클릭 ② 문학주간 캐릭터 뽑기 테스트 참여 ③ 캐릭터 결과지 캡쳐 후 스토리 or 피드 인증 ④ 참여 완료 댓글 달기 *문학주간 팔로우 및 태그 필수
선물	네이버페이 10,000원 10명
참여자	총 224명 인스타그램 - 195명 페이스북 - 3명 X - 26명

• 문학주간 10주년 댓글 이벤트



진행일시	2025년 9월 3일 ~ 9월 19일
참여방식	#문학주간 #10주년 #도움닿기 3가지 키워드를 포함하여 문학주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댓글 달기
선물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50명
참여자	총 739명 인스타그램 - 716명 페이스북 - 23명

• 문학주간 X 팔로워 도서 증정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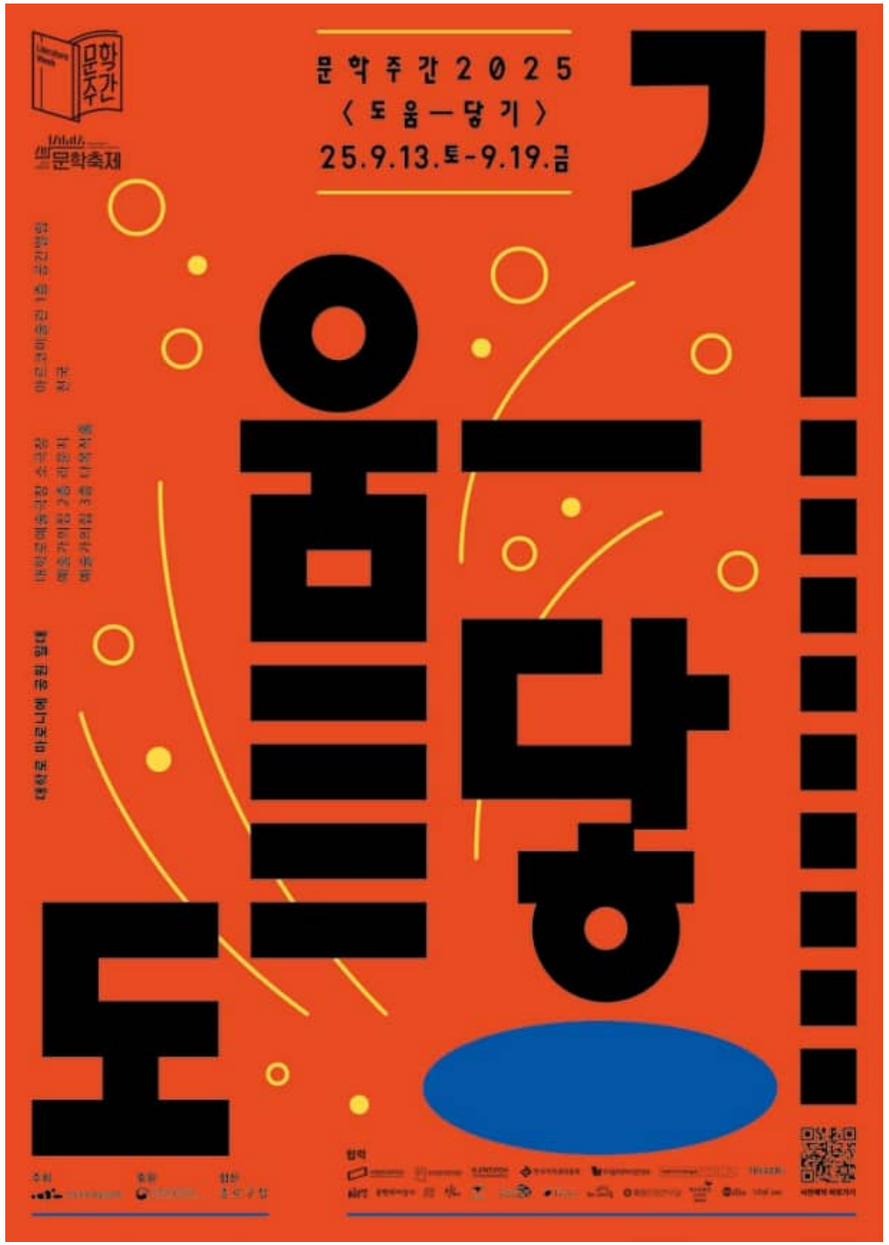


진행일시	2025년 9월 3일 ~ 9월 8일
참여방식	문학주간 사전예약을 완료한 후 인용으로 원하는 참여작가 책 제목과 가장 기대중인 스테이지 제목 올리기
선물	문학주간 참여 작가 도서 5권
참여자	문학주간 X 팔로워

4. 오프라인 홍보

4-1. 인쇄 홍보물

포스터



지면광고





창비어린이 2025년 가을호

4. 오프라인 홍보

4-1. 인쇄 홍보물

리플렛







4. 오프라인 홍보

4-1.
인쇄 홍보물

VIP 초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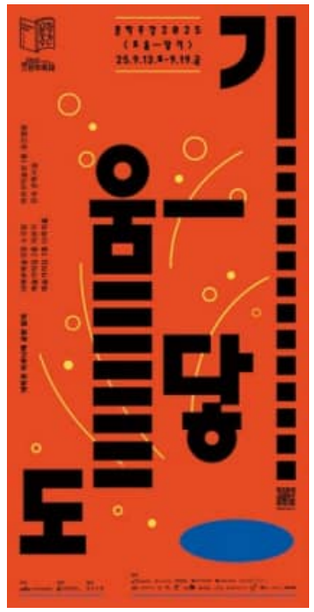






4-2.
옥외 홍보물

아르코미술관 LED 홍보 티저 영상, 메인 포스터 이미지 노출









4. 오프라인 홍보

4-2. 옥외 홍보물

옥외 현수막



종로 일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현수막







4. 오프라인 홍보

4-2.
옥외 홍보물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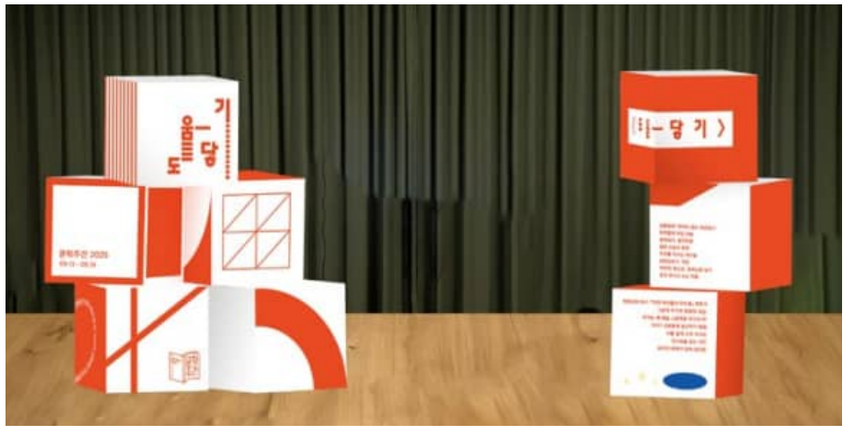
4. 오프라인 홍보

4-2.
옥외 홍보물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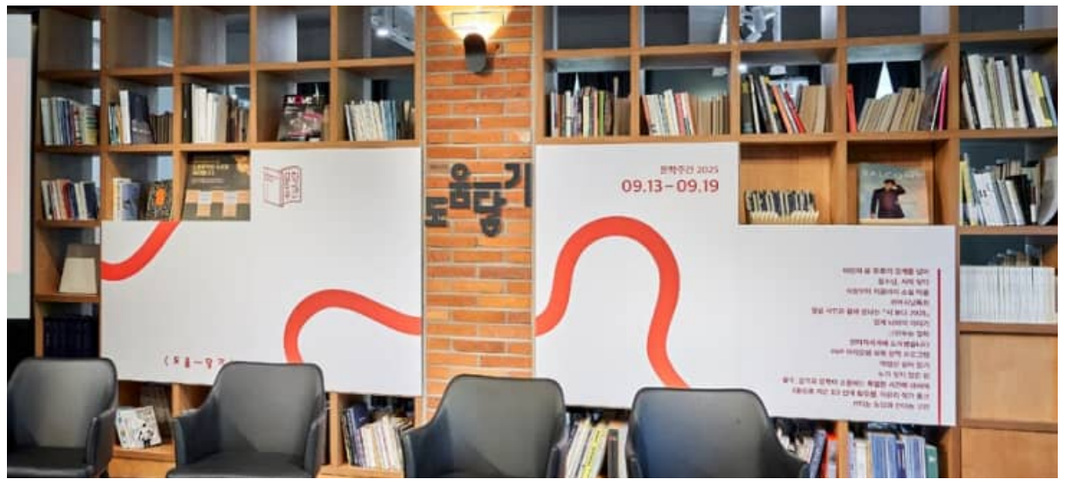
예술가의집 라운지 백월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장식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무대 스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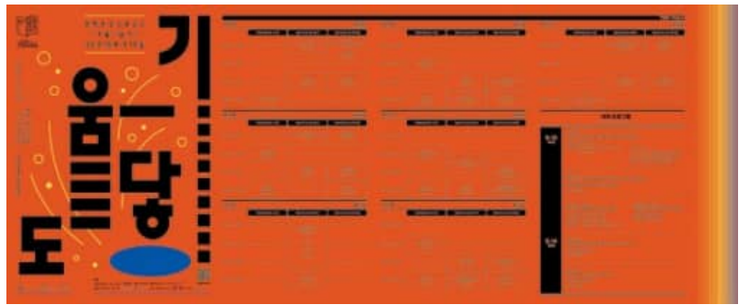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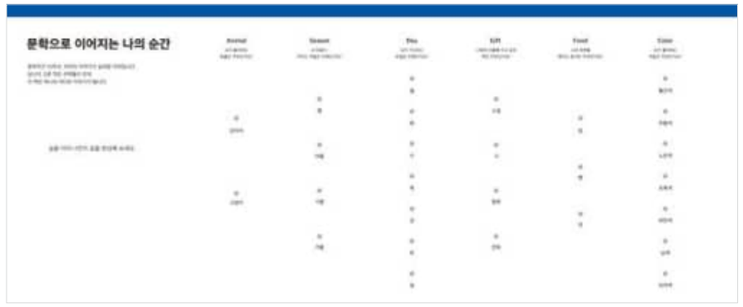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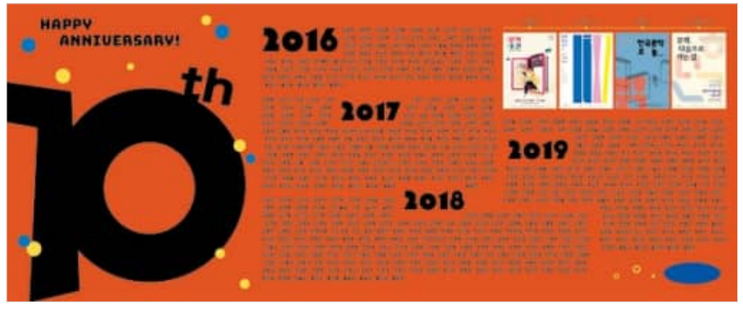
4. 오프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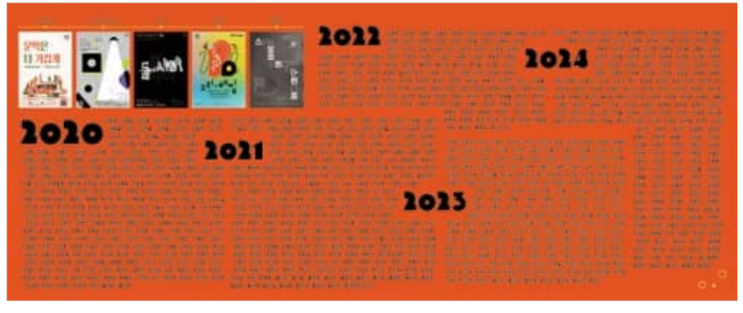
4-2.
옥외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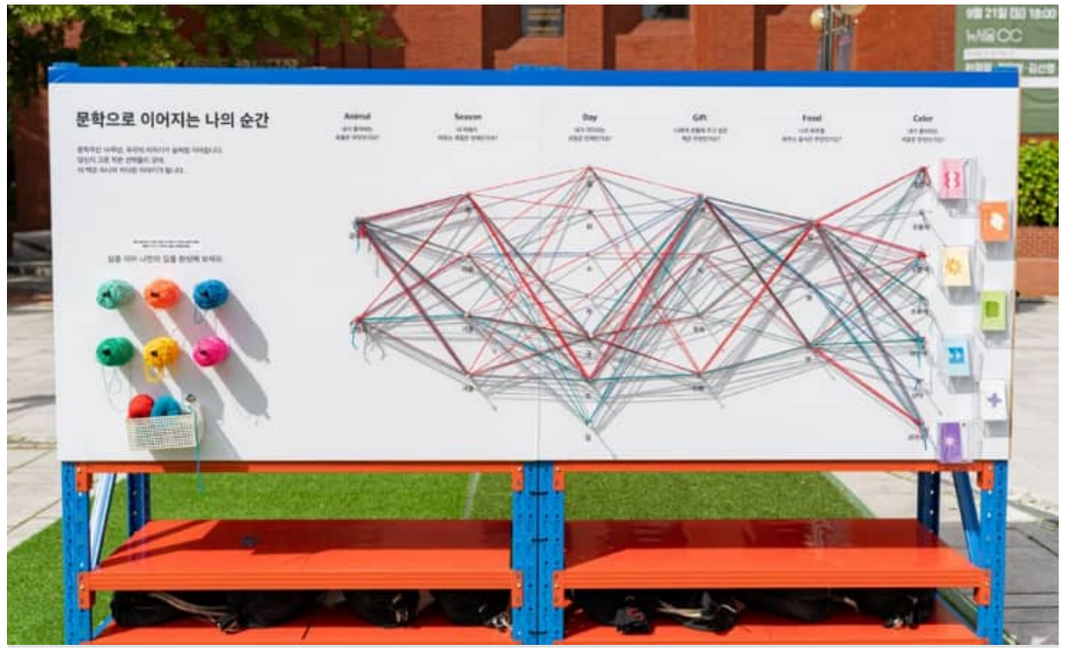
10주년 게시대















4. 오프라인 홍보

4-3. 현장 제작물

큐카드





마이크텍





스태프 명찰





4-3. 현장 제작물

굿즈



문장 파우치



커피정경 드립백





4. 오프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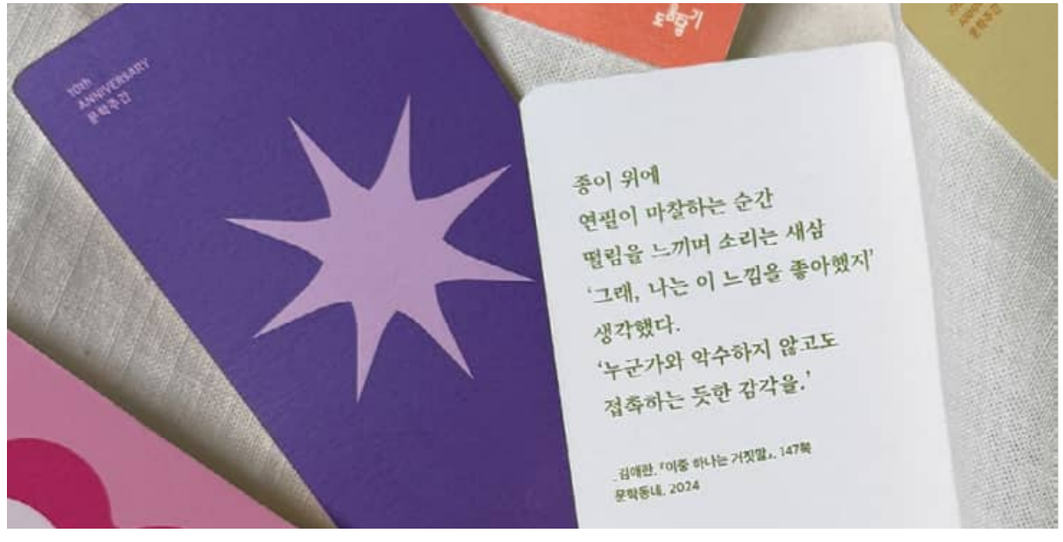
4-3. 현장 제작물

문장카드









4. 오프라인 홍보

4-3.
현장 제작물

실크스크린












관하며
미션 성공






친구랑 싸웠어!








나의 파랑새
항상 너를 응원해





문학주간2025 도움—닿기

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김나영 팀장
박헌일 차장
박성훈 대리
이소영 주임
정다은 주임

기획위원
김선영 편집자, 출판사 핀드 대표
김　현 시인
소유정 문학평론가
양근애 연극평론가, 드라마투르그
예소연 소설가
오세란 아동청소년 문학평론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운영/홍보
㈜태인크리에이티브랩

협력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글로연
문학과지성사
봄볕
브로콜리숲
알라딘
천개의바람
프란츠
해의아이들
홈통만화연구실
교보문고
밀리의서재
비타콘
트레바리

협찬
종로구청

도움닫기

문학주간2025